금주의 법구-〈아함경〉
활짝 열린 눈에는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4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8호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불량LED연등 설치 55사찰 대웅전 천장서 불꽃 '툭툭'

[진단] 사찰이 안전하지 않다 2

국민안전처 안전점검서 적발
미인증 LED연등 화재 주원인
고압 흐를시 1시간 내 발화
"교외 사찰 대부분 고압 위험"

"KC인증도 모르는 스님 많아"
조계종은 4월부터 계도 나서
일반사찰 · 군소종단 관심 필요
정부 · 불교계 개선 움직임 주문

2015년 11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찰에서 불이나 불을 끄던 주지 스님이 화상을 입고 대웅전이 모두 불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시도유형문화재 불상 1점을 비롯해 총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이 화재의 원인은 대웅전 내부에 설치된 '미인증 LED연등'이었다.

방재의날인 5월 25일을 맞아 국민안전처의 '2016 전통사찰 안전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미인증 LED연등을 사용한 사찰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2099개 사찰에서 LED인증연등 점검을 벌여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55개 사찰을 적발, 인증제품 교체를 지도하고 시군구 문화재부서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의 LED 연등 실태조사는 처음있는 일이다.

국민안전처 LED연등제품 지도 결과

대상 (사찰)	결과	
	양호	불량
2,099	2,044	55

국민안전처 사찰 안전점검 종합 결과

대상 (사찰)	결과	
	양호	불량
3,184	2,925	259
불량내역(312건)		
소방 257	전기 17	건축 6
가스 8	기타 25	소계 312

분야별 주요 불량사항

소방 – 소화기 불량, 소화전 펌프 누수
전기 – 분전함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가스 – 가스경보기 및 차단기 미설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2016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소방훈련 모습.

최근 사찰의 LED연등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기존 백열전구 연등보다 전기를 절약하고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기간에도 봉축위 거리연등을 비롯해 서울지역에서만 약 2만여개의 연등이 LED연등으로 교체됐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소방 관계자들은 시중에 풀린 LED연등 중 2/3가량이 미인증 제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수의 미인증LED연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의정부소방서가 지난 3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16화재조사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전통사찰 LED연등 착화 개연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사례'에 따르면 미인증 LED연등은 비정상전압 시 발화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근식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팀 팀장은 "미인증 LED연등은 보호회로가 없이 220볼트에만 적합하게 설계됐고, 그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면 열이 나면서 터지거나 내부가 녹아버린다"며 "실험결과 240볼트 전압을 공급하면 1시간 내로 불꽃이 일었다. 사찰이 주로 위치한 교외지역은 전압감소를 감안해 230볼트부터 240볼트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미인증 LED연등 사용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소방학과 교수는 "최근 연등, 크리스마스 트리 등에서 발화한 화재가 늘고 있다. LED연등의 경우 그 재질로 조그마한 불꽃이 튀어도 발화하게 된다. 보통 사찰의 환경상 초기진압이 힘들고, 목조인 사찰 건물로 불이 붙기 쉽다. 심지어 대형산불로 전개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에도 아직 사찰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사찰 전기 · 소방공사 등을 진행하는 원진건설 김석두 부사장은 "국가검사를 통과한 KC인증제품이 개당 4000원인데 비해 미인증은 개당 1500원 선으로 일반 용품점에서 미인증을 가져다 놓는게 태반"이라며 "스님들도 일반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해서 막 달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스님들이 KC인증도 모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사찰이 많아 방재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범종단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4월부터 계도활동을 시작했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4월부터 일선사찰에 미인증 LED연등 교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사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선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사찰은 불교계 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불교계와 정부당국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3184개 전통사찰에 대해 진행된 안전점검 종합결과에서는 259개소에서 312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으로는 소방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1건은 사안이 중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관 통보가 56건이며 나머지 265건은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두 번째 불량요소는 전기부분으로 17건이었으며 건축과 가스 불량은 각각 6건과 8건이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대한불교청년회 · 불교여성개발원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5월 18일 제123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시위를 공동주최했다. 불교계 첫 주최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성명서 낭독 후 "위안부 한일합의 전면무효"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저희가 손잡아드릴게요"

불교계 사회단체, 5월 18일 위안부 수요시위 첫 주최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요시위에 참가한 후, 위안부 문제가 내 일이자 우리 모두의 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 경희대 평화나비 소속 박소해 학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대한불교청년회 · 불교여성개발원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5월 18일 공동주최한 제123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시위에는 이웃종교인들은 물론, 전국 각지 초 · 중 · 고등학교로부터 어린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했다. 불교계에서 수요시위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하루 전(17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공점엽(96) · 이수단(95)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에 이어 사회노동위원 고금 스님의 법고 의식,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먼저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힌 상황에 억만금의 돈을 가져온들 해결할 수 있겠냐"며 "한 · 일정부는 12.28합의를 원천무효화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엄한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채윤 · 김나영 · 김서연(석관초 · 5년) 학생은 "우리 정부는 많은 고통을 받은 할머니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에 흔들렸다"면서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들도 사과를 받아들일지 모른다. 하루빨리 일본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당차게 외쳤다.

이밖에도 사회노동위 대표발언서 혜찬 스님은 "오늘 우리는 '제1231차'란 유례없는 시위 역사에 서 있다. 이토록 긴 시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하나 없다"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순환하는 역사가 아닌 전진하는 역사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역사를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의 진실과 민족유린사실을 부정하는 12.28위안부 합의는 근본적으로 무효이며, 또 다른 2차 가해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참회와 법정 배상 △세계인에 대한 엄중한 사과 △12.28합의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동티모르 위안부 피해자 이네스 할머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혜찬 · 고금 스님 등 7명, 태고종 노동인권위원장 진화 스님을 비롯해 건대부속고 · 의정부 송양고 등 전국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속세의 인연 내려놓고, 수선안거로

5월 21일, 불기2560년 하안거 결제

불기2560년 하안거가 5월 21일 시작됐다. 2000여 눈푸른 납자들은 속세의 인연을 내려놓고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에 들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일을 앞둔 20일 전국 수행납자들의 분발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전국 선방에서는 동안거 결제 하루 전날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결제 당일인 21일 오전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에 정진에 동참한다.

한편, 안거는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조계종에서는 동절기 3개월과 하절기 3개월 동안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BORYEON 덕분입니다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5381-9355,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비구니스님들, 군장병 위문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5월 29일 기갑호국사서 군법회

대중과의 소통 · 봉사를 운영기조로 삼은 전국비구니회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5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1기갑여단 영외군법당인 기갑호국사에서 전국비구니회 사회부 1/4분기 군법회 및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비구니회 사업운영비와 경기북부지회장 능인 스님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군법회 후 장병들을 위한 점심공양이 이어진다. 아울러 비구니스님들은 기갑호국사 군법사인 지일 스님 안내에 따라 부대방문을 하고, 지역 군포교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집행부는 대사회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다양한 계층을 돕기 위해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군포교 지원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첫 행보로 지난해 12월 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봉사를 펼친 바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노인 · 군포교 외에도 앞으로 아동 · 청소년 등을 위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구 출가지도법사 운영 본격화

교육원 인선 마무리 단계… 5월 31일 첫 워크숍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조계종이 행자 중도 퇴사자 감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현재 교구별 '출가지도법사'의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교구본사 20여 곳에 인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본사들도 5월 안으로 출가지도법사 위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구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 스님 1인, 비구니 스님 1인으로 위촉 · 구성된다. 이들 스님들은 자신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 · 상담의 역할을 맡는다.

조계종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교구별 출가지도법사까지 위촉 · 운영하는 이유는 중도퇴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행자 생활 중 사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속하는 인원은 약 20%이다. 막상 출가를 마음먹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출가 생활과 차이를 느껴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출가지도법사 제도는 중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조계종의 자구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4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출가지도법사 제도에 공감하고 사업 진행에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예전 해인사에서는 '행자원장'이라는 소임이 별도로 있었다. 오전에만 사중 소임을 보고 오후에는 행자들에게 강의와 상담 등을 진행했다"면서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젊은 세대에 맞는 행자 교육 및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구 · 비구니 스님 1인씩 임명
교구본사 20곳 위촉 완료해
교구 사찰 행자들 관리 · 상담
중도 퇴사자 감소 역할 기대

이어 "출가지도법사 제도는 행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낯선 사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행자 중도 퇴사자들이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운영에 앞서 전체 지도법사를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원은 오는 5월 3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가지도법사 1차 워크숍을 연다. 위촉된 출가지도법사들이 모이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단 출가제도 및 사업 안내 △출가상담활동 방법 안내와 토의 △행자 퇴사방지 원인과 개선점 △교구 내 활동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류창무 교육원 연수팀장은 "일반적으로 행자 관리를 교무와 원주 스님이 맡는다. 시대가 변한 만큼 행자에 대한 전문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워크숍에서는 출가상담사 스님들도 참여해 상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 강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도전과 소통 위해 다양한 시각 가져라"

위덕대 '파워특강 비정상 회담' 개최 '눈길'
5월 18일 정진관서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위덕대(총장 홍욱헌)가 5월 18일 정진관(체육관)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설계코칭 '파워특강-새내기와 함께하는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오른쪽 사진〉



이번 행사는 인성기초교육원(배영호 원장)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공동체 교양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및 인생설계 등을 지원키 위해 마련했다. 초청특강 강사로는 요즘 JTBC에 방영하는 비정상회담에 다니엘 린데만과 알베르토 몬디를 특강 강사로 초청해 '선입견과 문화갈등 극복하기' '5가지 선택과 도전'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두 강사는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무슨일을 하든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호 인성기초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새내기 및 재학생들을 위해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한 특강으로 학생들 개인이 갖은 잠재력을 조금씩 찾아 갈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제2분기 불교특별강좌

6월 7일 개강, 8주간 수업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2016년도 제2분기 불교특별강좌를 6월 7일 개강해 8주간 진행한다.

강의는 2시간씩 진행되며 이태승 원장이 6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이해'를 직접 강의한다.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과 이은희 동방대학원대학 학부과정 강사가 월요일 오후 4시 '실담범자의 이해와 실습'을 강의한다. 또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원장이 수요일 오전10시 '불교위파사나 전통의 이해와 실천'을,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과 유경자 한국미협 불교미술분과위원장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불화의 이해와 실습'을 강의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21세기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지적 성숙과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 불교특별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얀마 재난, 불자들이 보듬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미얀마, 5월 12일 재난경감MOU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5월 12일,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미얀마 몰레미얀준 타운쉽(Myanmar Maylamyinegyun Township)과 MOU를 체결했다.

재난위험경감사업(Disaster Risk Reduction, 이하 'DRR사업')은 홍수,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마을 주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의미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5만불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DRR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초 3차례에 걸친 지역 조사를 마친 재단은 사업 지역을 몰레미얀준 타운쉽 내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바닷물이 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한 강가마을이지만, 제대로 된 재난 대응 및 대피방법이 갖춰지지 않아 매년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협약은 마을 재난관리위원회조직, 조기경보 게시판설치, 모의 대피훈련 등 타운쉽 내 19개 마을과 15개 학교에서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5월 12일,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미얀마 몰레미얀준 타운쉽(Myanmar Maylamyinegyun Township)과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몰레미얀준 타운쉽 대표 및 교육청 관계자, 마을 활동가와 교사, 협력단체인 Share Ayeyarwaddy(쉐어 이라와디)와 BEDAR(베다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타운쉽 대표 우마우마우 씨는 "2008년 나르기스 이후,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없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이 지역에서 DRR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앞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역 재난 취약성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마을주민과 학생, 교사,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을 DRR트레이닝과 인식개선을 위한 학교DRR트레이닝, 대피소 건축 및 긴급구호 물품 비치 등을 통한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재단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얀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지역에서 DRR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재난 대피용 보트 제작, 대피로 유지보수 및 신설, 정수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달라이라마' 방한위한 포럼 6월 2일 개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위원회'(공동대표 진옥, 금강 등)는 '달라이 라마, 평화와 공존을 말하다'란 주제로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달라이 라마, 티베트 고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프리 홉킨스 미국 버지니아대 명예교수, 이향순 조지아대 교수 등을 비롯해 국내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10여년 간 달라이 라마의 통역 · 저술 활동을 도운 홉킨스 교수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한 나의 작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삶과 사상을 전할 계획이다.

또 △이향순 교수의 '달라이 라마와 여성불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인권문제와 달라이 라마' △해방신학자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대표의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달라이 라마 방한 의미'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추진회는 지난 3월까지 총 11만 명의 방한 지지 서명을 받는 등 방한 성사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추진회는 7월 2일 서울 봉은사에서 발대식을 여는데 이어 8월 말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가하는 등 방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자량資糧입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이을 찾아뵙고 선지식이 머무시는 도량에서 기도 정진하는 제4차 「108선지식 구도순례」법회 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4차 선지식 구도 순례 법회

- ◆일 정 : **2016년 5월 28일(토)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민족종교협의회(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2층)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0길 14)
- ◆법 문 : 한양원 도정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갱정유도회 도정)
- ◆만남장소 :
  ❶ 5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 5호선 답십리역 1번출구 앞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동참 문의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108선지식 구도 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如一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재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1 ~ 3차 구도순례 선지식 친견과 철야 기도정진 법회는 오등선원(조실 대원 큰스님), 용문선원(선원장 의정 큰스님), 축서사(조실 무여 큰스님)에서 진행됨.
- **「정법빠리사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참된 불자로 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며, 신심을 고양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비라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격월로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철야 기도정진 진행.





정 법 빠 리 사 Dhamma Parisa

대중공사 '참종권 확대·공정선거' 결의

18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주제 공사 종료… '절반의 성과'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40여 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불자여론을 모은 대중공사가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의 2차 중앙대중공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중공사에 참여한 대중들은 '참종권 확대'와 '공정선거 시행'을 골자로 한 논의결과물을 내놓았다. 이 결과물에는 여론조사서 선호가 높았던 '직선제' 추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계종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제2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종단은 참종권이 확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부대중은 금품, 직위 등 일체 이익을 위해 크고 작은 모임을 만들지 않으며, 공정선거를 실현한다 △종단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총무원장 선거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교구대중공사를 개최한다고 결의했다.

이 같은 논의결과물을 도출해내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직선제를 선호하는 대중들 입장에 대해 "중앙종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지역대중공사 결과를 확대해선 안된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직선제 결의 채택에 반대하는 대중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선제' 추진으로 대중공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남은 대중들의 주장과 "여론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는 대중공사추진위의 입장이 충돌해 2분간 휴식시간이 진행되기도 했다.

논의 막판 '직선제' 명시 진통

도법 스님 "여론 전달에 충실"

즉석투표결과 확대해석 반발도

차기 대중공사 개최 제안

종합토론에서도 격론은 이어졌다. 일감 스님이 종합토론에서 선거 폐해 극복방안과 참종권 확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제안하자 '대중이 선택한 직선제를 보다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직선제 외에도 선거 폐해 극복방안과 참종권 확대 등 현행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러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열린 대중공사가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의 2차 중앙대중공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은 2차 중앙대중공사 입재식 모습.

이런 분위기 속에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직선제 61%라는 투표 결과를 대중공사 전체의견으로 모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유 운영위원장은 "726명의 입장이 전체 불자 그리고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공사에서 즉석투표에 기반해 특정제도로 입장을 모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도 "(직선제 도입 후)미흡하고 폐해도 있겠지만, 우리는 1만 5천 명이다. 종교인들이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겠나. 어떻게 승가답게 할지를 고민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 도출 과정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직선제'라는 표현이 명기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법 스님이 "지역 대중공사 결론에 직선제가 나와 있다. 일은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흥선 스님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획기적인 참종권의 확대"로 문구를 수정 제안하며 최종 채택됐다.

한편, 대중공사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6월 21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룬다.

노덕현 기자

대구BBS, 5월 26일 20주년 기념식

미래희망 선포…공영 기능 강화 등 비전 제시

BBS대구불교방송(이하 대구BBS)이 대구 및 경북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대구BBS는 5월 26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록영상 상영 등을 통해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희망'을 제시한다. 또한 제2의 도약을 위해 불교 기간방송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강화, 신사옥 건립, 중계소 확충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우선 1부 미래희망 선포식에 이어 2부는 BBS 라디오 프로그램 '월호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즌2'를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스님과 대구BBS의 진행자 효민스님이 사회를 맡고 최진희, 고한우, 야운, 타악퍼포먼스 공연단 '좋은 친구들'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한다.

대구BBS는 1996년 개국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중파 라디오 방송으로 전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포항과 안동에 중계소를 개설하면서 가청권을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실시한 '2006년도 라디오 청취형태 및 청취율' 조사에서 전국 종교방송 가운데 최고인 6.4%의 청취율을

오후 3시, 엑스코 오디토리움서

신사옥 건립, 중계소 확충 계획

기록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스님은 "대구불교방송이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불자들과 시도민들의 성원 덕분에 공영방송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법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 조사·추모사업 가능

피해자에 후손은 포함 안돼

연대회의 "아쉬움 남는 법안"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원폭 투하 71년만의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이미 1992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교통비 등),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생활수준, 건강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새 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 등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는 합천 평화의집을 설립·운영하는 등 원폭 피해자들이 지원과 권익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연대 단체인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구성에도 노력했다. 법안 통과 직후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원폭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어야하는 다양한 피해들이 동반된다"면서 "이번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피해자 정의에서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후손 등이 제외되었지만 실태조사는 피해자 자녀 등 후손을 포함하여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연대회의는 원폭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후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까지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개정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4월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자가 2천50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원폭피해자협회'의 자료를 보면 1945년 일본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은 총 7만명이었고 그 중 4만명은 사망했다. 살아남은 3만명 중에서 2만3천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만의 무늬와 그림 만들어 나가는 것이 人文"

대한불교진흥원 5월 화요열린강좌 개최

'이야기의 힘, 서양 고전과 만나다' 주제로

"고전을 읽는다는 건 잘 지어진 집을 하나씩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타인과 편안히 교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돼서 삶을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고전을 읽는 목적입니다. 다시말해 그들이 남긴 이야기와 글들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준비 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고전을 읽고 난 뒤에 생겨나는 힘입니다."

5월 17일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서는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이야기의 힘, 서양 고전과 만나다'를 주제로 '5월의 화요열린강좌'를 진행했다.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의 저자인 김헌 교수는 "고전이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 진 것이지만, 만들어진 그 순간에 곧바로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읽어주고,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며 보전하는 경우에만 고전은 '고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전의 생명력은 특정 시대의 문제들에 깃든 보편성을 통찰하는 힘에서 비롯되며, 역사의 매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힘에서 확인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문학의 '인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 나갔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싫어도 선택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인문에서의 문은 무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문은 자신의 인생에 무늬를 입히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겨놓는 행위를 통틀어 인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정보를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인문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흔적을 본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문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흔적,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흔적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책들은 그 흔적들의 총체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5월 17일 대한불교 진흥원 3층 법당서 진행된 김헌 교수의 화요열린강좌 모습.

김 교수의 설명은 또다시 이어졌다. "뜻깊은 무늬, 삶의 자취, 어떤 인문학적 정보를 받아 들여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적 행위입니다. 인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또한 여러분의 인문입니다. 표정, 몸짓, 말, 욕설 등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겨놓은 무늬인 것이죠. 이것들이 곧 여러분들의 인문, 바로 나 자신의 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무늬를 남겼는가, 혹시 실수하는 것은 없는가 등등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흔적 즉 인문을 남깁니다.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무늬로, 어떤 경우는 지저분한 낙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을 한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 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문을 남길 것인가.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양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달마도의 인연으로 소원성취한 사람들!



달마도의 대가 법용스님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소원성취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법용스님은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 달여 주는 마음으로 얼굴을 보고 본인에 맞는 달마도를 직접 그려 주신다고 합니다.

사업성취, 부동산매매, 취업, 결혼, 건강, 임용고시, 각종 시험합격, 승진, 금전운, 삼재소멸, 안전운전 등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항상 답답함에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불자님들은 오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달마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돌담을 쌓는 데는 큰 돌만 필요한게 아니고 작은 돌도 필요하듯이 집안에도 달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용스님의 영험한 행운의 달마도와 좋은 인연으로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장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379-1, 3층 달마보급원 (지하철 부산역 쇼핑센터 3번출구 앞)

문의전화 051-907-6444

홈페이지 www.bydalma.com

일 주 문



민추본 26차 월례강좌

법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스님은 5월 26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26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5월 30일 경내에서 '제12회 탄허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교육관 기와 상량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5월 9일 경내 신축 불교문화교육관(선원) 기와 상량식을 봉행했다.



생일방생법회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5월 24일 경내 청풍루에서 '생일방생법회'를 봉행한 뒤 가평 방하리서 방생을 했다.



제7회 경기 연꽃문화제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 스님은 5월 29일 오전 10시 청계사 일원에서 '제7회 경기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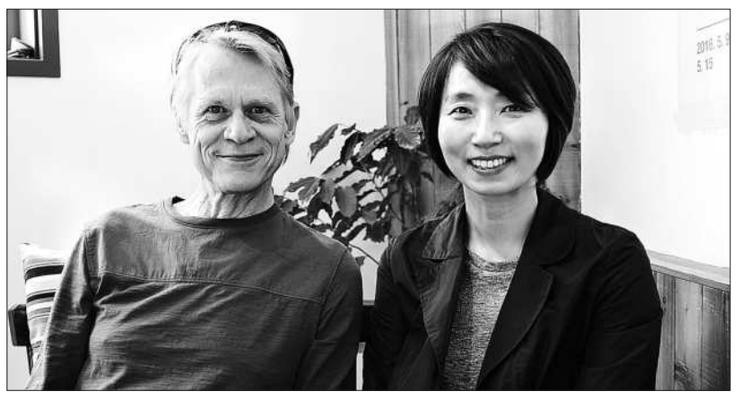
2016 KBUF 영부디스트 캠프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8월 4~7일 공주 마곡사 일대에서 '제7회 2016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佛法, 삶에서 마주할 때 빛나"

Interview

Street Zen 보급하는 존 뷰드리 · 권선아 부부



일상생활 문제에 禪 적용해
마음챙김 · 해결방법 직접 찾아
개개인 역량 키우는 데 초점

"불교 가르침은 경전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세대나 직업 등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됩니다."

2010년부터 스트리트 젠(Street Zen)을 보급해오고 있는 존 뷰드리(John Beaudry) · 권선아 씨 부부〈사진〉. 스트리트 젠은 불교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적용해 마음챙김 ·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수행이다. 이들 부부는 5월 24일 서울 필동에 위치한 인문의역학연구소 감이당 베어하우스에서 새 영어강좌 'Street Zen-거리에서 니르바나를 찾다'를 개강했다.

스트리트 젠은 우리나라 산중불교를 표현한 마운틴 젠(Mountain Zen)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를 강조한다. 즉 자칫 세속과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를 대중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존 뷰드리 씨는 "선(禪)의 요체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다만 현대적 접근법에 있어 방편을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스트리트 젠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 선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지에 집중한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속내를 털어놓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문제인식에서 출발하되 결코 회피하지 않고 문제와 직면한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도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권선아 씨는 "강좌는 적극적인 참여형식으로 진행된다. 위로를 위한 '힐링'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면서 "진지하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Zenkei Blanche Hartman의 저서 〈Seeds for a Boundless Life〉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7월 12일까지 8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경계 · 집착 · 습관 · 상실과 변화 · 받아들임 등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수업은 텍스트 읽고 문답하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토론, 해결책과 수행방법 탐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조계종국제불교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승가대에서 포교영어 · 불교영어 등의 강의를 진행 중이다.

윤호섭 기자

현성정사, 봉축 기념 경로잔치

5월 17일, 어르신 150여 명 참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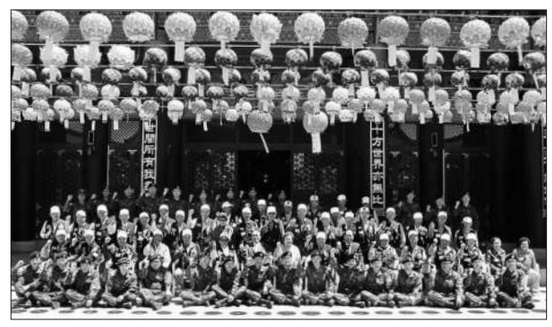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5월 17일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현성정사 측은 국수공양과 함께 어르신교통비 각 1만원을 제공했다.

노덕현 기자

6.25 참전유공자에 성금 전달

(재)신원불교재단, 65명에 1300만원



(재)신원불교재단(이사장 이용국)은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월군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6.25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 45명과 김삿갓면 저소득 이웃 20명에게 성금 총 1300만원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별세

5월 15일, 향년 94세… 불교식 장례 치러



호림박물관 설립자인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5월 1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개성 출신인 고인은 그동안 유화증권과 성보실업을 세웠고 문화재 1만5000여 점을 수집했다.

개성공립상업학교 재학 시절 개성박물관장을 지낸 고유섭 씨의 특강을 듣고 문화재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1982년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호림박물관을 건립했으며 특히 해외 유출 불교문화재 환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림박물관은 현재 40여 점의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최근 소장품 '고려 수월관음보살도'가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윤 이사장의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조문했다. (02)3010-2230.

노덕현 기자



"불교 이끌 미래 인재 돼 달라"

조계종 교육원, 소년 · 청년출가자 장학금 전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실에서 소년 및 청년출가자 중 2016년 동국대 불교대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2014년 이후 출가자부터 해당되며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입학금, 수업료)이 지급된다. 2016년도 1학기 혜택을 받는 학인스님들은 중앙승가대학 8명, 동국대 13명 등 총 21명이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이전과는 출가 분위기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인재인 만큼 열심히 공부해 종단과 한국불교에 필요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불자 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

중단편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영예'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불자 소설가 한강 씨(46, 사진)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내 작가가 해외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한 씨가 처음이다.

맨부커상 선정위원회는 5월 16일(현지 시간)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 자리에서 한 씨의 수상을 발표했다. 수상작은 한 씨가 2004년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영문판 제목 'The Vegetarian')이다. 이 책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 씨도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에 대항해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 등 소설 3편을 하나로 연결한 연작 소설집으로 주인공 여성과 그의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각각 쓰였다. 이중 '몽고반점'은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 씨의 부친은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소설가 한승원 씨다. 한 씨 역시 부친의 영향을 받아 1994년 등단 이래 '아기부처'와 같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써왔다.

신성민 기자

저소득 어르신 위한 '봄 김장'

중림福, 신한카드 함께… 80가구 후원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5월 13일 관내 1층 야외주차장에서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봄 김장하기'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관 및 신한카드 임직원 50여 명은 배추김치 200kg, 열무김치 150kg을 담가 저소득 가정 80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50여 명의 어르신에겐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시대정신 초월하되 공감대 형성 뒤따라야”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한국불교철학의 세계화’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17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 불세출의 위인들과 뛰어난 문화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불교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우리의 귀중한 것을 잊은 채 다른 나라의 것만 좇고 있진 않을까? 한국불교철학의 시원은 누구이고, 한국불교를 세계만방에 알리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까?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은 5월 16일 참불선원 인문학 대강좌에서 ‘한국불교철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前 총장은 “한국불교철학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한편 국수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시대정신을 초월하면서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병조 박사는… 1967년부터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뒤 영남대 대학원에서 철학석사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불교연구원 이사 · 동국대 인문학부 교수 · 한국철학회 이사 · 한국종교학회 이사 · 동국대 부총장 ·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 불교학연구회장 · 제4대 금강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왕초보 화엄경 박사 되다〉 〈정병조의 불교강좌〉 등 3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한국철학의 시원 ‘원광’

오늘은 ‘한국불교철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얘기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철학의 시원은 누구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철학의 시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신라 ·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가 중심이었던 역사를 감안할 때 불교와 유교가 핵심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신라 원광법사(555~638)를 한국철학의 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외우기 싫으셨을 텐데요. ‘세속오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당시 임금이 진흥왕이었습니다. 신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결국 수나라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흥왕은 수나라에서 10년간 유학하며 황제와 친분을 쌓은 원광법사를 찾아갔습니다. 진흥왕이 원광법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외교서신을 써주십시오.”

즉 강대국의 힘을 빌려 다른 나라를 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광법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치는 일은 출가사문의 도리가 아닙니다. 허나 제가 대왕의 땅에서 대왕의 초목으로 연명하고 있으니 어찌 그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전자는 원론적인 출가사문의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 없이 불교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도움을 줬습니다. 이 이율배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후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설한 것도 이런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산 · 추항이라는 두 화랑이 원광법사를 찾아가 계명을 청하고, 세속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군이충 · 사친이효 · 교우이신 · 임전무퇴는 다 이해했는데 살생유택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산목숨을 가려 죽여야 한다. 첫째는 택시(擇時). 시간을 가려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산란철에는 죽여선 안 된다. 한 달에 5번 있는 재일에도 안 된다. 둘째는 택물(擇物). 종류를 가려라.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건 인간을 해치기 때문이거나 잡아먹기 위해서일 때여야 한다. 어린 것이나 작은 것은 죽여도 먹을 수 없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기에 안 된다. 또한 가축도 죽여선 안 된다.”

재일을 피하라고 한 것은 불가에서 사천왕이 인간을 점검하는 날이기 때문이고, 가축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농경사회인 시대현실을 그만큼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광이야말로 한국철학의 시원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원광과 원효 · 의상, 그리고 자장

원광법사의 뒤를 이은 한국철학의 대가를 알아볼까요. 신라불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원광법사와 원효(617~686) · 의상(625~702) 사이에 간격이 조금 깁니다. 원광법사는 굉장히 장수하셨던 분인데 연대기를 따져봐도 원효 · 의상이 원광법사에게 법을 배웠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는 통도사 창건주인 자장율사(590~658)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른은 승통을 지낸 분입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자장은 엄청난 고승임에도 그 마지막 모습이 조금 속 좁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승통에서 물러나 문수보살의 계시로 절을 짓고, 보살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잘 것 없는 늙은이의 모습으로 찾아온 보살을 알아보지 못하자, 보살은 자장의 아상(我相)을 지적하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장이 기겁해 가사장삼을 수하고 쫓아갔지만 다시 만날 수 없었고, 그렇게 입적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승의 죽음치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불교학자들은 후세의 누군가에 의해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효와 의상에게 법을 가르칠만한 인물은 자장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효와 의상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한국불교계에 등장합니다. 원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대한 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사람의 저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가짓수로 25가지, 권수로는 200권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가 정말 금과옥조같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17관등제에서 육두품으로 태어난 출신 탓에 대중적이었습니다. 출가해서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싶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성(四姓, 카스트) 타파를 부르짖었듯이 인간의 고하가 태어날 때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게다가 원효는 당시 신라불교를 귀족불교라고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귀족불교는 귀족이 믿는 불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도 불구
‘우리의 것’ 경시하는 세태로
한국철학 가치 세계화 못 이뤄
“불교 제대로 알고 자긍심 갖자”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에게는 왕권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준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평불만을 해소해준 일등공신인 겁니다. 이게 지나치다보니 당시 불교가 운명론으로 흐릅니다.

원효는 이걸 보고 불교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불교, 즉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을 강조한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한마음에서 나왔고, 그 한마음 깨달으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익 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의상은 원효와 달리 진골 출신이었습니다. 원효와 중국 유학을 가다가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돌아갈 때 의상은 홀로 쓸쓸히 장안을 향해 걸었습니다. 의상은 중국 지상사를 찾아가 지엄 스님에게 화엄학을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합니다.

의상이 대단한 것은 문무왕에게 던진 말 때문입니다. 당시 문무왕은 삼국통일 후 민심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인사정책과 경주에 축성을 하며 민중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의상이 문무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덕이 높으시면 땅 위에 금을 그어놓고 넘지 말라 하시면 개미 한 마리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 없다면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루 저녁에 무너질 것입니다. 대왕은 덕을 쌓으시겠습니까, 성을 쌓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문무왕은 정신을 차려 축성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무왕은 음력 초하루가 되면 의상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위인들은 진심으로 존경해야 할 인물입니다.

자긍심 갖되 국수주의 버려야

우리는 한국의 위대한 전통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도, 가르쳐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는 건 에디슨이나 퀴리부인 같은 외국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강감찬이나 을지문덕 등과 같은 무인이 많았기에, 어린 마음에 군인이 제일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원효나 의상을 알 리 없었죠. ‘해골물 일화’ 외에는 말입니다. 심지어 국민학교 때 썼던 책받침에도 모나리자와 로뎅 같은 외국의 문화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어렸을 때 몰랐던 것이 속상합니다.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컸습니다. 우리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보고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미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철학의 뼈대를 이룬 위의 인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철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꼭 염두에 둬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상은 시대정신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시대정신의 공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조사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건 분명히 시대정신을 초월하는 신선한 것이었고, 그 시대 지식인들을 매료시키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게 세계 제일이다’라고 외치는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타파해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TV를 보면 마애불을 발견했는데 동양 최대 규모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마애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내용 등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상법사가 중국에 유학을 가 법문을 하고, 그걸 듣기 위해 대중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상법사가 어느 언어로 법문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큰스님들의 선법이나 그 경지가 세계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 영어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우리끼리만 1등인 것이죠. 그래도 요즘 젊은 스님들은 영어를 잘하는 분이 많아져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로 한국불교를 읽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건 불자들의 관심과 호응입니다. 매우 송구스럽지만 한국불교를 폄하하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 ‘치마불교’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보살님들이 절에 가서 절하고 등 달고, 그것으로 불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운동입니다. 네가 부처고, 네 마음 깨치면 그것이 성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성이고 여성이고, 노인이고 젊은이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활 속에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집착 없는 보살행으로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5월 19일 금강경 천일기도 1차 회향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여래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여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금강석 같은 반야의 지혜로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과 더불어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을 천일동안 독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보살도를 걷겠다는 불자들의 원력이 서울 길상사에 가득 찼다.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주지 덕일)는 5월 19일 경내 극락전에서 ‘금강경 천일기도 1차 회향식’을 봉행했다.

1차 회향식은 천일기도 입재 100일을 맞아 그간의 기도수행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량없는 원력으로 보살행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 2월 10일 입재한 ‘금강경 천일기도’에는 2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전을 독송하고 있다. 이날도 100여 명의 불자들은 주지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금강경〉을 독송하며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설한 ‘공 사상’을 가슴으로 느끼고, 집착 없는 보살행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경전 독송을 마친 뒤 “기도 입재하고 100일이 훌쩍 지났다. 스님들도 졸다가 마룻바닥을 때린 적도 있고 단어를 놓친 적도 있지만 어떻게 지혜를 갖추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처님 귀가 큰 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다. 이처럼 여러분도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회향해 진정한 금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법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천일을 넘어 평생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며 스스로 하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월 10일 입재 후 100일째
200여 불자들 일심으로 독송
“나의 공덕 주위에 회향하며
下心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주지 덕일)는 5월 19일 극락전에서 ‘금강경 1000일 기도 1차 회향식’을 봉행했다.

천일기도에 참여한 최영희(53) 불자는 “금강경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천일기도를 꼭 하고 싶었다. 더운 날씨에도 멀리서 찾아올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900일 동안에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옆에 있던 다른 불자는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며 “덕분에 줄곧 화를 잘 내던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져 가족 · 지인들과의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덕일 스님은 지난 1월 주지 취임 이후 길상사가 서울을 대표하는 기도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불자들의 기도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든 사내 대중스님이 동참하는 다라니 기도를 올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세계 종교인들과 ‘화합’ 다져

美 연화정사, 봉축법회서 타종교 공존 모색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다민족 · 다문화’라는 주제 아래 6개 불교국가 의식을 바탕으로 개원한 연화정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 종교인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통도사 워싱턴포교당 연화정사(주지 성원)는 5월 15일(현지시간) 경내에서 타종교인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 천주교 · 기독교 정교회 · 유대교 · 자이나교 · 이슬람교 · 조로아스터교 등 세계 8대 종교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1부 봉축법회는 25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은 법문에서 ‘빈자일등’ 일화를 소개한 뒤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올린 노파의 등불은 다음 생의 성불까지 보장받는 결과를 낳았다”며 “보시의 결과는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정성에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워싱턴포교당 연화정사는 5월 15일 봉축행사에서 2부행사로 학술대회를 마련,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부 봉축 학술대회는 100여 명의 워싱턴 지역 내 종교인들이 참가해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세계 8대 종교를 대표한 발제자들은 각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를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주제는 △붓다의 생애(조지워싱턴대 B.N 헤바 교수) △힌두교의 기초교리와 일상생활(힌두미국재단 수드하 시바람 박사) △자이나교(국제 디감베르 자이나기구 알케쉬 비빠니) △이슬람교는 어떻게 불교의 무집착을 보는가(세계 자원개발교육기구 타렉 엘가화리 종교학 소장) △콥틱 교회-이집트 기독교 정교회(롭비 사만타 로이 박사) △불교와 침례교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조지워싱턴대 사이파 존슨 교목) △조로아스터교의 기원과 교리(다르에메흐 조로아스터교 사원 케르시 쉬로프) △천주교의 4대 성인(돈 루니 신부) 등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前 통도사 주지)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종교화합은 당위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불자님들은 이 모임에 참석한 세계 8대 종교인들과 더불어 연화정사가 평화의 전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화정사는 “학술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기가 가득했다”며 “타종교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평화를 위해 각 종교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화정사는 홈페이지(www.lotustemple-usa.org/blog)를 통해 누구나 학술대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인드라망대학, ‘청년플랫폼’ 문 연다

1주일 · 1개월 참여과정 신설

‘생태문화공간’의 회복을 위해 지리산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운영 중인 인드라망대학에 청년들을 위한 단기과정이 마련됐다.

인드라망대학은 ‘지리산 산내 실상사 인드라망대학에서 쉬자! 꿈꾸자! 펼치자!’라는 슬로건 아래 1주일 · 1개월 과정의 청년플랫폼을 신설했다. 이 과정은 인드라망대학의 2년 정규과정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년플랫폼은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닌 2년간 진행되는 인드라망대학 과정에 언제든지 참여해 함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1주일 과정은 명상 · 산책 · 공동 울력 · 텃밭농사 · 인드라망 제1실현지 산내 돌아보기 · 저녁예불 및 스님 차담 등이 진행된다. 비용은 15만원. 1개월 과정은 1주일 과정 외에 주제별 세미나 ·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독서인문학 ·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탐방 등이 더해진다. 비용은 50만원.

청년플랫폼 참가자들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화소통 훈련 워크숍에 50%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010-4360-7503

윤호섭 기자

노숙인 실제 생활 만화로 담다

종민협, 5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카카오페이지 연재

노숙인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만화로 펼쳐낸 웹툰 ‘길리언’이 연재를 시작했다.

종교계노숙인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은 실제 노숙생활을 담은 웹툰 ‘길리언’ 연재를 시작했다. ‘길리언’은 김태현 작가가 5년 동안 실제 노숙생활을 하며 겪은 내용을 풀어낸 것으로, 신웅 만화가가 그림을 맡았다. 5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고 있으며, 총 22화 웹툰 연재가 종료되면 책으로 제작 · 배포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은 “이 웹툰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부정 편견을 없애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며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웹툰 ‘길리언’ 내용 중 일부.

한편 종민협은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한 협력단체다.

박아름 기자

성북장애인福, 봉축 맞아 무료 공양

5월 11~12일 지역민 위해 자장면 등 제공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5월 11일과 12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양을 실시했다.

11일엔 관내 불자모임인 ‘작은나눔봉사단’ 후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장면을 무료 제공했으며, 12일엔 성북여성의용소방대와 함께 저소득 지역민 300여 명을 위해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관장 선재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월 초파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언제든 지역사회와 함께할 나눔 행사가 준비돼 있으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5월 11일과 12일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무료 공양 나눔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소원을 이루는 기도

(진언 주력 명상 및 광명사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업보(변고)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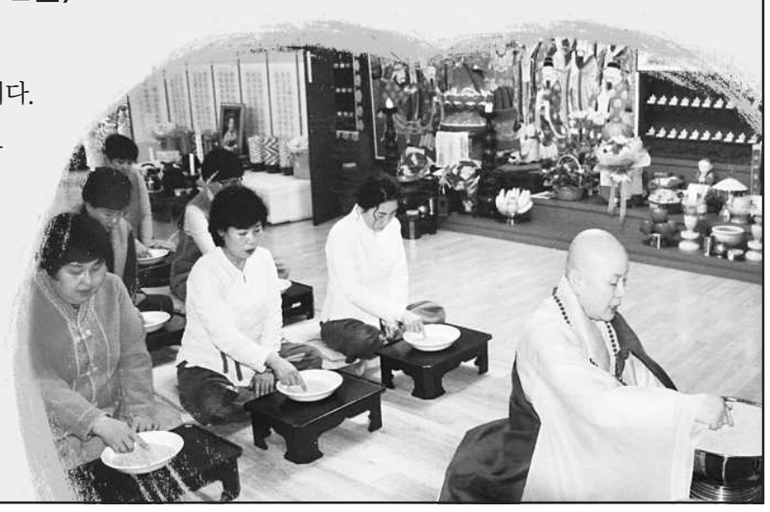
자성을 밝히는 “지광불”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까훔 진언 명상 기도”를 통해서 액운을 피하고, 타고난 나쁜 운명을 극복하는 수련법으로 자신의 삶에 행복과 건강,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지도스님 인해, 덕후 덕비 합장

■ 기도일정 : **매주 주말 (1박 2일)**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옴 · 까 · 훔’ 3자 진언호흡함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뚫립니다.

■ 문 의 : **대광명선원**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5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6월 1일(수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공부 늦어지는 까닭은 미루는 마음 때문”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무위한도인(無爲閑道人)이여
재처무종적(在處無 跡)이로다
경행성색리(經行聲色裏)나
성색외위의(聲色外威儀)로다.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여.
어디있으나 그 자취가 없도다.
행이나 소리나 빛깔속에 있어도,
소리나 빛깔을 벗어난 행위로다.

황벽(黃檗)스님은 법명은 희운(希運)이고 백장회해(百丈懷海)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황벽스님이 어느날 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 술찌게미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행각해서야 어느곳에 깨달을 날이 있겠는가? 대당국(大唐國)안에는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때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여러 곳의 선원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황벽스님께서,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스승이 없을 뿐이다.”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만송노인(萬松老人)은 말했다.

어느날 황벽스님께서

“그대들 모두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고 몽둥이로 내쫓았다.

대중이 흩어지지 않으니, 선사께서 다시 이르되

“그대들은 모두 술찌게미나 먹는 사람들이다.” 하였으니 당나라때에는 사람을 꾸짖을 때 술찌게미를 먹는 놈(噇酒糟漢) 이라고 했다.

제(齊)의 환공(桓公)이 당(堂)위에서 글을 읽는데 윤편(輪扁)이 당(堂) 아래서 수레바퀴를 깍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堂)위에 올라와 물었다.

“감히 묻노니 공(公)께서 읽으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공이 답하되,

“성현들의 전적이라 하였다.”

윤편이 다시 묻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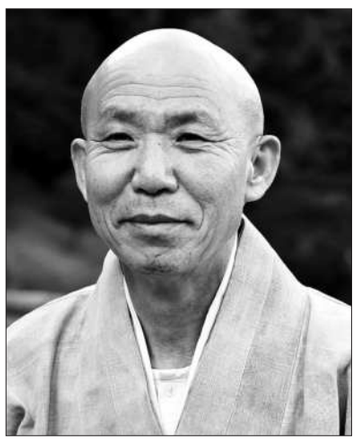
“성인이 어디 계십니까?”하니

공이 답하되

“이미 떠나셨느니라.” 하였다.

“그렇다면 공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게미 입니다.”

공이 이르되



“과인이 글을 읽는데 수레바퀴나 깍는 주제에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해명할 말이 있으면 옳거니와 해명할 수 없으면 죽음을 각오하라.” 하니

윤편이 이르되

“신이 신의 일로써 관찰하건대, 수레를 깍는데 느슨하면 헐거워서 견고하지 못하고 꽉조이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슨히 하지도 않고 꽉조이지 않으려면 손에서 얻어지고 마음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말할 수 없으나 묘함은(이치는) 그 사이 존재합니다.

신도 신의 자식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 역시 신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나이 칠십이 되도록 수레를 깍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을 터인즉, 공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게미입니다.” 하였다.

사자(獅子)는 교인(咬人)하고,
한로(漢盧)는 축괴(逐塊)니라.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는구나.

〈중략〉

황벽스님께서 한때 홍주(洪州)땅의 개원사(開元寺)에 머물고 계셨다.

상공 배휴거사가 어느날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그 절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들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절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휴가

“이곳에 선승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분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대사를 청하여 뵙고, 주지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대사께 되물었다.

그러자 대사가 불렀다.

“배휴!”

“예!”

“어디에 있는고?”

상공은 이 말 끝에 깨치고 대사를 다시 청하여 개당설법하시게 하였다.

명월청풍공일가(明月淸風共一家)로다.
명월과 청풍은 같은 한 집 이로구나.

동안거 해제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병신년 하안거 결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공부가 늦어지는 까닭은 시간 여유가 있거니 하고 항상 미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나면 오늘은 죽지않고 살았으니, 살아있는 오늘에 공부를 마쳐야지 내일 어찌 믿으랴 생각하고 애써 정진해야 합니다.

일월사전광(日月似電光)이니,
광음량가석(光陰良可惜)이로다.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하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이리오.

세월이 번개처럼 빠르니,
시간을 어찌 아끼지 않을손가.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리오.

“물처럼 무념무상으로 화두참구”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우주만물의 궁극적 본질인 진리의 여실한 그대로의 참모습(眞如實常)을 사유하는 불교는 과학을 뛰어넘고, 철학적 사유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며,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깨달음을 증득하도록 출세간(出世間)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법은 세간(世間)의 이치보다 수승하며, 깊고 오묘한 의리(義理)로서 유식(唯識)에서는 승의(勝義)라 하고, 우주본질을 함유하고 있는 승의(諸法勝義)를 곧 진여(眞如)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眞)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진실(眞實)되어 허망(虛妄)이 아니고, 여(如)는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여상(如常)하기에 항상 모든 법의 본성인 진실한 마음이며, 깨달음의 본체(眞實如常)이자 수행자가 추구해나가는 궁극입니다. 수심결에도 진실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으며(眞心如空 不斷不變), 그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一物長靈)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진실의 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의 감각과 인지증가(認知增加)의 강화현상인 가상현실의 한 형식으로 인간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강현실까지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상은 수행도중에 신체감각의 상실과 더불어 존재하는 공간지각도 함께 사라진 상태를 맛보게 되는 현상과 유사한데, 이 때 모든 경계가 사라져 우주 대자연이 나와 한 몸이 된 초월적 의식상태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자에게 알음알이와 망상에 억매이지 말고, 세계와 자아가 분리되지 않은 가상이 현실인간의 존재와 사물의 본질.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과 인지의 문제 등 철학적으로는 지금여기, 실재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새로운 화두출현(話頭出現)의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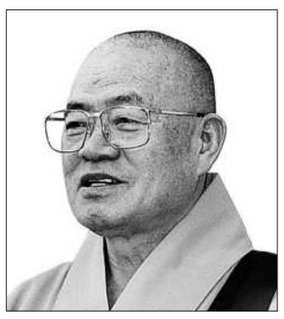
끝으로 조계산승(曹溪山僧)의 바람은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알 수 없는 의문을 타파하기 위하여, 부디 분별 · 망상심을 다 놓아버리고, 말없이 흐르는 물처럼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화두참구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 참나 찾기를 성취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萬法皆空明佛性(만법개공명불성)
一塵不染證禪心(일진불염증선심)
身在上方諸品靜(신재상방제품정)
心持半偈萬緣空(심지반게만연공)

만법이 모두 공하니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고, 한 티끌도 물들지 않으니 선의 마음을 증득하네. 몸을 높은 경지에 두니 모든 사물 고요해지고, 마음으로 게송지니니 만 가지 인연이 쉬네.

“본참공안 간절히 참구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出格丈夫意衝天(출격장부의충천)하니 打破鐵輪成太平(타파철륜성태평)이로다.

萬類含識自在遊(만유함식자재유)요 娑婆變爲極樂國(사파변위극락국)이로다.

격식에 뛰어난 대장부가 뜻이 하늘에 사무치니 철륜을 타파하고 태평한 세상을 이루었도다.

만류의 함식중생이 자유자재함을 얻었고 사바세계가 변하여 극락세계가 되었도다.

修行者(수행자)가 一念頓悟(일념돈오)하면 捉敗佛祖(착패불조)하고 自在遊戱(자재유희)어니 何用多時 (하용다시마)아?

其或未然(기혹미연)인댄 於本 公案上(어본참공안상)에 功功 矸祥(근근참상)하야 前後際斷(전후제단)하고 疑團獨露(의단독로)하야 二四時中(이사시중)에 省省不昧(성성불매)하면 漸入佳境(점입가경)이니 到此時節(도치시절)하야 生死二字(생사이자)를 付着額上(부착액상)하고 一刀兩斷(일도양단)하야 心如吹毛利劍(심여취모이검)하야 廢寢忘餐(폐침망찬)하고 於公案上(어공안상)에 密密做去(밀밀주거)하되 如是七日乃至二七日(여시칠일내지이칠일), 三七日(삼칠일)하면 忽然踏着本地風光(홀연답착본지풍광)하야 卽了生死一大事(즉요생사일대사)하리니 功功 矸祥(근근참상)이어다.

수행자가 한 생각 몰록 깨달으면 부처님과 조사와 손길잡고 자재로이 유희하거니 어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그 혹 그러하지 못할진댄 저 본참공안에 간절히 간절히 참구해서 전후제가 끊어지고 의심이 독로해서 24시간 가운데 성성하여 매하지 아니하면 점점 아름다운 경계에 들어가리니 이러한 시절에 이르러서 생사 두 글자를 이마위에 붙이고 한 칼로 두 끝을 내어서 마음을 취모리검과 같이 해서 잠자고 밥먹는 것도 잊고 저 화두공안에 세밀하게 공부를 지어가되 1칠일내지 2칠일, 3칠일을 이와 같이 하면 홀연히 본지풍광을 답착해서 곧 생사일대사를 요달하리니 간절히 참구할지어다.

一拳打倒須彌山(일권타도수미산)하니 縱橫行步無 碍(종횡행보무괘애)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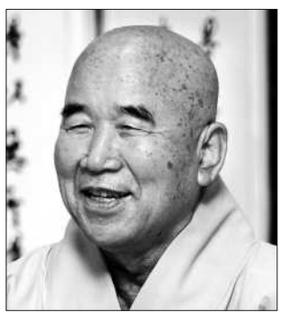
奉鉢淸香滿盛飯(봉발청향만성반)을 供養十方佛菩薩(공양십방불보살)이로다.

한주먹으로 수미산을 쳐부수니 종횡으로 걸음함에 걸림이 없도다.

한바루에 가득한 청향반을 시방의 불보살님께 공양하도다.

“법계안거 되도록 철저히 반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一切無非佛事(일체무비불사)어늘
何須攝念坐禪(하수섭념좌선)이리오
妄想本來空寂(망상본래공적)하니
不用斷除攀緣(불용단제반연)이어다.

일체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만 하려하는가? 망상이 본래 공하여 적적한 것이니 인연들을 애써 끊으려하지 말지어다.

수행에 있어서 제일 우선은 직관의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의 빠름이 폭포수 같다고 했는데 헛된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청안의 눈을 가진 이들이 일대사를 결판 짓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결판내고 말겠다는 용맹심과 결단을 지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이 공부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불사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세상사 모든 일이 불법 아닌 게 없고 짓는 일마다 불사 아닌 게 없습니다. 온갖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공경 예배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참 불사는 형식의 틀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중생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부의 진정한 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불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꿰뚫어 보고 이치에 밝아야 합니다.

수월도량에 앉아서 공화만행을 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 빛 같은 도량과 허공 꽃 같이 집착 없는 만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수행하기 좋은 특별한 장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산속에서 부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계를 대함에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으려 하는 번뇌 망상도 그 근본이 본래 공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번뇌가 보리요 무명 그대로가 실다운 성품이라고 역대조사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에만 떨어져 있고 반조가 없으면 동쪽으로 가려하지만 서쪽을 향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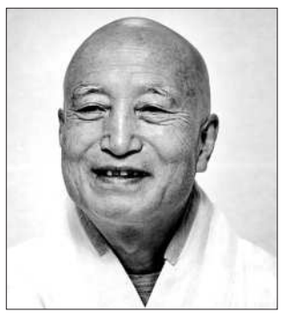
철저한 반조가 이 집안 공부의 시작인 만큼 이번 안거는 법계안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망상의 유혹에도 자기본심이 부동하고 매 순간마다 정념에 안주하는 안거를 말합니다. 높고 높은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깊고 깊은 바다 밑을 걸어가는 것처럼 세밀하게 사무치는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手把 秧 滿田(수파청앙삽만전)이여
低頭便見水中天(저두변견수중천)이라
心中 爭方為道(심중청정방위도)니
退步原來是向前(퇴보원래시향전)이로다.

벼 모종을 손에 움켜쥐고 모내기를 하노라면 고개를 숙일 적마다 물속에 하늘이 보이네. 마음이 청정한 것을 도라 하나니 뒷걸음질 치지만 앞으로 나가는 이치 같다 할까?

“一心이 곧 萬像이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滿空禪師(만공선사)께서 世界一花(세계일화)를 주창하셨다.

한떨기 신령스런 이 꽃은 萬古(만고)에 찬란한 心性(심성)의 꽃이다.

이 꽃은 계절에 關係(관계)없이 피고 時間(시간)과 空間(공간)에 관계없이 핀다.

그 모양은 古今(고금)에 화려하고 그 향기는 안으로 온갖 미묘함을 머금고 밖으로 森羅萬像(삼라만상)에 훈훈하다.

이 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主人(주인)이 되고 모든 法(법)의 王(왕)이다.

이것은 넓고 넓어서 그와 견줄 것이 없고 높고 높아서 그에 짝할 것이 없다. 참으로 미묘하고 신비하여 天地(천지)보다 먼저 생겼으되,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天地(천지)보다 오래 있으되 그 끝남을 알 수 없으니 空(공)이라 할 수도 없고 有(유)라 할 수도 없는 이것은 마음의 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만고의 보배를 다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六道(육도)에 윤회하면서 가지가지 苦痛(고통)받는 것을 탄식하시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저 苦海 中(고해 중)에 無差大悲(무차대비) 龍船(용선)을 타시고 無爲正法(무위정법)을 說(설)하시니 묘한 소리가 天地(천지)를 진동하고 眞理(진리)의 물결이 하늘에 가득하여 苦海(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涅槃妙樂(열반묘락)으로 向(향)하게 하셨다.

滿空(만공)선사께서도 이 산중에서 眞理(진리)의 꽃을 활짝 피워 學人(학인)들을 提接(제접)하시니 때로는 金剛(금강)과 같은 喝(갈)로 人我(인아)의 조잡한 수풀을 베어버리고, 때로는 지혜의 棒(봉)으로 첩첩한 어둠을 비춰 미혹의 안개를 걷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斷見(단견)과 常見(상견)의 구렁에서 나오게 하여 진리의 계단에 오르게 하고 萬行(만행)의 꽃을 피워서 法性(법성)에 契合(계합)하게 하였다.

一心(일심)이 곧 萬像(만상)이요 만상이 곧 一心(일심)인 것을,

이것은 圓滿(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며 가고 옴도 없어서 옛과 지금이 없으니 千江(천강)에 비친 달이요 구름 한 점 없는 萬里(만리)의 푸른 하늘이여라.

밝고 밝은 빛이 대천세계에 비치니
여섯 窓門(창문)은 환하고 평온하여라
모든 것이 늘고 줆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거니
네 벽에 맑은 바람은 겁 밖에 오묘하구나

현대문명 안에서 불교 역할은?

동방문화대학원대, 6월 3일 첫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현대문명' 주제로

현대 문명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명한 세미나가 열린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6월 3일 학내 호운각에서 '불교 현대문명'을 주제로 첫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세미나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수호 덕성여대 연구원의 '융합사회의 도래와 불교의 대응전략',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자본주의와 한국 불교의 만남, 그 화해와 갈등의 전망에 대해', 신승철 블레스병원장의 '뇌과학과 불교'가 각각 발표된다.

2부는 해외 활동 학자들이 참여한다. 코스트 캐롤라이나대 성원 스님은 'Groupings of Korean Buddhist movies'를 통해 한국불교 영화를 분석한다.

데니스 미국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일본에 불교를 전한 쇼토쿠 태자가 위키피디아, 블로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린 코스트 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일본 만화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작품에서 붓다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불교의 이론을 현대사회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미디어 시대라고 지칭되는 현대 한국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대중들과 융합할 수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문화재 된다

부산시 지정문화재 지정예고

부산 장안사(주지 정오)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長安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가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부산시는 5월 18일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송당 대우(松堂大愚)가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을 근거로 예수재의 의식을 편찬한 것이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생전에 사후의 극락왕생을 빌고 닦는 내용을 담은 불교 의식집이다. 총 3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를 먼저 말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부산시는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조선중기의 예수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면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으며 전체 18종의 판본들 중 초기의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감동적 법회위한 설법론

불광연구원, 6월 4일 학술연찬회

감동적인 법회를 위한 설법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을 주제로 제28차 봉축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가 '부처님의 설법 원리와 방법-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남수영 동국대 외래교수가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청중의 몰입을 위한 설법방법론', 민영욱 한국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이 '설법자와 청법자의 특성에 따른 설법 방법 모색'을 발표한다. 이어 박상건 한국잡지학회장(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과 이은자 숙명여대 리더십교양교육원 조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개정 종교 공교육, 학생 자율성 높여야"

종교교육학회, '2015 개정 종교교육과정' 주제 학술대회

지난해 9월 고시된 새로운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의 내용을 짚고 종교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최준규)는 5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708호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종교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과제를 분석하고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각 종교교육 현황을 살폈다.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방향'에서 새로운 종교교육 체계를 분석했다.

고 연구원은 새로운 종교교육의 특징을 '성찰'에 있다고 봤다. 교사가 교육을 통해 '심어주는 역량'이 아닌 학생 스스로 성찰을 통해 '스스로 만드는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자주 △창의 △교양 △더불어 사는 등 4가지 인간상과 6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동안 역량이라는 표현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종교학 교육과정을 포함한 개별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별도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종교교육에서는 학생을 특정 방향을 가진 신앙인, 도덕인, 시민으로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배재된다"면서 "성찰적 종교교육에서는 학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연구원은 새로운 종교학 교육과정이 종교 간, 다른 영역의 소통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여러 실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종교 교사들의 연구모임, 연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정 교육과정 창의성 중시
특정종교 교리 학습은 지양
듀이의 종교관 현실적 대안
'내적 경험' 중시 수행 바탕
불교교육은 미래 교육 가치

김귀성 원광대 교수는 발표 논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학 교과 교육의 쟁점과 과제'을 통해 종교학 교육의 과제를 살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종교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 △관련 법규 및 교과서 개발 · 교원 양성 △교육과정 체제의 연구 ·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종교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 외에도 관련 학계, 종교계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재 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 · 재정적인 지원체제의 구축, 교과서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연등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 학생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송곤(前 동국대 강사)씨는 불교교육의 영향과 과제를 분석했다. 이 씨는 '듀이의 종교관 측면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체계로 구성돼 있으나 개정 종교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을 보면 타일러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자의 내적 성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는 미국 교육학자 듀이의 종교관을 종교교육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봤다. 한 예로 듀이는 비이분법의 토대 위에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고 삶의 모든 경험이 종교라고 바라보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이 씨는 "듀이의 견해는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삶과 분리되지 않는 종교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가능하다"면서 "종교를 성(聖)의 영역이 아닌 삶의 경험선상에서 보게 함으로서 종교교과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이분법적 사상의 바탕 위에서 창조적인 '내적 경험'인 수행을 통해 불교적 인격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교육"이라면서 "불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21세기 미래교육의 가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외 불교학 명사들 대거 방한 강의

세계의 유명 불교학자들이 대거 방한해 강연을 진행한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교학 협동강의를 진행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학과장 김종욱)는 5월 20일부터 3주간 베이징대, 도쿄대와 함께 '동아시아 사상의 다양성과 불교'를 주제로 불교학 협동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동강의는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동국대 · 베이징대 · 도쿄대에서 총 5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강의는 20일 리스롱(李四龍) 베이징대 철학종교학과 교수의 '오중현의(五重玄義)와 동아시아 불교학의 특징'으로 시작됐으며, 27일에는 왕쏭(王頌)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 화엄학 연구의 역사와 현황,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월 3일에는 미노와 켄료 도쿄대 인도철학불교학과 교수가 아스카(飛鳥)와 나라(奈良)시대 불교에 대해 강의한다.

김종욱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장은 "지난 4월 베이징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회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의 연장선에 있는 학술행사로 볼 수 있다"며 "한국불교학의 수준을 높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불교학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베이징대 · 도쿄대 교수 초청
불교학 협동강의 3주간 진행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유명 불교 중관학자 초청해
24~25일 양일 간 강연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해외 저명학자들을 대거 초청해 '중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승불교 중관사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금강대 사이버 강의실 및 2층 대회실에서 열린다.

초청 학자로는 템플대학교의 덕월스 더글라스(Duckworth Douglas) 교수, 네브라스카-링컨 대학교의 야로슬라브 코마로프스키(Yaroslav Komarovski) 교수, 윌리엄 앤 매리 대학의 케빈 보스(Kevin Vose) 교수, 리처드 스톡턴 대학교의 이종복 교수, 다이쇼대학교의 나가시마 준도 교수가 참여한다.

덕월스 더글라스 교수는 '티베트의 중관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야로슬라브 코마로프스 교수는 싸꺄파 학승들의 중관학적 사유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케빈 보스 교수는 초기 티베트 불교의 중관학파를 조명하며, 이종복 교수는 티베트의 겔룩학파에서 설명하고 있는 깨달음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강연을 통해 연구소의 아젠다인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 중 대승불교의 핵심인 중관사상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공개강의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1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꼭 필요함)
2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3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4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십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개강】 5월 29일 일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부산 개강】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부산역 광장 맞은편 엔제리너스 4층)

백초율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율력학당

“수행으로 삶의 변화, 그리고 행복 찾다”

조계종부산연합, 5월 19일 재가안거 하안거 입재

부산 재가불자 2000여 명 동참
2014년 후 참여사찰 18개로 증가
원오사, 주지 스님 지도 ‘효과 UP’
어린이 · 청소년 수행도 활발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재가안거 입재식을 5월 19일 홍법사에서 봉행했다. 재가안거에 참가한 불자 1600명은 하안거 5월 21일~8월 17일, 총 90일 동안 안거 수행에 집중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5월 19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재가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재가안거에 참가한 불자 2,000여 명은 하안거 5월 21일~8월 17일, 총 90일 동안 일제히 수행에 들어간다.

지난 2014년 동안거를 시작으로 ‘재가안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불자들은 “바른 수행과 힘이 되는 도반, 그리고 스님들의 꼼꼼한 지도가 매우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까지 18개 사찰이 재가안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원도 최대 2,0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부산 포교사단, 동명대학 세계선센터 등에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참여도 활발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재가안거 수행에 1회부터 빠짐없이 동참 중인 원오사(주지 정관)는 올해도 어김없이 50여명의 재가자들이 참여한다. 원오사 신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관음예찬 기도를 올리며,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주지 정관 스님은 안거기간동안 참가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점검해주며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가자들에게 질의를 받고 직접 답변해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상담을 통해 올바른 수행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재가자들이 가정에서도 근기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원문 쓰기, 참선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밖에도 원오사는 이번 하안거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공부’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원오사가 후원하는 ‘꿈나무 공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

한명선(53) 씨는 “관음기도정진을 하면 분별심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내가 궁극의 행복을 느끼니, 주변인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다”면서 “절에 못가는 경우에도 스님께 문자를 보내 수행점검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더욱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관 스님은 “안거 한철을 보낼 때 마다 성장하는 불자들을 본다. 수행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바꿔나가는 모습이 더할 것 없이 기쁘다”며 “나아가 봉사를 통한 나눔행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을 권유하는 불자들이 더욱 많아져 흐뭇하다”고 전했다.

사찰 뿐 아니라 재가 단체들의 수행 동참도 줄을 잇고 있다.

작년 동안거에 이어 이번 하안거에도 참여하는 부산 포교사단(단장 이승표)이 대표적이다. 부산포교사단은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7시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 지도하에 참선 수행을 한다. 또한 〈수행록〉을 통한 수행 점검도 가진다.

이승표 단장은 “안거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며 “포교사단에는 직장인들이 많아 사찰의 정기 수행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거기간 동안 수행을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재가안거에는 어린이들의 동참도 활발하다. 지난해 동안거 수행에서도 사불 · 사경 등에 참여한 홍법사 동림 어린이회는 이번 하안거에서 ‘마음거울 108배’를 실시한다. ‘마음거울 108배’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제작한 108배 워크북으로, 어린이들은 이에 따라 수행하며, 선지식 친견 및 방생 법회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입재식은 5월 29일 오후 1시 홍법사 대광명전서 진행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것은 재가자들의 수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 및 어린이 포교까지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수행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제2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 개최

6월 6일 경내 잔디마당서… ‘호국 숨결대회’도 함께


홍법사는 6월 6일 오전 10시 경내 잔디마당에서 현충일 맞이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해 천도재 및 행사 진행 장면.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오전 10시 경내 잔디마당에서 현충일 기념 ‘제2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한다. 바라밀제는 호국 영령 천도재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경과보고, 홍법대상 시상,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홍법사는 “허공마지(虛空摩旨)의 ‘허공’은 일체 모든 가르침(法)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마지’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뜻한다. 따라서 허공마지는 유주 무주 모든 존재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라며 “호국 영령 및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유주무주 고혼의 넋을 위로하는 바라밀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법사는 이날 오후 12시 ‘제6회 호국의 숨결대회’도 개최한다. 홍법사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 인식과 나라사랑을 알리기 위해 매년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분야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총 3분야로,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및 일반부 까지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하성미 기자

‘제4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 모집

(재)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제4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시상 부분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 상 각 1명이다. 각 시상에는 시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각 후보 기준은 해당분야 수공 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하며, 동종의 공적으로 정부 관련 포상을 받은 경우는 5년 이상 경과돼야 신청 가능하다. 국적 · 연령 · 성별 · 직업 · 학력 · 종교에 구분이 없으며, 승려인 경우는 조계종 소속이여야 한다. 추천권자는 소속 기관 대표자와 조계종 제적사찰 주지 또는 기관장이 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 까지. 최종 수상자 발표는 12월 1일 통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시상은 12월 9일 월하 스님 추모다례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52)246-8061

하성미 기자

춤과 노래로 펼쳐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제2회 꽃보다 10대, 청소년 울산 팝 댄스 경연대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원장 능행)은 5월 14일 대학원 내 야외무대서 ‘제2회 꽃보다 10대,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이하 꽃보다 10대 댄스콘테스트)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꽃보다 10대 댄스 콘테스트’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지역사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과열된 경쟁사회 속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화합을 일깨우며, 공동체 정신 및 협동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활동금을 지원하며 건전한 취미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밴드 2팀, 댄스 8팀 등 10팀이 경연을 벌여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울산여자상업고 ‘M.Y.B’ △우수상(상금 100만원) 무거중 ‘RG’ △장려상(상금 50만원) 약사고 ‘Liberty’ △비전상(상금 30만원)현대청운고 외 6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여자상업고의 박기숙 지도교사에게 울산광역시교육감상이 수여됐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원장 능행)은 ‘제2회 꽃보다 10대,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본선 경연 대회를 5월 14일 대학원 내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원장 능행 스님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이곳서 맘껏 펼치길 바라며 꿈을 이루는데 좋은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또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은 “자신의 끼를 발산하려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듣지 못해도 불제자 되길 서원합니다”

부산 여래사, 5월 14일 농아인 수계법회 봉행


부산 여래사는 5월 14일 봉축을 맞아 ‘농아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농아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계를 받아 제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부산 여래사(주지 도원)는 5월 14일 봉축을 맞아 ‘농아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농아인 불자 40여명과 일반인 6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봉축 법요식에서 불자들은 관욕식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2부 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으며 법명을 수지했다.

주지 도원 스님의 법문 통역은 조경미 불자 수화 통역인(부산농아인협회 수영지부)이 맡았다.

도원 스님은 ‘화엄경십신’ 중 ‘신심’에 대해 “이 세상 모든 인연에 대하여 믿음이 없으면 안된다”며 “믿음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해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5.18민주영령 추모 영산대재

광주불교영산회, 5.18민주묘역서



5.18민주영령들의 천도를 위한 불교 행사가 열렸다.

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5월 18일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영산대재를 30여 명의 회원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 5.18민주화운동은 올해 36주년째다.

영산대재는 군인들에 의해 명(命)을 달리한 수천여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10여 년 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의식이어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식당작법, 중단권공, 시식, 봉송의식 순으로 정성스런 의식이 진행됐다.

회장 월인 스님은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큰 논란을 겪고 있는 5.18 추모제가 아쉽다. 승려로서 5.18민주영령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천도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정의 달 맞아 경로위안잔치 열려

연꽃마을 자비원, 지역민에 3600만원 상당 후원



고창노인복지관이 5월 19일 사창경로당 광장에서 개최한 '제1회 찾아가는 경로당 화합 한마당 잔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과 고창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연꽃마을 자비원(대표 정인)은 5월 17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전주지역 독거어르신과 암 환자 100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정인 스님은 참석자 전원에게 르윈호텔 2층 콩오름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고, 아리랑 예술단원들은 재능기부로 흥겨운 위문공연을 펼쳤다. 수한방병원은 어르신들의 무료 건강상담을 한 뒤 건강용품을 전달했다.

정인 스님은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지역 독거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열어오고 있다"며 "때마침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경로잔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인 스님은 전주시청 추천을 받은 독거어르신들에게 라면, 소염진통제, 건강식품, 생활필수품 등 3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한편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스님)은 5월 19일 부안면 사창경로당 광장에서 '제1회 찾아가는 경로당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템플스테이 문화관 상량

오는 8월 완공 목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5월 19일 자경당(템플스테이 문화관)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자경당은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으로 전체 152㎡에 지상 1층의 다포양식 전통한옥 구조이며, 총 2동(40평형)으로 설립된다. 15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자경당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템플스테이 전용공간 및 시민선방, 문화공간 등 시민들의 수행, 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연광 스님은 "150만 광주시민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인 무등산과 증심사가 그동안 편의시설이 없어 늘 미안했다. 자경당이 향후 신도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행과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깊은 참회로 건실한 삶 만들어 나가길"

호남불교계, 소년원 · 교도소 찾아 문화공연

부처님오신날 참뜻 되새겨
재소자에게 격려의 말 전해
법문 · 다채로운 공연으로
원만한 수용생활 기원도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5월 14일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방문해 각종 문화공연과 자비나눔행사를 펼쳤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불교계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5월 11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빛고을나눔나무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주제로 문화공연과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년원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비롯해 음성포교팀 · 전문연주자 · 댄스팀 등이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행사에 법사로 나서 과학자 뉴턴의 일대기를 소개한 뒤 "물건을 만들 때 원리를 알아야 과학자가 되고, 기능만 알면 목수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노력은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정진하는 것이다. 나중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연 단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벌인 행동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깊은 참회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삶을 건실하게 설계하고 생활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기념식이 끝난 뒤 포교사단 음성포교팀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일반 고등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엄연한 국가 수형시설에 있는 원생들은 민간인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 많지 않아 서인지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봤다. 이후 하모니카 연주, 소년원 원생들이 각자 마련한 장기자랑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행사의 백미인 송원대 여성댄스팀 싸우스클라운의 댄스공연이 펼쳐지면서부터는 큰 환호가 행사장을 메웠다. 더불어 오카리나 공연과 트로트 가수의 공연도 흥을 더했다. 문화공연이 끝난 후 원생들은 불자식당인 차이나궁의 후원으로 자장면 공양을 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교정교화팀(팀장 손복순)을 운영하며, 광주소년원에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여름불교학교, 겨울수련회, 수계식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전주교도소 불교교정위원회(회장 진성, 탑사 주지)는 5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주지)을 비롯해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 전북불교회관 이원일 사무국장, 정인택 포교사, 전주 실상사 봉사단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특별법회는 재소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안전한 수감생활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불교교정위원회 위원들은 재소자들이 종교생활을 통해 과거를 참회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원만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마이산 탑사 전주 분원 실상사 밴드는 난타 공연과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으며, 승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재소자들이 종교를 통해 참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무대에 빛난 빛고을 청소년들

빛고을관등회 봉행위,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열어



5월 15일 열린 빛고을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에서 스님들과 청소년들이 시상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마련한 빛고을 청소년들의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열렸다.

빛고을관등회 봉행위원회(회장 연광, 광주불교연합회장)는 5월 15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빛고을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빛고을관등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과 상장 등이 주어졌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대표 도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총 9개 팀(노래 3 · 춤 3 · 밴드 1 · 국악 2팀)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에서는 광주예고 국악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연 외에도 초청무대로 강명진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수안 스님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도제 스님은 경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미래의 희망은 청소년들의 밝은 마음과 건강한 육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여러분을 위한 경연대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희망을 맘껏 뽐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동배 교법사(정광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불교는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행사가 열린 유스퀘어 문화광장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있어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이날 시민 500여 명이 경연대회를 관람했다.

한편 광주불교계는 올해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빛고을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외에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주관으로 '제2회 청소년자전거캠프'를 5월 28~29일 광주시청에서 지리산 화엄사까지 자전거 트레킹 등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은 "올해 봉축행사 특징 중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불교계 각 단체와 연계해 불교행사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불사, 자비의 쌀 전달

경암동주민센터에 350kg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는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불전에 공양한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성불사 신도회(회장 금강지)는 5월 18일 경암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350kg과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종명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공양 올린 쌀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 전달하게 됐다"며 "많진 않지만 불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성불사는 10년째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에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과 과일 등을 전달해오고 있다. 또 방생법회를 축소하는 대신 복지시설에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인간방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종교는 근본정신 잃게 되면 타락한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㊾ 오계국 요괴를 물리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금각, 은각대왕을 물리쳤네.
'이름 따먹기' 정병의 관문을 넘어섰네.
손오공, 이제는 이름에 대한 집착도 넘어섰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제 남길 것도 없어졌는가?
아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름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니
실제도 헛된 것이어늘 하물며 이름이랴!
갈 길을 그저 갈뿐, 무엇을 남기려 하랴.
서역에의 길은 아직도 멀어라.
떠나 온 땅에 그리움도 깊어라.
이 때 마침 떡하니 커다란 사찰이 나타나네.
보림사라 하는 절이로다.
그런데 주지 스님 심보가 고약하여
일행의 행색을 보고 푸대접하다
손오공의 행패에 기겁을 하여
손발이 닳도록 빌고 빌고, 칙사 대접….
모처럼 편안한 잠자리에 현장법사 향수병이 도져
달 쳐다보다 불경 외우다~
그런데 음산한 바람 일어나고
온몸에 물을 뚝뚝 흘리는 유령이 등장하신다.
가까운 오계국이라는 나라의 임금님 유령
오랜 가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3자 넘는 비를 내리게 한 도력 높은 도사
의형제까지 맺으며 대접을 했건만
술법을 부려 왕을 우물에 밀어 넣어 죽이곤
왕으로 둔갑하여 행세를 하고 있단다.
이 원통함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니
자비심 넘치는 현장법사 손오공을 믿고 청원접수!
결국 어려운 짐은 손오공에게 떨어졌네!
그런데 손오공도 싫은 일은 아니구나.
신바람이 나서 일을 처리한다.
유령도 막무가내로 일을 맡긴 것은 아니고
증거품이 될 수 있는 백옥홀을 남기고
왕후의 꿈에 현몽하여 사실을 알리기로 했네.
손오공, 우선 태자와 은밀히 소통하여
유령이 남기고 간 증거품으로 요괴의 음모를 밝히니 태자가 황후를 만나보고 확신을 갖게 된다.
몇 년 동안 몸이 얼음처럼 차디차고
부부간의 가장 즐거운 일도 없었다 하네.
이제 남은 일은 태자와 힘을 합해
요괴의 정체를 밝히고 물리치는 것!
현장법사를 설득하고 저팔계를 꼬드긴다.
듣자니 요괴에게 굉장한 보물 있단다.
보물 훔치러 가자!
저팔계 욕심이 동하여 따라나선다.
궁정으로 숨어들어 왕을 빠뜨린 우물 있던 자리 찾아가니 우물 메우고 파초를 심어 놓았구나.
술법으로 흙 걷어내고, 팔계 욕심 부추겨 여의봉 키워 늘어뜨리고 팔계를 우물 속으로 내려보낸다.
여차저차 우여곡절….
왕의 시체를 건져내는데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용왕의 보살핌으로
시체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네.
손오공에게 속아 결국 시체 짊어지고 돌아오게 된
저팔계. 복수심에 불타 현장법사를 충동질한다.
손오공이 왕을 살려낼 능력이 있는데
귀찮아 안하는 것이라고…
귀 얇은 현장법사 손오공을 몰아붙인다.
긴고주까지 외워대며 왕 살려내라 몰아붙인다.
애고고, 불쌍한 손오공~
결국 하늘 세계로 올라 태상노군에게서
구전환혼단을 얻어낸다.
물론 태상노군이 그냥 주었을 리가 없지.
안 주었다가는 무슨 후환이 있을까 걱정되어
할 수 없이 한 알 준 것이지만….
공갈능력도 능력은 능력!
그리하여 왕을 소생시키고,
여차저차 우여곡절….
요괴를 때려잡으려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예측 가능?
짠~~~. 보살님 등장하신다.
이번에는 문수보살님일세.
손오공 잠깐! 죽이면 안돼돼돼돼….

대찰 보림사의 타락상 묘사
고발 일환으로 서유기 작성
"대표자 위계에 종교위상 달려"

아니 또 왜요?
아 이번의 사건, 미리 예정된 부처님의 안배란다.
내가 예전에 승려로 화신하여 오계국에 들렸었는데 왕을 만나서 좀 듣기 싫은 소릴 했다고 왕이 나를 3일간 우물에 쳐박았던 일이 있었지. 그 과보로 왕이 3년간 우물 속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야.
그리고 그 요괴는 내가 타는 사자인데
인과응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출된 것이고!
음…거세된 사자이니까 왕비의 정절은 걱정 말고….
애고고, 그런데 왜 꼭 그런 일들을
우리 가는 앞길에 벌이는 거예욧!!!
요괴 잡는 거야 재미있다 하지만
뒤가 너무 허무하자나요!
핫핫핫! 너무 그러지 말아라. 다 너희들 키워주려는 깊은 뜻에서 나온 일이란다.
이런 이야기가 오갈 듯 한 장면….
요괴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
또 한 번 일어나지만, 그래도 해피 엔드!
온 나라의 거창한 환송을 뒤에 두고
힘차게 서역으로 떠나는구나~

손오공, 아니 현장법사의 경지가 한층 더 깊어졌겠죠? 이름의 관문을 넘어섰으니, 어지간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겠죠? 아, 그럼 재미가 없다구요? 걱정 마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손오공 여전히 까불까불, 저팔계 침 질질(무엇에 침 흘리는지는 아시지요?), 사오정 끄덕끄덕…그러면서 갈테니까요. 그래도 이제 꽤 온 것 같은데…아직 멀었느냐구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한 반쯤 왔나 싶네요. 현장법사가 향수병도 도지고 힘에 겹기도 하여 한탄을 하면서 손오공에게 그렇게 묻지요. 손오공 "아직 문 밖에도 안 나갔습니다!"하고 매몰차게 말하지만, 문 밖은 훨씬 벗어났어요. 이제 곧 화염산 나올 테니 그래도 꽤 많이 온 셈입니다. 그렇지만 일행들 여정에 지칠 만도 할 때죠. 그래서 현장법사가 푸념도 하고, 손오공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 마침 큰 절이 나타나지요? 보림사라는. 승려만 해도 몇 백이 있는 큰 가람이네요. 그래서 현장법사 반갑게 달려가 머물기를 청하는데…. 이 절 주지스님 행태가 참 볼만해요. 현장법사의 몰골을 보아하니 돈 나올 구석은 하나도 없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긴 여정에 무엇이 남아나겠어요?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해지고, 사막 먼지는 가득 뒤집어쓴 비렁뱅이 모습일 수밖에요. 현장법사를 안내해 온 지객승한테 버럭 버럭 소리를 지르고, 현장법사한테도 모욕을 주지요. 복도 구석에서 찌그러져 자던지 말든지 하라는데…. 절을 안 만났으면 몰라도 절을 만났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니 손오공 일행이 금방 눈치를 채지요. 손오공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당장 현장법사를 대신해 달려 나가 한 바탕 휘젓는 거죠. 워낙 생김새가 흉악한데다 여의봉 크고 굵게 키워서 돌사자 한번 툭 건드리니 돌사자 완전 가루! 박살이 아니라 가루예요 가루!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일까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온 절의 스님들 모아서 영접을 하고 난리굿을 피우게 되죠.

앞의 흑풍요괴 이야기 때 보셨죠? 주지스님이 현장법사의 금란가사에 눈이 멀어 일행을 태워 죽이려고 한 일. 여기 주지는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가 승려라고 보기에는 너무 속물적인 모습이 줄줄 흐르네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서유기 저자인 오승은이 당시의 불교를 보는 눈이 결코 곱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대의 불교는 많은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태종 때는 덜했을지 몰라도, 얼마 시대가 뒤떨어지지 않은 측천무후 시대에만 해도 아주 심한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유를 하면서 무소유의 정신을 내던져 버리고 성적인 측면에서의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서유기의 무대가 되는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 거의 천년 뒤라고 할 수 있는 오승은의 시대에는 또 어땠겠어요? 종교가 그 근본정신을 잃지 않고 있을 때는 참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타락했을 때는 그만큼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 그 위상과 역할이 결정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관음선원의 주지스님이나 이 보림사의 주지스님은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건 바로 서유기 저자 오승은의 당시 불교에 대한 고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손오공의 활약(?)으로 대접을 받아가며 머물게 된 보림사에서 현장법사가 유령과 면담을 하게 되네요. 유령 상담사 역할이냐고요? 아니요, 그냥 귀신 만난다구요. 그런데 나칠계님, 귀신이라니 안색이 바뀌시네요. 귀신이라면 질색이라구요? 헛, 꽤 얼굴 가죽도 두텁고 하여, 귀신같은 것도 전혀 겁낼 것 같지 않은 분이 이상하군요. 재미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나칠계님 슬슬 놀려가면서 귀신 이야기나 진진하게 해 볼까요?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하늘의 별, 칠성신앙으로 빛나다

그 절집의 빛

⑪ 안동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벽화



칠성전 향좌측 벽화. 남극노인과 월궁천자, 28수 별자리 중 북방7수, 남방7수를 인격화해서 그렸다.



칠성전 향우측 벽화. 자미대제와 일궁천자, 삼태육성, 그리고 28수중 동방7수, 서방7수 등을 그렸다.

칠성각,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각

봉정사 칠성전벽화, 국내유일 칠성 벽화

6칸 벽면에 45체의 도교적 일월성신

동양의 천문세계관 고스란히 담아

한민족 별자리신앙의 모태는 칠성신앙

별자리를 성수(星宿)라 한다. 별이 밤하늘에 유숙하는 곳으로 본 것이다. 별들이 밤하늘에 잠을 잔다. 매력적인 생각이다. 한자 '宿' 자는 '잘 숙' 으로도 읽기도 하고, '별 수' 로도 읽는다. 성수신앙, 곧 별자리신앙은 태고로부터 전승해온 전통 민간신앙이자 토착신앙이다. 일월성신과 천지신명에 세상 만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남도민요 중에서 〈성주풀이〉가 있다. 성주풀이에서 묻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성주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 본이라." 성주는 집을 짓고, 또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집을 짓는 재목으로서 소나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간신앙에서 수복강녕을 가져다주는 무속신이다. 민요에서 성주의 근본을 안동 땅 제비원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안동 땅에 제비원 석불이 있다.

그런데 동양적 세계관에서 하늘과 땅은 서로 감응한다. '천지감응(天地感應)' 이라 부른다. 하늘의 별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 수명, 길흉을 관장한다고 보았다. 해와 달과 별이 일월성신이다.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매개한다. 해와 달, 목화토금수의 별들은 음양 오행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월화수목금토의 일주일 주기로 삶의 일상을 담당한다. 특히 남두육성과 삼태성, 북두칠성은 인간의 탄생과 수명,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전통 별자리신앙의 모태는 일월성신, 특히 북두칠성에 강력히 닿아 있다. 중국의 도교가 북극성 중심이라면, 한민족은 북두칠성에 대한 칠성신앙이다.

고구려 벽화고분 덕화리 고분 1, 2호에는 팔각벽면 한 면 전체에 가득 차도록 북두칠성을 그려둬서 칠성신앙의 뿌리 깊은 내력과 비중을 짐작케 한다. 전통민속의 칠성신은 그 북두칠성을 인격화 한 민간신앙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칠성신앙에다 중국으로부터 영향 받은 도교적 요소가 결합해서 다양한 신들의 향연과 천문 우주를 펼쳐 두었다. 고구려의 도교적 문화요소들은 고려의 불교국가에 이르러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로 변신 한다. 도교와 불교의 습합(習合)이 이뤄진 것이다.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의 여래화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의 불교적 여래화의 산물이다. 북극성의 도교적 의인화는 자미대제(紫微大帝)다. 동양의 별자리는 3원 28수의 체계에 따른다. 자미원은 북극 근처의 세 영역 중의 하나다. 북극성은 자미원 영역의 중심, 곧 천체의 중심에서 모든 별을 통솔한다. 그래서 자미대제다. 천문의 북극성이 도교에서 의인화 하여 자미대제가 되고, 자미대제는 다시 불교에 수용되면서 치성광여래로 승화된다. '치성광' 이라는 말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빛 같이 밝은 빛이라는 의미다. 인도에서는 묘견보살로 불리운다. 북극성 별 하나를 두고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각각 보살, 대제, 여래로 섬기고 있는 셈이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치성광여래를 주존불로 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의인화해서 그린 천문도적인 14세기 고려불화가 〈치성광여래왕림도〉다. 미국 보스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화면의 중심에 치성광여래께서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고, 그 주변에 해와 달, 북두칠성, 12궁, 스물여덟 분의 보살로 신격화한 28수의 별자리 등을 이름표 갖춰 배열한 천문성수도(天文星宿圖) 불화다. 불화 속에 갤럭시가 펼쳐져 있다. 이 치성광여래왕림도가 조선시대 중후기에 대량생산의 양상을 뚜렷이 보인 칠성탱의 단초로 작용했다.

칠성탱(七星幀)의 주존불은 금륜을 손에 쥔 치성광여래다. 좌우에 해와 달이 각각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협시한다. 약사여래삼존불과 연동한 파격적인 도상이다. 그만큼 칠성신앙이 민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주위에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칠성여래와 28수 별자리가 관복을 입은 성군으로 등장한다. 칠성탱을 봉안한 전각이 보통 칠성각, 또는 삼성각이다.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칠성도는 거의 대부분이 천에 그린 탱화다. 안양 삼막사 칠보전에는 유일무이하게 화강암 암벽에 새긴 치성광여래 마애삼존불이 현존한다. 그 외는 모두 탱화라 보면 된다. 그런데 국내에 칠성도 벽화가 존재해서 주목을 끈다. 성주풀이의 땅 안동에 국내유일의 칠성벽화가 있다. 안동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 좌우벽면에 그려져 있다.

칠성전은 민간신앙, 도교, 불교의 습합

보통은 칠성각인데 봉정사 지조암은 '칠성전' 이다. 당호의 존격을 최상으로 높여 두었다. 칠성각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삼막사의 경우 '칠보전', 수원 용주사에선 '시방칠등각(十方七登閣)', 통도사 안양암에선 '북극전' 으로 부른다. 나반존자의 독성과 산신을 함께 봉안할 때는 '삼성각' 으로도 부른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칠성신앙을 미신이라면서 '논할 것도 없이 가소로운 것' 이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한국불교의 포용력과 민간신앙의 흡수에 의해 한국사찰가람의 필수적 요소가 돼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봉정사 칠성전의 벽화는 대단히 도교적이다. 벽화만을 떼놓고 보면 완전한 도교적 도상이다. 보통 칠성도는 같은 별자리를 상징하는 불교와 도교의 위계가 서로 대응하는 구도로 그린다. 상단에는 치성광여래께서 칠성여래를 거느리고, 하단에서는 자미대제께서 칠원성군(七元星君)을 거느린 형태다. 불교와 도교의 세계를 한 화면에 담아 보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봉정사 칠성전의 벽화는 도교적 세계관에 집중해서 대단히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 벽화는 회칠로 마감한 바탕의 좌우 벽면에 조성하였다. 한 벽면에 세 칸씩, 총 여섯 칸의 화폭에 6폭 병풍처럼 전개했다. 벽화는 하늘의 천군세계의 도석인물화로 여길 정도로 모든 별자리의 이름을 밝혀 두어 민속학적 가치를 더 높인다. 별자리 이름은 머리에 쓴 관모에 둥근 원을 마련해서 기입하거나, 인물 옆에 붉은 글씨로 써두기도 했다. 별자리 성수들은 한결같이 도교적 인물인 진군(眞君), 천자(天子) 등으로 인격화 했다. 좌우대칭의 구도로 배치하였고, 벽화에 등장하는 인원은 총 45분이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도가적 관복복식을 갖추었다. 등장무대는 신령한 구름이 뭉개 뭉개 피어오르는 하늘세계다.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 전경.

북극성, 해와달, 삼태육성, 28수 담아

향우측의 중심인물은 북극성을 인격화한 자미대제다. '북극진군(北極眞君)' 이라는 별호도 덧붙였다. 중심인물을 더 크게 그리는 대상비례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흰 수염이 길게 바람결을 타고 있고, 풍모에 위엄을 갖췄다. 같은 화면에 삼태육성(三台六星)과 일궁천자(日宮天子)를 배치했다. 일궁천자는 붉은 해를 그릇에 담아 어깨 위로 떠받치고 있어 태양의 의인화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삼태육성은 세 개의 별로 보여 삼태성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각 별은 두 개씩 이뤄져 있다. 벽화에서도 두 사람씩 짝지어 시립해 있다. 관모에 적어 둔 존명에 의해 삼태육성은 허정(虛靜), 곡생(曲生), 육순(六淳)임을 알 수 있다. 자미대제 좌우의 화면에는 별자리 28수 중 제1궁과 제3궁의 별자리를 인격화해서 배치했다. 1궁엔 각, 항, 저 등의 동쪽하늘 일곱 별자리를, 3궁엔 규, 위, 묘 등의 서쪽하늘의 일곱 별자리를 그렸다. 채색에 사용한 색채는 오방색인데, 청색의 채색이 수채화 물감의 덧질 터치기법과 유사해서 채색의 근현대성을 짐작하게 한다.

향좌측의 중심인물은 남극노인(南極老人)이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무병장수를 상징해서 수노인(壽老人)으로도 부른다. 남극에 가까운 남쪽 지평선에서 관측할 수 있어 남극노인이다. 북극성의 자미대제에 대비해서 배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 일대 뿐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왕실의 무병장수와 국태민안을 위해 제주도로 천문관을 보내 수노인성을 관측하고 올 것을 하명하는 대목을 간혹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수노인은 때론 도가의 교조인 노자로 여기기도 한다. 수노인이 현생에 나타난 화신이 노자라 보는 것이다. 벽화에도 남극노인과 태상노군(太上老君)의 방제를 함께 병행해서 써놓았다. 동일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태상노군은 노자를 신격화한 도교의 존명이다. 태상노군 곁엔 붉은 그릇에 흰색 보름달을 어깨 위로 받쳐 든 월궁천자(月宮天子)가 협시하고 있다. 태상노군 좌우의 벽면엔 28수 별자리의 제2궁과 제4궁을 그려 두었다. 2궁엔 두, 우, 여 등 북방7수를, 4궁엔 정, 귀, 류 등 남방7수를 베풀었다. 벽화를 통해 28수제대성군(二十八宿諸大星君)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벽화다.

봉정사 칠성전 벽화는 큰 규격을 갖춘 칠성탱에서 도교적 요소들만으로 재구성한 전대미문의 도상을 구현하고 있다. 북극성과 남극노인성, 해와 달, 삼태육성, 28수 별자리들이 결집한 동양의 천문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벽화에 코스모스적 우주를 담고 있다. 더욱이 모든 일월성신을 인격화한 까닭에 사람의 무병장수와 복록을 기원하는 갸륵한 마음이 별처럼 빛난다. 별은 빛이 있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동경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 빛난다. 우주만유에 일심(一心)이 있어 해와 달과 별, 여래, 사람이 천지간에 빛나는 법이다. 마음 밖에 무엇이 빛나는가? 벽화 속 일월성신들에 사람의 마음이 빛난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폄하·부정 담긴 한국불교 전통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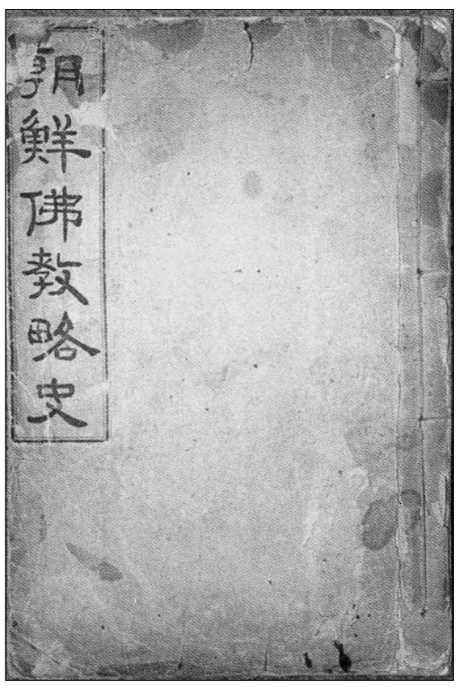
34. 근대불교학의 수용

근대불교학은 19세기에 서양에서 탄생하여 아시아의 수입도매상인 일본을 통해 20세기 초 한국에 전해졌고,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에 의해 불교 전통의 조형이 시작되었다. 근대에 들어 서양은 오리엔탈리즘 시각에 의해 타자인 아시아를 열등하게 바라보았다. 서양의 오랜 문헌해석학 전통과 실증주의적 학문 풍토에서 비롯된 동양학에도 동양에 대한 편견과 서양의 우월의식이 깊게 깔려 있었다. 근대학문으로서 불교학은 불교의 원산지이자 오랜 역사전통을 자랑하는 아시아에 역수입되었고, 기존의 절대적 · 교조적 신념체계 대신 창시자 붓다와 불교의 사상 및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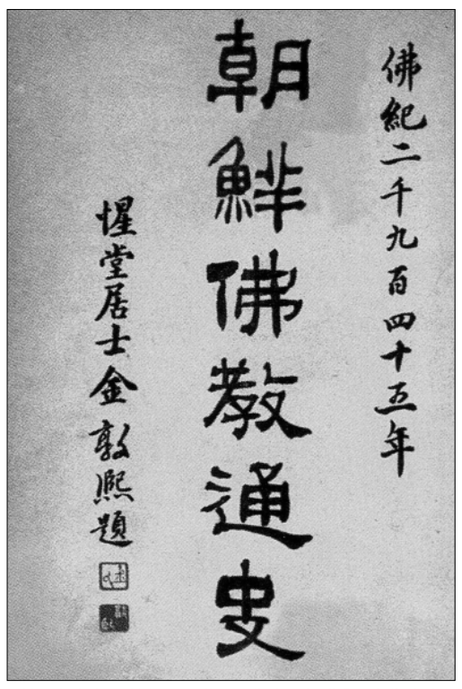
앞서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서구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불교학을 일찍이 받아들였다. 1877년 난죠 분유 등이 인도학의 대가였던 막스 뮐러에게 유학하였고, 도쿄제대에서 하라 탄잔의 〈대승기신론〉, 인도철학 강좌가 개설되고 타카쿠스 준지로가 범어학 강의를 하면서 학제 내에서 근대적 불교 연구가 시작되었다. 근대불교학은 한역 경론과 주석서에 의거해 교리와 종조를 맹신하던 교학이나 종학 등 일본의 전통적 불교와는 달리, 산스크리트, 팔리어 원전과 티베트어 대장경 등으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헌비판과 역사 실증주의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명확히 밝히고 이후 불교의 역사와 새롭게 성립된 경전의 계보를 계기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불교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에서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불교사학의 토대를 닦은 이는 무라카미 센쇼였다. 그는 1894년 불교사학 학술잡지인 〈불교사림〉을 창간하였고 〈불교통일론〉과 〈일본불교사강〉을 저술하여 불교의 종합적 · 역사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또한 1903년 〈대승불설론비판〉에서 대승불교는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대승비불설'을 설명하면서 교리가 아닌 역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카이노 코요는 1907년 중국불교사의 대강을 정리한 〈지나불교사강〉을 저술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불교의 역사적 · 사상적 · 종교적 의미를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에 의해 추구하였고, 20세기 전반에 한역본 〈대정신수대장경〉, 팔리어본 〈남전대장경〉을 비롯해 각종 원전자료집과 사전류를 편찬함으로써 불교학 연구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나아가 팔리어와 한역 경전의 비교를 통한 초기불교 연구, 인도의 주석서를 대상으로 한 아비달마 및 대승 경전과 사상 연구, 한역 불전에 의거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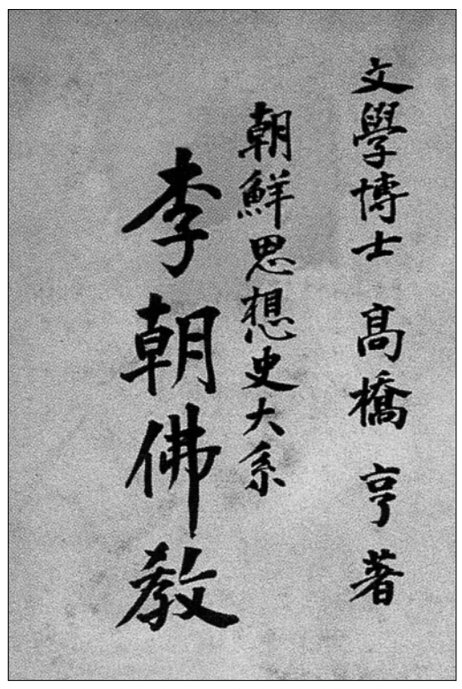
한국에는 1910년대부터 일본의 근대불교학 및 불교사 분야의 성과와 방법론이 소개되었고, 식민지 당국의 학술, 종교, 문화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자료조사와 대규모 집성 작업이 이루어졌다. 1912년 2월에 창간된 〈조선불교월보〉에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인도와 중국, 한국과 일본의 불교사 개관이 연재되었다. 또한 이 잡지에는 무라카미 센쇼의 〈불교통일론〉 일부를 권상로가 번역하여 실었는데, 무라카미가 제기한 연구방법론의 핵심은 주석학적, 비평적, 역사적, 비교적 연구였다. 문헌실증주의에 의한 역사학적 접근이 근대적 불교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일찍부터 국내에 소개된 것이다. 근대불교학은 강학이나 주석교리학을 위주로 한 전통적 학술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방대한 문헌 수집과 분류, 비판적 텍스트 이해, 객관적 서술의 지향 등 여러 문제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권상로의 저술 〈조선불교약사〉.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표제지. 이 책은 현재까지도 불교사 연구의 중요한 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불교에 관련된 많은 글을 남긴 다카하시의 저술 〈이조불교〉.

이상 사진=〈한국불교100년〉

근대불교학 서양서 역수입 돼
日 이어 조선도 연구에 박차
오리엔탈리즘 인한 '열등' 각인
다각적인 접근으로 해소해야

이러한 문헌집성과 계보학적 정리, 연구방법론의 도입에 힘입어 1910년대 후반부터 한국불교 관련 개설서가 나올 수 있었다.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1917), 최남선이 교열을 본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가 그것이다. 〈조선불교약사〉는 승려교육을 위해 집필된 최초의 한국불교 통사로서 역대의 사건과 인물 관련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엮은 간략한 책이다. 한편 〈조선불교통사〉는 방대한 사료가 수록된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지만, 저자의 해설과 평에 한국불교사에 대한 넓은 식견과 안목이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지금까지도 한국불교사 연구의 자료의 보고이자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능화는 문헌실증주의에 입각한 계통적 역사 서술을 지향하였는데, 한국의 여러 불교 종파들을 정리하면서 조선시대에 성립된 임제종 법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및 연구의 축적을 자양분으로 삼아 이후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불교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경성제대 교수였던 다카하시 토오루의 〈이조불교〉(1929), 중국선종 전공자인 누카리야 카이텐의 〈조선선교사〉(1930)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카하시는 총독부의 종교정책 및 학술조사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불교와 유교 전통에 일찍부터 주목하였다. 그의 불교연구의 결과물인 〈이조불교〉에서는 많은 자료를 종횡으로 활용하면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전체적 정리와 함께 인식의 틀과 입론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관변 식민사학자의 입장에 서서 한국사를 타율성과 정체성이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에 의하면 한국불교는 독자적 특성과 발전이 없는, 한마디로 중국불교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조선시대 불교는 여성과 서민의 신앙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정치적 억압에 의해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침체와 쇠퇴를 거듭해 온 굴절의 역사로 단정하였다. 다카하시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시대 불교는 종교로서의 사회성을 잃고 소외된 계층의 신앙이었을 뿐이며 국가로부터 교권을 빼앗기고 모욕과 압박을 받은 기괴한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선선교사〉를 지은 누카리야는 근대기의 대표적 학승인 박한영 등에게 정보를 얻고 기존의 자료와 연구를 참조하여 한국불교의 선과 교학 사상 전체를 망라한 개설서를 낼 수 있었다. 〈조선선교사〉는 〈이조불교〉와 함께 식민지기 한국불교 연구의 기념비적 역작이지만, 여기에서도 원효, 지눌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한국의 선종과 교학 전통에서 중국과 다른 독창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단언하였다. 일본 조동종 승려 출신으로 종립 고마자와 대학의 교수였던 누카리야는 조선시대를 선과 교의 암울한 쇠퇴기로 보았고, 19세기 선 논쟁을 예시하며 한국의 선종은 임제종 우위의 편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부처가 진귀조사에게 선을 전수받았다는, 한국에서 나온 독특한 주장인 '진귀조사설'이나 염화미소 등의 '삼처전심설'에 대해 경전상의 근거가 없는 후대의 가설이자 망설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해 서양과 일본의 최신 연구 성과가 전해졌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학한 김법린과 백성욱, 일본에서 배워온 강유문, 김경주, 김태흡, 허영호 등이 새로운 학문방법론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불교 연구에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 김법린은 세계의 학술사조에 적극 대처해야 함을 주장하며, 프랑스 불교학의 성과를 인도학, 중국학, 티베트학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그는 역사학, 언어학 등의 비판 · 분석적 방법, 원전 교정과 주석을 위주로 한 문헌학 연구를 통해 종의적 전통과 신화적 전설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30년대 이후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제고되었다.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면, 〈조선불교사고〉(1939)를 쓴 김영수는 오교구산, 오교양종 등 한국불교 종파사의 체계를 세웠다. 또 에다 토시오는 조선 초 간경도감의 불전 간행과 불서 언해 문제 등에 주목하였고, 권상로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에서 불교 관계 기사를 발췌한 〈이조실록불교초존〉(1934)을 펴냈다. 그 외에도 의천의 교장과 고려대장경, 조선시대 간행 불서 등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도 나왔다.

한편 박한영은 1930년대 전반 무렵 중앙불전의 강의교재로 불교사 개설서인 〈불교사남요〉를 썼다. 현재는 앞부분의 '석가본행기'만 전하지만 서론인 '통론'에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불교사를 간략히 개괄하고 있어 책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통론'에서는 부처의 행적부터 아쇼카왕의 불교 확산, 대승불교의 성립과 중관 · 유식사상, 불교의 중국 전래와 한역 경전, 교종과 선종의 발전과 송대 이후 불교사를 간략히 언급하였고, 한국의 불교 수용과 구산선문 및 구법승의 활동, 고려시대 불교전적의 동아시아 유통과 선과 교의 병행 등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일본불교에 대해서는 나라시대의 남도 6종과 가마쿠라시대 이후의 종파불교를 개관하였다. 나아가 그는 세계의 불교를 남부불교의 소승, 티베트 · 몽고 등 북부불교의 라마와 밀교, 대소현밀을 갖춘 일본의 동부불교로 나누었으며 현재 중국불교는 영화를 잃었고 조선불교는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박한영의 〈불교사남요〉는 당시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와 불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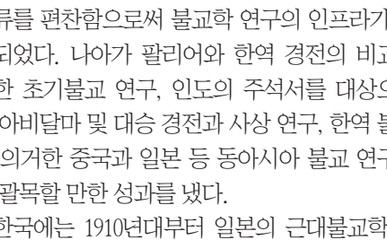
근대시기 한국학의 태두였던 최남선은 불교학자는 아니었지만 불서 간행에도 힘을 쏟았고,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사에 있어서 불교가 유교보다 서민생활과 정신문화 등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인도의 서론적 불교, 중국의 각론적 불교에 대비되는 결론적 불교이며 많은 사상적 성과가 나왔다고 보았다. 특히 원효로부터 이어진 통불교 전통을 강조하면서 한국불교의 종합성과 독자성을 내세웠다. 이는 인도-중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전통적 불교사 인식, 그리고 종파불교적 특성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문헌텍스트의 조사 분류와 근대학문의 실증적, 객관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면서 20세기 전반에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 문화 등을 집대성하고 이미지화하는 전통의 조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불교 연구 또한 근대학문의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 이해와 서술, 주제의 발굴과 입론 형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타자에 대한 폄하와 부정의 시각이 개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식민지기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불교사의 전체적 모습이 생생히 밝혀지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 불교의 경우는 부정적 전통의 상을 극복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불교 연구에서 지나친 민족주의나 종파적 관점을 지양하면서 고유성에 내재된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 그리고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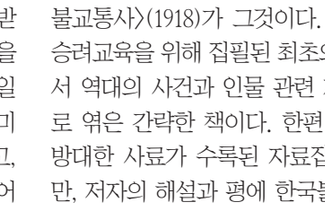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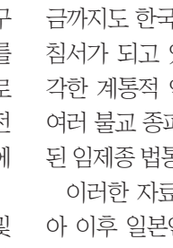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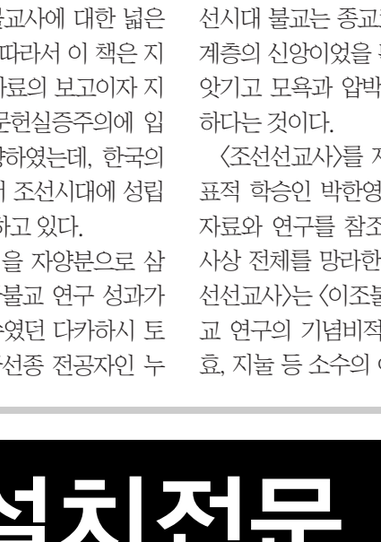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니까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②

양면에 대한 깊은 이해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의 시선은 목적지로 빠르게 달려가려는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는 순간, 재빨리 몰고 가는 것이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이때의 시선이란 '질주'의 가치가 실현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잘못이 매우 크게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행자가 만들어내는 시선은 건널목을 지나가는 승용차에 집중될 것이다. 자신의 갈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안전 또한 위협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선과 차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방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형성되는 의도와 가치 또한 달라진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선과 악, 빠름과 느림, 크고 작음 등의 판단도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그 사람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위치와 방향이 하나의 생각이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에서는 이와 같이 실존에서 맞닥뜨리는 양면성에 주목한다. 바로 '서로 다른 시선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양면성의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가운데 길'(中道)이라고 부르는 실천의 방식을 제시하는 일차적인 이유이다. '가운데 길'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상적 토대는 자신의 감각기관에 포착되는 대상이란 '조건에 의해 발생된 것'(緣起)이라는 체계적 사유방식의 확립에서 나온다. 즉, 불교 안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연기적 사유방식이 중도적 실천방식의 토대가 되며,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연기적 사유는 그만큼 온전하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 인식론과 실천론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을 구성하는 항목에 모두 '정(正, sammā)'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위치와 방향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최적의 가치'를 모색하는 일을 '올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팔리어 '삼마'에 내재되어 있듯이 그러한 노력이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팔정도에 내재된 두 번째 성격이 된다. 그러므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에 내재된 이러한 면모를 반영하면, '가운데 길'이라는 뜻의 중도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길' 또는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수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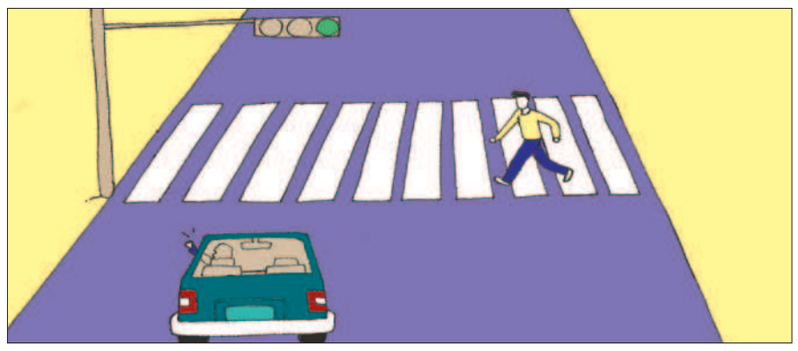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양면성을 고려하는 태도이고, 나와 다른 위치와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하나의 생각이나 행위가 특정한 그곳에 있다고 해서 올바름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적절한 길'(中道)의 기초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의 판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실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이 바로 팔정도(八正道)이다. 그것은 '바르고 온전한 견해'(正見), '바르고 온전한 생각'(正思惟), '바르고 온전한 말'(正語), '바르고 온전한 행위'(正業), '바르고 온전한 생계활동'(正命),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지속적 노력'(正精進),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주의력의 일깨움'(正念), '바르고 온전하게 집중된 마음'(正定)의 여덟 가지를 가리킨다. 이제 〈니까야〉 경문에 의거하여 이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충실하자…

리더에게 聽하다

정우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장

세상이 시끄럽다. 배임, 횡령 등 공공요직에 앉은 많은 이들의 사심에 의한 행위가 연일 지탄 받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중시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공심(公心)으로도 말할 수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공심이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2일, '공심'을 주제로 조계종 군종교구장인 아산 정우 스님(64)을 만나 스님의 생각을 들었다.

정우 스님은 10대 초반 통도사에서 출가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대형 도심사찰을 창건했다. 서울 강남서 가장 큰 절 중 하나로 꼽히는 구룡사를 1985년 창건한 이래 일산 최대 사찰인 여래사와 해외사찰 8개 등 20여개 사찰을 만든 도심포교의 주역이다. 스님은 구룡사와 여래사를 비롯한 대찰들을 모두 조계종 공찰로 등록했다. 그 이면에는 공동체 살림이란 '공심'이 있었다.

– 고양 여래사, 평택 자산사, 성남 장안사와 연화사, 인천 보명사, 대전 봉국사, 제천 운조암, 용인 법계선원, 미국 뉴욕의 원각사와 포틀랜드 보광사 등 스님이 손수 세우고 정성으로 가꾼 전법도량을 종단에 공찰로 등록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힘들여 일군 사찰들을 내놓으신 것입니까.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다. 시주자들이 보시금으로 내놓은 삼보정재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승가공동체의 것이었으니 내놓고 말고 할 게 없는 것이었다. 더 늙으면 괜한 욕심으로 종단에 횡포를 부릴까 염려돼 정신이 온전할 때 결심을 세웠다.(웃음)

수행자의 덕목은 불일부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에 와서 사설사암이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사찰을 빼앗긴다 등의 말이 있지만 오히려 상좌들이 살림을 잘 산다면 계속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못산다면 외부에서 개입이 있을 터이니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잘 살려야 하지 않겠나.

–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없는 이들이 더욱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채워 100개를 만들려는 욕망으로 가득찬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진실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허상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것에 집착해 붙들려 있는 것이다. 집착에 얽메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정우 스님은… 1965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8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 대교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등 20여개 사찰을 창건했다. 조계종 9~12대 종회의원. 불교TV 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포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및 구룡사 회주로 있다.

소유한 것은 내놓지 못하지만 원력으로 이룬 것은 그 자체로 만족이니 대중에게 원래대로 돌려놓게 된다. 공심이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충실한 것이다. 승려로서 종단의 종지를 따르고 공유화된 살림을 살고, 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지역살림에 이바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음이다.

– 창건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 원력에 따른 것이라면 공심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찰을 창건하신 원력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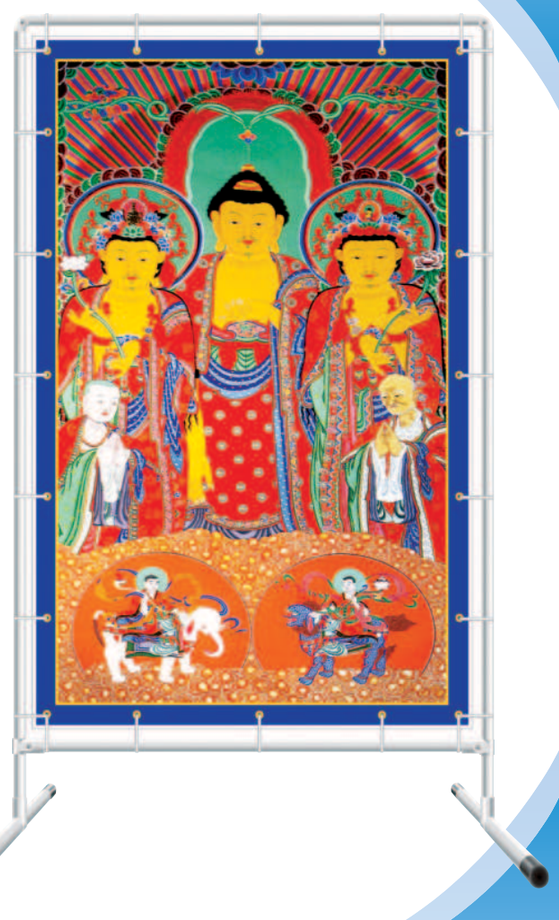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랐지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좋은 줄은 잘 몰랐다. 군대에 가니 부처님 법이 더욱 그리웠다. 그래서 부처님을 군대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의정부 26사단 호국 황룡사와 호국 일월사를 군생활하며 창건했다. 제대하자 월하 노스님, 벽안 노스님 등 대중들이 대중법회에서 새까맣게 젊은 저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그것이 바로 ‘公心’ 입니다”

법상에서 법문하게 했다. 열린 사고를 가진 그분들이 후학의 울타리가 되어줘 그 기운으로 서울에 올라가 구룡사를 창건했다. 예전 큰스님들은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찰을 창건했다. 그런 모습을 본받고자 대중들이 부처님법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중포교는 승려로서 놓을 수 없는 과제이기에 내세울 것도 아니다.

– 그래서 일까요. 스님의 사찰은 대중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것이 특징입니다. 통도사 주지로 있을 때도 그렇고, 구룡사, 여래사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꾸몄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산문을 활짝 여셨는지요.

불교는 모든 대중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대중들을 반갑게 맞이 하지 못한다면 불교가 아닌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 친절에서 나온다. 부처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 하심과 겸손이 그 실천이다. 사찰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도 모두 그 일환이다. 사찰과 스님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대중도 불교로 다가오고 공동체적 삶이 된다.

– 통도사 성보박물관에도 하나 둘 씩 문화재를 기부해 현재 스님이 기부한 문화재가 수백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받거나 구입한 문화재가 꽤 된다. 그때 그때 소중한 성보를 만나면 본사인 통도사에 보낸 것이 벌써 35년이다. 기증은 많은 이들이 찾는 통도사에서 함께 보면 더욱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뤄졌다. 벌써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 지정받을 만한 성보들도 많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박물관도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큰 사찰에서 보다 많은 대중들이 보니 얼마나 좋은가. 승려가 승려생활 동안 인연으로 모은 정재는 승가공동체로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본사인 통도사를 믿었고, 대중들을 믿었다.

통도사 주지로 있을 때 구룡사 신도들과 함께 구성한 전답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당시에 밭과 논이 사찰 명의로 되지 않아 내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사후에 속가로 갈 위험이 있어 법인화를 추진했다. 영농법인이 만들어지고 도시사람들과 통도사 식구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게 됐다. 잡목숲에는 매실수도 심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 2011년 인도의 고려사 불법매각을 막고 정상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도 각종 사업에 많는 기여를 하고 있고 달라이라마 방한에도 앞장섰습니다. 스님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일에 동참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조계종이 공공목적을 띈 기구를 출범시켜 좋은 곳에 정재를 쓰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큰 수해가 났을 때 예전 같았으면 개별로 도왔다. 지금은 공식기구를 통해 도우니 참 좋다.

구룡사의 경우 30여년 본인이 사는 동안 선행에 먼저 나선 사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절박하고 급할 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있어서 넘쳐서 한 것은 아니다. 작은 사찰에서 나름 하는 일도 있는데 기금을 내놓기가 쉽진 않다. 하지만 더 절박한 피해가 있다면 응당 백짓장도 맞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할까’ 하는데 ‘아니야, 없어’라고 하고 싶다.(웃음)

인도 고려사 부분은 해외에서 한국 스님들, 한국불교의 위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적극 나서게 됐다. ‘한국 스님들은 모두가 해외에 사찰을 지으면 불자들 돈을 가지고 도망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였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누군가 짊어지고 가야할 일이라면 그 짐을 스스럼없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종단 안팎에 많은 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그 것이 전체 불교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해서다.

그런 취지에 구룡사와 여래사 신도들, 또 많은 대중들이 동참해줘 감사할 뿐이다. 지난해 동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처인 야칭스를 갔는데 그 곳 상황이 정말로 열악했다. 올해는 야칭스 화장실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군종교구장으로서 특히 군장병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틈 날때마다 최전방 GOP까지 가고, 2013년 말부터 2만여 명의 장병들과 짜장면을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군포교 또한 이 분야가 시급한 분야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병영생활이 되도록 불교가 장병들에게 비타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이번에 부처님오신날에는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를 방문해 위문품인 ‘자비의선물’을 전달했다. 매년 자비의 선물 3만여개를 90여 부대에 보내고 있다. 군대에 있을 때 직접 느꼈던 어려움이 원동력이다. 작업할 때 조금이나마 덜 힘들라고 목장갑과 핫팩도 보내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장병들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다. 힘든 신병교육대 훈련병 시절과 초임부사관, 장교 등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요즘 장병들은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데 오지에 있는 철책선 근무 병사들에게는 책말고는 다른 정서안정책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랑의 독서까페 사업도 하고 있다. 많은 군장병들이 군생활 동안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제대 후 사찰에 찾아오는 이가 생겨난다면 이 또한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찰들이 1:1 자매결연을 통해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 1987년 극단 ‘신시’를 창단해 문화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맘마미아’ 등 다양한 뮤지컬로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극단이 됐는데 뿌듯하실 듯 합니다. 독립영화 후원 등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듯 합니다.

1980년대 중반 연극 ‘님의 침묵’을 공연했는데, 당시 함께한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모아 극단을 만들었다. 연극도 포교에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했다. 붓다TV나 〈월간 붓다〉도 마찬가지이다. 도심포교에서 극단을 만들고 인터넷TV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구룡사보〉로 시작된 〈월간 붓다〉는 내년이면 30주년이다.

현재 불교계는 많은 부분에서 시대흐름을 놓치고 있다. 단순히 수행과 전법하는 불교가 아니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그 효과를 맛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창건한 각 사찰의 회주로서 후학 양성에도 나서고 계십니다.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넘게 절에 살고 있으나 그동안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른 스님의 큰 그늘에서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후학의 그늘이 되어주고 앞선 어른의 울타리가 되어 당신들의 업적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후대의 가르침으로 남기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대에 어른 스님이 없다는 말이 많다. 후학들의 잘못이다. 근현대 불교의 많은 어른을 조명하고, 또 우리들이 그 길을 따르기를 발원하고 행해야 한다.

우리는 수행자여야 한다. 종교인이 직업이 돼서는 안된다. 하심하고 인욕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도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고 했다.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너그러움을 지닌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승려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나 자신부터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불교 뿐만이 아닌 우리 시대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정우 스님은 대화 내내 승가는 화합을 우선하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흔히 사람들은 큰일을 앞두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곤 한다. 하지만 수많은 불사를 이뤄낸 정우 스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모두를 위한 일이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나서면 못할 일이 없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동체 살림 강조

사찰 20여 곳 창건, 조계종 등록

통도사 영농법인 설립, 일반개방

“사회 병폐, 공동체 정신으로 치유”

소외계층 자비보시행 서원

짜장면 · 핫팩 등 군장병에 보시

각계 어려움 돕기에 적극 나서

“화합, 공유의 마음을 지녀야”



군장병들이 자장면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정우 스님. 스님은 지금까지 군장병 2만여 명에게 짜장면을 보시하고 핫팩 30만개를 보내는 등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 북인도 성지순례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정우 스님. 스님은 달라이라마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정우 스님은 2015년 11월 독립영화 ‘원효-춤추는 붓다’ 제작비를 지원했다.





발심 하면 법신을 볼 수 있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믿음을 성취하여 진여법을 생각할 줄 알고,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며, 대비심을 일으키는 보살들은 그 덕택으로 법신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같은 행적을 나타내 보여주게 된다.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는 팔상도(八相圖) 이야기가 기신론에서도 설해져 있다. 이는 부처님의 일생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다.

도솔천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모태에 들어가는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과 출태(出胎)하여 인간으로 태어나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과 성(城)의 사대문 밖에서 인간의 생노병사 등 고(苦)의 현실을 직시한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과 성을 나와 출가한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과 설산에 들어가 수도한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서 성도한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과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한 녹원전법상(綠園轉法相)과 사라수 아래서 열반에 드신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이 팔상(八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발심을 한 보살들을 아직 법신(法身)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과거 무량세로부터 지어온 업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여 태어난 곳에 따라 생활하는 육체적 환경의 고통이 미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업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대원을 발하는 자재한 힘이 있으므로 범부들과 같은 업에 묶이는 결박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발심을 얻기 위해선 마모 않는 공덕을 개발해야

간혹 어떤 경전에서는 대원(大願)을 발한 보살들도 때로는 수행의 길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길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음 발심한 보살이 아직 바른 수행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해 혹 게으름을 피우는 수가 있으므로 그들을 분발하게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설해 놓은 말일 뿐이다. 대승에 발심한 보살들은 결코 겁을 내거나 나약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 이승들의 지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고행을 하여야한다는 말을 들어도 회의를 품고 나약해지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일체 법이 본래부터 그대로 열반임을 믿고 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 놓았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의 다음 단계는 알고 실천하는 해행발심(解行發心)이다. 이는 보살들이 처음 발심한 이래 아승지겁이라는 오랜 세월의 수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해와 실천이 굳건해져 더욱 나아진 상태의 발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항상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벗어나고 어떠한 파멸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여 바라밀행을 수행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생활의 덕목이 여섯 가지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란 범어 파라미타(paramita)를 음사한 말로 저 언덕, 곧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이지만 완성된 상태를 향해 닦아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바라밀을 실천 하는 데 있어서 보살들은 진여의 본성 곧 법성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순응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는 실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진여의 본성은 인색하지 않고 탐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려 하고, 진여의 본성이 인간의 관능적 욕구인 재물, 이성 간 음욕, 음식, 명예, 수면 따위의 오욕락을 떠나 있는 것을 알고 지계바라밀의 완성을 기한다. 진여의 본성이 시기, 질투, 분노와 같은 번뇌를 영원히 떠나 있음을 알고 인욕바라밀의 덕을 성취한다. 진여의 본성이 몸과 마음 곧 육체적 정신적 상황의 한계가 없어, 게으름 등이 없음을 알고 정진바라밀의 덕을 완성한다. 진여의 본성이 어지러움과 분열됨이 없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순응하여 선정의 덕을 완성시킨다. 진여의 본성이 밝고 지혜로워 조금도 어리석음이 없음을 알고 이에 순응하여 지혜의 완성을 기해 나간다.

이상의 여섯 가지 바라밀다의 설명은 모두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는 방편으로 설명된 것이다. 이것은 곧 진여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마모되지 않는 공덕(無漏性功德)이 개발되는 것이다. 결국 발심이란 이 무루성공덕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진여 자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법신의 모습인 것이다.

사납고 인색한 중생은 걸인도 피해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㉑ 보시를 행하는 자세

若有乞者不知菩薩。體性樂施。菩薩執手歡喜與語。猶如親友。壞彼不知使生知相。彼乞求者得財歡喜。傍人見之亦復歡喜。願此救濟我者長存於世。此乃乞者ß濟。(약유걸자부지보살。체성락시。보살집수환희여어。유여친우。괴피부지사생지상。피걸구자득재환희。방인견지역부환희。원차구제아자장존어세。차내걸자진제。)

菩薩見乞者時身心歡喜。面如滿月。使彼乞者歡喜悅豫如甘露塗心。菩薩和悅色用慈心眼視於前人如飮甘露。譬如有人盜竊他物至市賣之若得速 p心大歡喜。菩薩得施乞者物時。心大歡喜復過於是。(보살견걸자시신심환희。면여만월。사피걸자환희열예여감로도심。보살화안열색용자심안시어전인여음감로。비여유인도절타물지시매지약득속수심대환희。보살득시걸자물시。심대환희부과어시。)

번역

만약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성품 자체가 즐겁게 보시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면, 보살이 손을 잡고 기뻐하며 더불어 얘기하되, 마치 친한 벗처럼 여기며 그 모르던 것을 깨뜨려 서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구걸하는 이가 재물을 얻어 기뻐하고, 곁에 있던 사람이 보고 역시 기뻐합니다. "원하건대, 여기 나를 구제하는 이가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소서."하니, 이에 곧 구걸하는 이가 진정으로 구제 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볼 때 몸과 마음이 기쁘고, 밝은 달처럼 대면합니다. 구걸하는 이를 기쁘고 즐겁게 하되, 단 이슬로 마음을 적시는 것 같이 합니다. 보살은 온화하고 기쁜 얼굴색으로 자비롭게 마음 쓰며,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단 이슬을 먹이는 것처럼 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남의 물건을 훔쳐 시장에 팔되, 만약 빨리 팔아치우면 마음이 크게 기쁜데, 보살은 구걸하는 이의 물건을 베풀게 되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대환희심(大歡喜心)은 이것보다 더욱 큽니다.

해설

보살의 관점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있다. 보시를 베푸는데 있어서 구걸하는 이의 입장에서 한다는 말이다. 주면서도 받는 이가 혹시 속상하지 않을까. 그가 혹시 받으면서도 불쾌하지는 않을까. 구걸하는 이가 구걸하는 행위를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니 보살은 주었다고 우쭐하거나, 스스로 자만한 경우가 없다.

구걸하는 이가 와서 구걸을 할 때, 보살의 본래 성품 자체가 억지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려주어 받는 이의 마음도 즐겁게 만들어준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볼 때 몸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다. 마치 춤이라도 출 듯 흥겹다.

구걸하는 이를 대하는 보살의 얼굴은 만월(滿月)처럼 밝다. 눈빛은 마치 단 이슬을 먹이는 것처럼 온화하고, 자비심으로 한없이 포근하다.

이 〈대장부론〉을 쓴 제바라보살은 도둑이 재물을 훔쳐 빨리 내다 팔아 이익을 챙긴들 보살의 즐거움에 비할까. 이 도둑의 즐거움이 보살의 보시를 베푸는 마음보다 클까 하고, 탐욕을 경계하고 있다.

만약, 어느 중이 보시를 말하거든
아주 어렵게 보시를 말하거든
뛸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소서.
당신이 바로 자비로운 보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납고 인색한 중생은
구걸하는 이조차 피해 달아납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無心에 대해

무심(無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인위(人爲)와 무위(無爲)에 대해 〈장자〉외편의 일화를 끌어와야겠다.

황하의 신이 북해의 신에게 묻는다.

"무엇을 자연이라고 하고 무엇을 인위(人爲)라고 합니까?"

이에 북해의 신이 대답한다.

"소나 말에게 네발이 있는 것을 자연이라 하고 말의 목에 굴레를 씌우거나 소의 코를 뚫는 것을 인위라고 하는 것일세. 그러므로 인위로서 자연을 없애지 말고, 일부러 타고난 성품을 꾸미지 말며, 명예와 이익을 위해 성품의 근본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성품그대로 꾸밈과 조작이 없는 것을 가리켜, 천진(天眞)의 모습 그대로를 무위(無爲)라 하는 것이네."

이어 장자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이어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잘라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모든 마음의 병은 소유욕과 집착서 비롯
한 생각 일어나되 머물지 않아야 자유인

다음으로 짧게 설명할 부분은 무주상(無住相)에 대해서다. 무주상의 반대는 유주상(有住相)이다. 유주상이란 생각의 노예가 되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나(我)를 드러내고 앞세우려하는 중생심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주상이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우며 흔적과 자취도 없는, 비어 있는 그대로의 충만을 의미한다.

유주상(有住相)이 인위(人爲)라면 무주상(無住相)은 무위(無爲)라 할 것이다.

또 하나 간단히 설명할게 있다. 불교용어인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에 대해서다. 여기에서 루(漏)는 뭔가 틈이 있고 구멍이 있어 세어나간다는 의미이며, 번뇌를 의미한다. 속세(俗世)를 루세(漏世)라고도 하는데 번뇌에 끄달려 사는 것이 유루(有漏)라면, 번뇌에서 자유로운 해탈자의 삶이 무루(無漏)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심(無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유심(有心)에 대한 설명 이후로 해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무심(無心)과는 거리가 먼 유심(有心)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뜻이 작동하므로 일으키는 수많은 생각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재물과 사랑, 명예와 먹거리, 목숨연명으로 헐떡이고 흔들린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다투고 토라지며 벽과 울타리를 만든다. 몸과 마음은 진흙탕에 이미 빠져 있는데도 그럴듯한 명분과 실리를 내세우며 속고 속이는 전쟁놀이를 즐긴다. 끌어당김과 빼앗는 에너지로 집착과 소유욕에 불을 당기며 배반과 배신을 일삼는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익이 되는 곳에서는 단거리선수처럼 빠르고 봉사와 희생이 따르는 곳에서는 거북이처럼 더디다. 가장 순수해야할 사랑 나눔에도, 한 달 수입과 튼튼한 직장이 우선시 되고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도 집단이기주의가 앞서가며 성직(聖職)이 아닌 돈 버는 직업으로 전락해가는 개인이기주의의 전성시대다.

그럼 이쯤해서 무심(無心)을 설명해야겠다. 꾸밈과 조작이 없는 것이 무심이다. 드러냄과 갖출 것이 없는 것이 무심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무심이요. 해탈자의 자유로움이 무심이다. 이치를 바로 보고 더함도 덜함도 없이 얽매이거나 끌려가지 않는, 일 없는 마음이 무심(無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앓는 병은 유심(有心)의 소유욕과 집착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집착심을 벗어버리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진다. 쥐고 있는 한, 자유는 오지 않는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면 생각의 노예가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무심(無心)은 소유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운 참사람을 의미한다.

참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되는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000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색난의 맥을 이어간 개금·개채의 장인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⑨ 하천(夏天) 스님

색난·일기 스님의 직계 제자
문헌 통해 활동 시기 등 가늠
주로 서남 해안 중심으로 활동
'匠'으로 불려… 소목장 추정



18세기 전반 하천 스님의 만든 대표작인 1727년 대구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나무로 만든 불상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대의자락이 수직으로 늘어진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하천 스님이 1730년 4월에 만든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보살좌상. 현재는 김천 대휴사에 봉안돼 있으며, 최근 조사과정에서 본래 있던 사찰이 확인됐다.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8세기 전반에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서 활동한 하천(夏天) 스님은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색난(色難, 色蘭) 스님과 일기(一機)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彫刻僧)이다. 하천 스님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불상을 제작하거나 개금(改金)이나 개채(改彩)를 주로 하였다. 현재 하천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목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5건 9점이 있고, 불상을 중수·개금한 기록은 3건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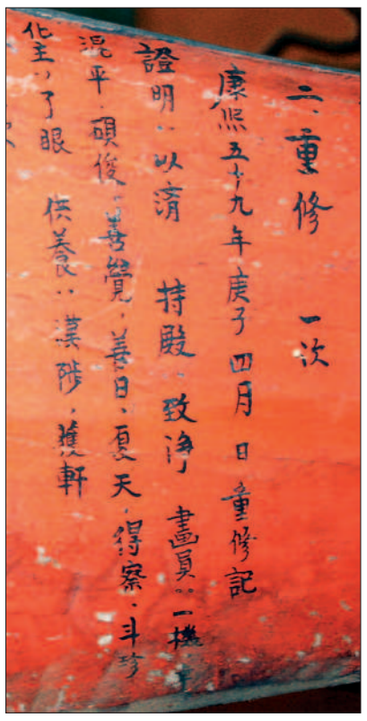
아직까지 하천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현판(懸板) 등의 문헌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지역, 조각승 계보, 불상 양식 등을 밝힐 수 있다.

하천 스님은 처음으로 전남 구례 각황전 불상 제작에 참여하는데. 이 건물은 670년에 의상대사가 건립한 삼층장륙전으로, 내부에 장륙존상(丈六尊像)이 봉안되었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소실되어 1699년에 벽암대사의 제자인 계파성능(桂波性能) 스님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 4년 동안 중창하였다. 이후 숙종의 어필(御筆)을 받아 각황보전(覺皇寶殿)으로 전각 명칭을 바꾸었다. 전각 내에 봉안된 석가삼세불좌상(석가불, 아미타불, 다보불)과 목조보살입상(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적보살)은 대형목조불상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불상 제작에 하천 스님은 24명의 조각승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하천 스님은 스승인 색난 스님과 같이 1705년 6월에 경남 하동 쌍계사 보현과 문수동자상, 1707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불상, 1709년에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과 목조삼존불좌상(광주 덕림사 봉안, 1980년 소실)을 제작하였다.

그후 하천 스님은 1720년에 일기 스님과 전남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새롭게 색을 칠하고[改彩], 1722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장흥 보림사 금강신(金剛神)을 중수한 후, 1724년에 필영(弼英) 스님과 종혜(宗惠) 스님 등과 보림사 나한상을 중수(重修)하였다. 또한 하천 스님은 1726년에 고흥 금탑사 북대암(서울 동대문 지장암 봉안)과 문수암(고흥 송광암 봉안)에 봉안할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종혜 스님과 만들고, 172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구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석준 스님, 득찰 스님 등과 제작하였다. 특히, 스님은 1730년 4월에 경북 김천 봉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보살 1구 김천 대휴사 봉안)을 조성하고, 8월에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개금하였으며, 8월부터 11월 19일까지 경남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좌상(창녕포교원 봉안)을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하천 스님의 활동 시기는 1703년부터 1730년까지이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하천 스님은 1680년대에 태어나 1700년대부터 색난 스님 밑에서 수련기를 거친 후, 1720년대 수화승으로 호남과 영남 지역에 불상의 제작과 개금에 참여하였다. 스님은 1726년에 금탑사 북대암과 문수암에 봉안할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종혜 스님과 제작한 것으로 보아 나무를 직접 조각한 소목장(小木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천 조각승 계보는 색난(-1680-1730-), 일기(-1698-1720-)→ 선각(-1703-1720-), 선일(-1718-1720-), 하천(-1703-1730-), 석준(-1705-1730-), → 성찬(-1727-1777-), 종혜(-1726-1730-), 굉척(-1725-1727-)으로 이어진다. 스님은 고흥 금탑사 본사와 말사 등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하여 스승인 색난 스님과 마찬가지로 고흥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스님은 전남 구례, 고흥, 순천, 장흥, 경남 하동, 창녕, 대구 등에 위치한 사찰에 불상을 제작하였다.



사천왕상 중수 묵서. 하천 스님은 1720년에 일기 스님과 같이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중수했다.

하천 스님이 수화승이 되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봉안한 삼세불좌상으로, 본존은 전체 높이가 137㎝로,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소라모양의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깨달음의 상징인 육계는 거의 표현되지 않았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넓적한 얼굴에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눈을 반쯤 지그시 뜨고, 코는 원통형이며, 입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거의 수직으로 늘어진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다른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불상의 뒤에는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둘렀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어 상단에 연판형으로 주름이 접혀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 밑으로 연판형으로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펴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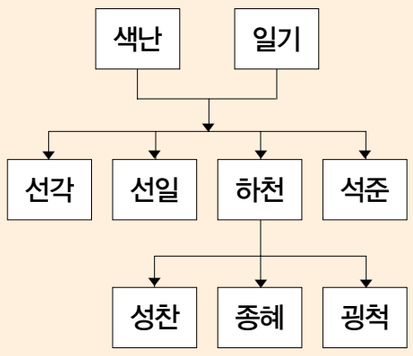
최근 새로 발견된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묘법연화경〉 변상도 위에 묵서로 '봉곡사(鳳谷寺)'와 후령통을 감싼 황초복자를 묶은 종이 띠에 '증명(證明) 수정(修淨)'이란 글씨를 단서로, 현재 김천 봉곡사에 소장된 현판을 조사한 결과, 1731년에 작성된 현판 '영산전창건탱불등상단확기'에 참여한 스님들이 동일하여 대휴사 보살상이 1730년에 하천 스님이 만든 석가삼존불의 협시보살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보살상은 높이가 76.0㎝인 중형상으로, 상반신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보관 안쪽에는 정수리 부분에 두 가닥으로 묶은 작고 단순한 형태의 보계(寶)가 있고, 양 어깨에는 둥글게 말린 보발(寶髮)이 세 가닥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타원형 얼굴에 살짝 뜬 눈은 거의 일자형으로, 눈꼬리가 위로 약간 올라갔고, 삼각형의 코는 콧등이 평평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짧게 U자형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삼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중앙에 한 가닥이 길게 늘어져 끝단이 반원형으로 길게 늘어지고, 좌우로 대의자락이 두 가닥 접혀서 흘러내리고 있다. 또한 왼쪽 소매 자락은 연판형으로 무릎을 덮고 있다.

하천 스님이 만든 불상은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의 신체비율을 따르고,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대의 처리가 색난 스님이 만든 불상과 유사하지만 단순하고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하천 스님은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불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금이나 채색이 훼손되면서 개금과 개채 불사에 참여하였다.

하천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8세기 전반에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전남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유물전시관 목조보살좌상, 광주 신광사 목조보살좌상, 대구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부산 칠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경남 마산 법성사 목조보살좌상 등이다.

하천 스님의 조각승 계보







삶의 이야기 '생활툰' … "'어라'는 자신 투영된 화두"

카툰집 〈어라, 그런대로…〉 발간한 지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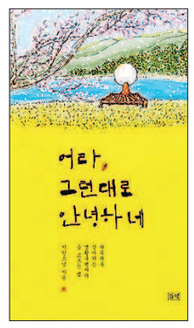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스님이 만화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선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스님들이 SNS를 통해 불교를 만화로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지찬 스님은 요즘 가장 핫한 불교 만화가다.

지찬 스님은 2012년 블로그를 통해 만화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보편화되면서 스님의 웹툰은 큰 인기를 얻는다. 특히 하체보다 더 커 보이는 상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2등신, 만 가지 표정을 넉넉히 담아내고도 남는 크고 둥근 머리, 늘 좌충우돌하지만 '이 뭣고?' 자세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동자승 같은 승려 '어라 스님'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실제 어라 스님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으로도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어라 스님은 소위 '오너캐(오너와 캐릭터 합성어)'다. 작가 자신이 그대로 투영된 캐릭터인 어라 스님에게는 일종의 화두다.

"'어라'는 제 말버릇이기도 하고, 궁금함과 호기심을 표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뭣고'와 같은 화두를 만화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뭣고'를 좀 쉽게 이야기 하면 '어라'입니다. '어라'는 스스로 묻고 성찰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세이자 캐릭터라는 일종의 만화적 장치이죠."





불교 만화가 지찬 스님(사진 왼쪽)과 스님이 최근 발간한 카툰집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이등신 캐릭터 어라 스님의 좌충우돌 '생활·수행기' 담아
사이다 같은 해학·유머 강점

"어라는 내 분신, 호기심의 원천"
일상 관찰하면 소재 '무궁무진'

어라 스님은 일종의 '생활툰'이다. 지찬 스님은 삶의 이야기들을 어라 스님을 통해 풀어나간다. 어라 스님의 가장 큰 매력은 이야기에 있다. 다분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가볍지 않다. 불교를 이야기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것이 지찬 스님의 카툰의 큰 매력이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사이를 균형감 있게 절묘히 이어내는 것은 작가 특유의 해학과 유머에 있다.

남녀노소, 종교에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박한 이야기들이 미소를 짓게 한다. 아기자기한 인물들과 미소를 짓게 하는 유머와 재치로 빚어낸 짤막한 이야기에는 수행자의 세상과 마음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소재는 주로 주변에 찾습니다. 지인의 이야기, 제 경험담을 평소에 잘 관찰하고, 메모해 소재로 사용하죠. 그리고 최대한 유쾌하고 재미있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각색을 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가볍지 않게 작품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스님은 최근 자신이 4년 동안 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이야기를 선별해 카툰집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로 묶었다. 웹에서 만날 수 있던 어라 스님을 출판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스님이 SNS를 통해 만화를 그리니까 대중들이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행과 포교의 일환으로 봐주신다면 더 감사하죠."

현재 지찬 스님은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2014년에는 불교카툰신문 '만만(卍卍)한 뉴스'를 창간하기도 했다. 최근 관심을 갖는 것은 '만만한 뉴스'의 변화이다. 스님은 참여작가들과 논의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킬 복안을 갖고 있다.

"'만만한 뉴스' 참여작가들도 대부분 본업이 있으니까 꾸준히 연재물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라 스님' 시리즈나 에세이도 계획 중입니다. 무엇이든 지금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톨릭·도교 年畵 판화 '한자리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8월 21일까지 소장품 특별전

중국 년화(年畵) 판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원주 치악산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7회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 특별전으로 중국 년화 판화 소장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2000여 점의 중국 년화 판화 중 엄선된 100점이 공개되며, 작품 중에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중국 기독교 년화 판화도 있다.

전시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천주교 년화 판화인 연옥도 '연령잠고(煉靈暫苦)'(130×66㎝)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연령잠고'는 연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영가의 모습을 3단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연령잠고'에는 연옥 중생들이 예수의 보혈을 받는 장면을 청나라 변발을 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애긍을 하는 사제와 성도들도 청나라 복장이다.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는 장면에도 청나라 복장을 한 연령을 천사가 인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中기독교 년화 세계 최초 공개
연옥서 구원하는 메시지 담아
5월 27~28일 국제학술대회도

불교 년화 중 대표적 작품은 '서방극락세계도'이다. 석판화가 중국에 소개된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에 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여 점이 남아있지 않는 소주 지역 년화 5점도 전시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한선학 관장은 "중세에 유행하였던 서양의 연옥도를 중국화 시켜 중국 백성들이 사랑한 연화판화로 제작한 것"이라면서 "천주교가 중국 민중 속으로 뿌리 내리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종교사와 판화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중국 천주교 년화 판화인 '연령잠고(煉靈暫苦, 130×66㎝).' 고판화박물관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중국 년화 판화이다.

이와 함께 고판화박물관은 5월 27~28일 양일 간 '중국 년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중국 년화의 최고 권위자인 보송년 중국중앙미술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언문 천진미술학원 교수, 일본의 나가이 나라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국 년화에 대해 한 관장은 "중국 년화는 중국 문화를 판화로 이미지화 해 보여주는 중요한 콘텐츠"라면서 "중국에서 중국 문화의 원형질 중에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로 중국과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본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종교 넘어선 서예가의 유묵들

통도사성보博, 7월 24일까지 김광업 유묵 전시

한국 근현대 서예가로 잘 알려진 운여 김광업의 유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오는 7월 24일까지 2층 로비에서 '제20회 작은 전시회- 운여 김광업 소품(小品) 유묵(遺墨)전'을 개최한다.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광업 선생은 서울대 의과대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4후퇴 때 남하한 뒤 부산 최초의 서예학원인 동명서예학원을 개설하고 부산미협 회장과 흥사단 부산분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던 중 1976년 미국 LA에서 타계했습니다.

또한 김광업은 일제 강점기에는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을 따라 광복운동에 참여했다. 기독교 장로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종교에는 구애받지 않았고, 도리어 스님과의 교류가 더욱 돈독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작품을 기증하신 석정 스님은 운여 김광업의 작품을 '선(禪)의 미술'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번 전시는 김광업의 작품을 통해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2-1001 **신성민 기자**



운여 김광업의 작품 〈달마도〉.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 등의 항균,탈취
70ml (휴대용)×1병 = 3,900원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 3칸 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다그라스 목재기둥 : 180×180×2,700㎜ 다그라스 대들보 : 180×240㎜
다그라스 목재도리 : 108×180㎜ 다그라스 목재서까래 : 100×100㎜
목재판매 :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 300×300×300㎜
■ 가격 : 평당 1,500,000
원하는 평수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선택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 290,000~~ ➡ 할인가 : 190,000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자재기둥 : 110×90×400 도리 : 80×35 중간대 :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5.11~2015.5.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6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7	혜총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혜총	(주)조계종출판사
8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틴텐최된	불광출판사
9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10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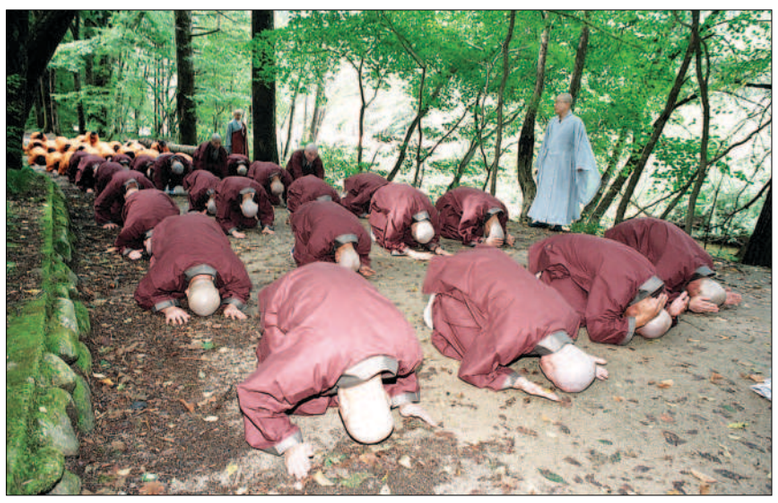


지금 행복하지 않으세요?… "단기출가학교로 오세요"

출가학교

정념 스님 지음 | 모과나무 펴냄 | 1만 6천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이 경내서 삼보일배 수행을 하고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출가 입산 수도 하산 등 4개 구성
끝없이 숙이며 '나'를 찾는 과정
3천여명 배출…참가자 경험담도
최근 계층 · 연령별로 세분화 등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2004년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9월에 1개월 과정의 '단기출가학교'를 열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신청자가 몰려 불교계에서는 드물게 입교 경쟁률이 4~5대 1을 훌쩍 넘었다. 이는 곧 불교계에 출가 열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출가 문화를 정착시켰다.

단기출가학교는 한국불교사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불교계의 대표적인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 가운데 150여명은 출가자가 되기도 했다. 참가 연령대도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불교의 큰 문제로 대두된 출가자 수 감소라는 소나기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도 비켜가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로 개교 13주년을 맞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출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체재로 운영된다. 새롭게 변화한 출가학교는 기존의 단기출가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계층 · 연령별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수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체험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2박 3일 프로그램부터 △1주일간 출가를 체험해보는 '마음출가학교' △고령자 위주의 3박 4일 출가체험인 '나도 출가' △여성을 위한 출가학교(3박 4일) △외국인 출가학교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월정사 출가학교를 이끌고 있는 정념 스님이 〈출가학교〉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부제로 '처음 만나는 자유'가 붙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을 잘 모른다. 돈과 명예,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다. 저자인 정념 스님은 이미 10여 년 전에 '출가학교'를 시작해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곳에서는 스님과 똑같이 머리 깎고 산사생활을 하지만 외형적 변화를 체험하는 것 보다는 '더 비우고 낮추는 수행생활'의 내적 변화에 무게를 둔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는 정진과 공동체 생활은 자기 내면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된 일과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육체가 힘든만큼 오히려 정신은 맑아진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이 행복해지는 법을 '출가학교'를 통해 공유했고, 다시 〈출가학교〉를 펴낸 정념 스님은 책 머리서 이것이 '출가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그리고 책은 출가, 입산, 수도, 하산 등 4개의 과정으로 구분해 참가자들의 경험담도 함께 실었다.

책 속에서는 많은 심경의 변화들이 소개됐다. 출가학교 28기에 참여한 임원종 님은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한 사람을 지독히도 미워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의 임원종입니다. 제 인생이 너무 하찮아 부끄러웠고, 그런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중략) 자신이 가여워 끝없이 절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힘이 들면 들수록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맑은 물로 샤워하듯이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출가학교 11기에 참여한 박소연 님의 아버지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큰 딸을 보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런 애틋한 편지를 썼다. "네 덕분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구나. 고맙다. 너도 이 생의 아픔을 모두 잊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 인가보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련다. 결에 잠시 머물러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란다. 딸아 잘 가거라"

출가학교 6기에 참여한 팽정원 님은 출가학교의 느낌을 이렇게 소개했다. "오랜 중국 생활을 접고 돌아왔을 때, 처음엔 왠지 그리웠습니다. 무언가 두고 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평온한 행복, 그건 깨어 있어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빈 그릇으로 있어야 채울 수도 있음을"

저마다 구구절절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이다. 모두다 마음의 변화가 가져온 큰 선물이다.

이 책의 무대와 테마는 〈출가학교〉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라는 수행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자인 정념 스님도 '출가학교'를 통해 단순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출가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라는 내면의 삶, 즉 출가정신에 집중한다고 말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출가학교〉의 제 1부 '집을 나서다' 편에서 정념 스님은 참가자들의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작하는 글은 '지식은 넘치고 지혜가 부족한 세상'과 '물질은 풍요롭고 마음이 가난한 세상'을 꼬집고 있다.

또한 우리들이 아는 '출가'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의 세계라 잘못알고 있다. 이러한 출가에 대한 오해도 풀어준다.

제 2부 '산에 들다'에서는 그동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삶을 위한 연습들을 소개한다. 출가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물들인 옷을 똑같이 입는 것이다. 말을 삼가거나 묵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체 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절집 식사법인 발우공양을 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말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다.

제 3부 '새 길을 가다'에서는 '출가학교'의 정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예불과 108배, 참선 등의 정진과 발우공양의 일상은 하나 하나가 가르침이고 실천이다. 배워서 안다는 것에 대한 점검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말투가 부드러워졌는지, 행동이 겸손해졌는지, 삶이 행복하고 평화로운지, 이웃에게 따뜻해졌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 제 4부 '길을 나서다'에서는 '출가학교'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한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사바세계의 중생계가 아닌 아름다운 꽃밭으로 보이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전한다.

사정이 있어서 입교하고 싶었지만 뜻을 못 이룬 이들이 있다면 책을 통해 선배 참가자들이 출가학교서 배운 깨달음을 접해 보자. 참가했든 안했든 삶 속에서 이 귀중한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분명 행복한 수행자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셰프들의 음식 스승 우관 스님의 마음으로 담은 사찰음식 이야기

보리일미

우관 지음 | 램프온더문 펴냄 | 2만 3천원





"보리(菩提)란 산스크리트어의 〈Boddhi〉를 음역해 '최상의 진리를 깨우친 지혜의 깨달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미(一味)는 한 맛으로 '한'은 모든 것을 총섭하는 큰 한 가지란 의미죠. 즉 보리일미는 '깨달음의 한 맛'입니다. 모든 맛을 아우르는 깨달음의 한 맛이야말로 사찰음식이 추구하는 최상의 맛입니다."

음식 만드는 모든 일이 수행 아닌 것이 없다는 〈보리일미〉의 저자 우관 스님 〈사진〉은 자연 농법으로 농사 짓고, 절 주변에 지천인 산나물의 순과 줄기, 꽃과 열매 등의 식재료를 채취해 음식을 만든다. 음식을 만들겠다고 뿌리 채 거두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지만, 솎아주듯 채취하면 열매의 성장을 도와 그 자연 또한 생명이 증장되니 사찰음식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상생의 음식이라 말한다. 그러니 자연과 내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라 생각하면 어떠한 식재료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사람들은 늘 보았던 것, 늘 먹었던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주위를 보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지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못보고 지나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뿐입니다"며 "그것이 꽃이든, 줄기든 잎이든 열매든 국도 하고 밥도 하고 김치, 장아찌도 담고 떡과 과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손쉬운 조리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고 밝힌다. 또한 우관 스님은 "나는 부처님께 올릴 팥죽을 끓일 때 어떻게 해야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궁리 하며 맛있어져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정말 맛있는 팥죽이 끓여집니다. 상대방을 기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나의 기운이 온전하게 가동이 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음식철학을 가진 우관 스님께 음식을 배우기 위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을 찾았다. 미슐랭 별 셋 레스토랑 라스트랑스(L'Astrance)의 프랑스 천재 요리사 바르보는 이렇게 말했다.

"된장국에 넣을 애호박을 칼로 자르지 않고 나무 수저로 툭툭 자르고, 채소를 손으로 끊어 넣는 걸 보고 왜 칼을 쓰지 않냐고 스님께 물었더니,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칼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식은 요리를 통해서 제 2의 삶이 부여된다는 제 음식철학과 스님의 음식하시는 모습에서 서로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한편 이 책은 우관스님의 라이프스타일이 녹아든 사찰음식을 이야기와 함께 화보로 담은 책이다. 그 계절에 가장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몰라서 먹지 못했던 식재료에 주목했다. 흐르는 물도 아끼는 마음으로 고구마잎, 돼지감자 잎, 어린 수박 등과 같이 남들은 잘 먹지 않고 버리거나 홀대하는 식재료들을 이용한 음식들을 소개한다. 순부터 줄기, 뿌리, 열매까지 하나의 식재료를 온전하게 다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을 전하며, 식재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할 때는 껍질과 뿌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실뿌리등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 가능한 통째로 사용하였다. 식재료의 약성을 활용하고 발효장과 발효액으로 맛을 내어 입에는 순하고 소화가 잘 되어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음식들이다. **김주일 기자**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은 『대승기신론』의
가장 탁월한 주석서인 원효대사의 『소별기』!



대승기신론 소·별기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를 통해
누구나 혼자서 책을 이해하고
대승의 정수와 원효대사의 사상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원효 저 | 최세창 역주 | 신국판 양장 | 672쪽 | 값 30,000원

불교 수행법 중 가장 쉽고 성취가 빠른 정토 및 염불 수행!

정토삼부경 역해

서주 태원 번역 및 해설 | 신국판 양장 | 632쪽 | 값 30,000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해설과 주해를 통해 알기 쉽게 만난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염불수행은 누구나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무생법인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바라본 선사들의 깨달음!



자아와 깨달음, 심리학으로 통하다

최명희 지음 | 신국판 | 무선 | 380쪽 | 값 17,000원

선사들이 어떻게 자아와 직면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일화와 어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조사선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최초의 책.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달라이라마制, 흔들릴 우려 거의 없다”

오캇상 달라이 라마 북미 대변인, 후계자 문제 언급

“달라이라마 열반 후 중국 정부가 후계자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참여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달라이라마 북미지역 대변인 케이도르 오캇상이 ‘미국공영방송국’과 인터뷰서 달라이라마 후계자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달라이라마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적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지만 달라이라마의 실질적 나이는 이제 중국과 티베트인들 모두가 걱정해야할 시기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달라이 라마는 후계자 정립에 대해 3가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캇상 대변인은 “하나는 티베트의 오랜 전통적인 후계자 선정 방법으로 후임을 고르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로 환생했다고 추정되는 어린 아이를 지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티베트 승려 의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법은 달라이 라 마 가 환 생 대 신 정 신 적 발 현(emanation)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달라이라마는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달라이 라마의 제안을 시행할 경우, 티베트 망명정부 및 달라이 라마의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남는다. 옷카상 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티베트인으로서 15대 달라이 라마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캇상 대변인은 후계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후임 달라이라마를 세우려하고 있다. 달라이 라

후계자 관련 달라이라마 제안 해석
오캇상 “15대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
중국 정부 개입 우려 언급하기도



북미지역에서 달라이 라마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도르 오캇상이 미국공영방송국과 인터뷰서 달라이 라마 후계자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출처=미국공영방송

마가 입적하면 2인자인 판첸 라마가 달라이라마가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년을 찾아내 후임 달라이 라마로 키워야 하는데, 지금의 11대 판첸 라마는 중국 정부가 세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조롱하거나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촉수를 뻗치면서도, 15대 달라이 라마 후계자 문제에 대해 우리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달라이라마는 지난해 “(중국에 종속된)우매한 달라이라마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 “이런 슬픈 상황을 생각하면 전통을 끝내는 게 낫다”고 말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혈통은 환생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의 환생, 그의 혈통 단절과 지속을 결정하는 권한은 중국 중앙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롭상 상가이 총리는 “마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내가 차기 교황을 정할 테니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자에 대한 서양인의 오해 5가지

허핑턴포스트, 채식주의 등 잘못된 선입견 소개

미국에서 불자로 살아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다. 서양 사람들은 불교 뿐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전반적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선입견도 함께 갖고 불자들에게 접근한다.

‘허핑턴포스트’는 4월 29일(현지시간) 서양인들이 갖는 불교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소개했다.

불자는 채식을 한다

일부 대승불교 국가 스님 및 신도들이 철저하게 지킬 뿐 일반적인 불자들은 무조건적인 채식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처님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없었다. 부처님은 걸식(乞食)으로 식사를 해결했으며, 제자들에게는 식사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금했다. 초기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제공해준 음식은 청정하다”고 말씀했다. 남방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재가신자에게 육식을 금해야 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죽이거나 다른 이에게 죽이라고 시켜서 먹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손님으로 불자를 집에 초대할 경우 사전에 채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획일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대승불교와 금강승불교에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에 익숙하다.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빨리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르마(Dharma), 반야(Prajna), 수트라(경전), 카르마 등이 대표적으로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단어일 뿐이다.

불교는 전통에 따른 특별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

많은 서양인들은 불교적 신념과 가르침이 불교만의 독특한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 불교 교리를 배우다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보편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과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과학자들 마저 놀랍게 받아들인다.

천국(극락세계)을 믿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불자들이 천국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불자들이 믿는 환생이라는 개념은 “죽으면 다른 누군가로 다시 태어난다”고 정의내릴 단순한 것이 아닐 뿐이다.

불교에서는 영속성이 없는 극락세계를 포함해 매우 복잡한 사후 세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천국(극락세계)에 대한 언급은 부처님 당시 설법에서도 나온다.

불자들은 물질만능주의자가 없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라고 가르쳤다. 이에 당시 제자들은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승려 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영적 해방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보형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불교 승려 또 ‘난자 피살’ 당해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세력 범행 추정 테러 잇달아

방글라데시 노승(老僧)이 한 사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슬람이 국교인 방글라데시에선 최근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및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영국 언론 ‘Mirror’는 5월 14일 “불교 승려 몽소위 우 착(Mongsowe U Chak · 75)이 혼자 거주하던 한 사원 내에서 피살됐다”며 “시신은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한 목격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어떤 이슬람 단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임을 자인하지 않았지만,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불자 · 힌두교인 · 개신교인 등에 대한 난자 테러 일부가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소행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급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서 불교 · 힌두교 · 개신교 등에 대한 살해 테러가 급증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0월 5일 이슬람 세력에 의해 피살당한 방글라데시 마웅 슈 우(Maung Shue U) 스님을 추모하는 미얀마 승려들.
사진출처=nydailynews

경찰은 “몽소위 스님이 피살된 사원이 위치한 Naikkhangchhari 지역은 다카 지역으로부터 211마일 떨어져있기 때문에 살해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근 무신론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살해 및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달반(Bandarban) 지역경찰서장은 ‘Guardian’과 ‘Jashim Uddin’과 인터뷰서 “우리는 사원 내에서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고, 4~5명이 사원에 침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글라데시 세속 정부는 ISIS 또는 알카에다 등 무장 세력이 국내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며, “방글라데시 내부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의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글라데시 내 테러위협은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의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73) 대표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며,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니자미 지지 세력과 정부 간 유혈사태 등 최후의 사태도 우려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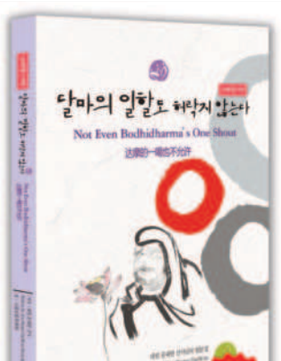
한편 니자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독립을 반대하며 친 파키스탄 민병대와 함께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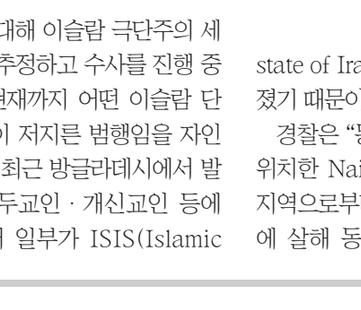
석가탄신일 축하하는 베트남 스님들 사월초파일을 맞아 전 세계에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5월 10일 베트남 닌빈에서는 베트남불교의회(the Buddhist Church of Vietnam)의 봉축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개회를 알리는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법에 따라 우리들은 극단주의를 배척하고, 인류평화와 행복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염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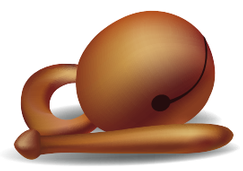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한 부처님의 법문은 구원의 가르침이니 이를 따르는 이는 선하고 복된 삶을 누린다.

- 별역잡아함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비구,비구니스님, 불자님께

소승은 20여년간 부항, 사혈, 지압으로 신경통, 위장병, 대장염, 혈액순환장애, 초기중풍,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완치한 경험이 많습니다. 인연되는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북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9 선향선원 신흥사 선 문 합장
054)434-2452. 010-3550-0132
e-mail : chadhyun@naver.com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기도스님 구함. 절에서

심부름하고 공부할
행자구함. 컴퓨터 전산
가정교사 구함(사찰)
(부산)
010-3840-4355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비구 부전 스님

잘 모십니다
(세수 62세이하)
예불은 기본만
010-3499-3721
010-8514-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행자승

(불교에 입문하실)
을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울산)
010-3034-2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지역)
010-5269-93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60대 초반 비구승입니다

스님이 안계신 사찰이나
암자 구합니다
(가정생활 상담합니다)
010-4936-9929

신통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특수한 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호국종찰)
대중이 총 5명으로 한가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041-734-8730 / 야간 010-4733-84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수계 후 공부 100% 지원. 큰절 또는 감포도량 택일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 우학 스님)
■기 간 : 21일(3주)
■참 가 비 : 15만원
■자 격 : 50세 미만의 독신 남자
■문 의 : 밀허 스님 ☎ 010-8852-007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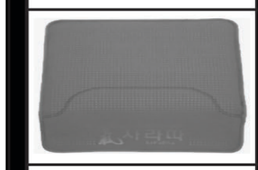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숲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 반야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 위 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 일부 주거지
- 건 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6억 8천

연산공인중개사 051-863-6622
제 26320-2015-00027호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논산시암자, 인법당이며 산신각 주창장 있음
- 토지 610㎡. 건물 96㎡
- 마을조용함, 국유지 사용
- 시설 깨끗하며 리모델링 했음
- 양도가액 : 2억 2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1700평 ◎ 대지 : 55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외평 ◎ 요사 : 40평
◎ 양도 : 37억5천 ◎ 양도 : 10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상동면 산속의 사찰
- 총부지 : 3,795평
- 주차장 : 70대 이상 주차가능, 대형버스진입
- 건물 : 법당,요사채,삼성각,용왕각,종각
- 요양원도 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 11억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중랑구(급)사찰

- 양도 5억 2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
- 2층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 역세권, 전망좋은 사찰
- 뒷편은 산이고 옆으로 산책로가 있음
-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군산읍 족실길 52
- 진악산 등산길 옆 선공암 절
- 조용하고 금산 전경이 다 보임
- 대지 454평, 법당 27평 요사 2동(방 4), 거실 大
- 가액 : 3억 5천(절충가)

010-4355-6356
010-3401-6356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읍 관음리 (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 (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농지 : 전 221평 (귀틀집 농막 6평 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 기타 :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구거부지도 사용 중

010-8555-44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3천5백만원, 월7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부처님 보시하겠습니다

- 삼존불(본존불, 관세음, 지장보살, 소불임) 종(6관), 징, 엠프, 목탁, 요령 기타 불기 일체 암자에서 부처님 봉안하고 수행중 노령으로 건강상 하산하였습니다. 도와 주시는 셈치고 비용으로(운송 기타 비용) 150만원(종 하나 값도 안되는)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010-2999-565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 아차산역 5분거리
- 인체리어 잘되어있음.건강상 급안내
- 약50평(2층,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베란다, 화장실2개
-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약사) 동불임
- 탱화는 후불탱화, 지장, 신중,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법당만도 가능. 상담 후 결정
- 불교행사 편하게 할수 있는 절
- 가액 : 2,500만원, 월 160만원

010-2333-300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없음

010-3742-5925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서울까지 60~40분 소요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실입주금 3억 (융자 1억5 천)

010-4234-25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영해면
- 대지 300, 전 45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8천만원 (새마을금고융자 3200만원)
- 사찰에서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대진해수욕장10분거리 (답사후 가격 절충가)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절충 가격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월출산 국립공원(내)
- 법당, 요사, 와가, 목조건물 2동
- 산신각 1동, 토지, 임야포함 1천평
- 계곡있고 경관좋음
- 시내차로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26-9588

대형포교원(도심사찰)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2
- 3층: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 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별장식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1층 38평
- 방 2칸, 욕실, 도시가스, 주차장, 앰프시설
- 법당, 약사여래석불, 관음보살, 비품일체 등등
- 가액 : 5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9150-0029

팬숀 별장식 토굴

- 위치: 경북 북부지역
-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1급수
- 신축건물 2년반
- 계곡 끝자락에 마지막집
- 땅 500평, 건평 30평, 농지 3필 500평
- 가액 : 2억 2천

010-5424-4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농장(급) 안 내

- 위치 : 보은읍 용암리 산아래
- 대지 1,570㎡, 전 860㎡
- 축사 413㎡ 관리사 77㎡
- 방2, 거실, 욕실, 경동자동온수기(대)
- 2차선접, 한우사육, 양봉, 절 가능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074-307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위치 교통 좋은편)
- 평수 : 28평 2층건물의(1층)
- 방2, 방큼,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집기 600만원 (개인사정으로)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6727-6060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 부지 : 217평(대지 83평, 종교용지 134평)
- 법당 : 20평(목조 기와 단청)
- 요사채:33평, 별채2동, 방7개, 거실, 다용도실
- 기타 : 차고, 창고2, 신도샤워실, 야외화장실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488-33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주차

010-7583-12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 심야전기 2대
- 삼존불 영가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10-3723-0777

전원주택지 명당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대지 : 255평, 황토방과 가건물
- 특징: 호수와 계곡이 인접한 정남향 명당, 토굴과 공방 전원주택 최적지
- 애착을 가진 땅이나 이사관계로 긴급 처분
- 가액 : 1억4천(상담후 조절 가능)

연락처 010-5598-2732
010-9943-2224

사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 불사 및 노후보장 좋은 절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삼존동불, 인등 300등
- 전법수행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또는 전세 1억 2천 가능
- 좋은 인연(공찰 주지로 떠남)

1899-1042
010-3679-108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부시외버스 정류장 부근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영단 소불 냉,난방
- 조명 음향 시설 등 완벽 약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안내 방문 후 조정 가능

H·P 010-2500-151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 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 거실주방, 방2개, 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ㅌ룽파 린포체

〈1〉 수행 여정의 시작 ㊤

두려움과 싸우는 '전사'가 되라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에서부터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 책은 우리 내면의 모든 두려움에 대해 다룬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포와 불안의 근본 근원에 대해 얘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전사'의 의미

우리가 진리dharma라고 부르는 붓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 참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 명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들은 근본적인 면에서 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삶과 영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비겁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두려워한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종교나 영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두려움 없음'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탐구하고 훈련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전사입니다.

'전사'라고 하면 전쟁터에서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의 전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용기를 지닌 수행자를 뜻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근본적으로 용감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전사의 목표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인 혼란스러움에서 오며, 혼란스러움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하나가 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바깥세상과 관계를 맺지 못해 바보나 어릿광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저물어가는 태양의 정신상태 the setting sun mentality'이며 사람들은 두려운 순간을 모면하려 술에 취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위대한 동쪽의 태양 the Great Eastern Sun'은 각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밝히는 태양입니다. 머리를 꼿꼿이 들고 어깨를 당당히 편 자세로 한껏 고양됨을 느낍니다. 아침 10시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태양과, 어두운 전구 불빛 아래에서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원숭이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데 주된 방해물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직면하지 않고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발견하려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아야 하며, 그것이 전사의 토대이자 두려움을 정복하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마주하여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명상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물질주의에 젖어 마취 상태에서 잠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었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되길 바라지만 참된 종교적 수행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카르마라고 알고 있는 인과의 법칙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물어가는 태양의 신경증에 푹 잠겨 스스로에게 상처 입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 몫이며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해봐도 곧 깊은 후회만 밀려옵니다. 우리 자신을 돕기보다 습관화 된 패턴에 따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곧 당신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미숙아가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라?

우리는 자신에 대해 살펴볼 결심을 하고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 '프라이버시'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버시와 여기서 사용하는 '프라이버시'의 뜻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안달복달하고 있다면, 자신의 진정한 프라이버시를 방해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감정과 생각에 완전히 폭격당해 완전한 휴식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일단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온 존재는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프라이버시를 발견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의 포기는 대단한 교육과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프라이버시를 포기한다는 말이 과시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들이 굳이 당신의 미덕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를 포기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좋은 자신 안의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참본성이 태양과 함께 밝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니고 있는 참본성은 용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백 퍼센트 마음을 기울여 자신과 마주한다면, 당신은 이 조건 없는 참본성과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마주함을 넘어서는 다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명랑하고 근본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이, 순도 백 퍼센트의 진실됨을 발견합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타고난 불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깨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앉아서 하는 명상입니다. 명상으로 자신을 처음 똑바로 보게 되면,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온갖 종류의 끔찍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가능성들, 실체들과 마주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의심을 넘어서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본적이고 유일한 접근법은 오랜 시간을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과 함께하기보다 늘 우리 자신과 뭔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과 있지 못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본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당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애쓰면, 실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존재의 경험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반짝이는 광채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전사'는 내면 용기 지닌 수행자
두려움은 혼란스러움서 비롯돼
자기 직면하기, 피해선 안 돼
꼼꼼히 마주해 연구·명상해야
참본성, 즉 '불성' 깨달을 수 있어

흠 없는 인생을 위해 '알아차림'

우리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추천하는 기법은 명상입니다. 특별히 석가모니 붓다가 했던 방식을 추천하는데, 이 방식은 2,5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은 '만지면 사라지는 것 touch and go'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요점은 완전하고 진정한 존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질 때 바로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존재감이 생깁니다. 명상을 할 때는, 방석 위에 가부좌를 하고 편하게 앉습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목에 긴장을 풀고 호흡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기보다 호흡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또는 호흡의 과정을 단순히 지켜보도록 노력합니다. 억지로 호흡에 집중하지 말고 숨을 내쉰 뒤, 그 내쉰 숨이 사라지게 놔둡니다.

호흡 수련을 하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단지 생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잡념에 깊이 빠져 있으면 거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실제 마음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나든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명상 수련을 하는 동안 생각은 더 이상 특권층으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음 단계인 '만짐'이 필요합니다. 감정상태를 그저 인정하고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찬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만났을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고 그런 다음 가까이 다가가 잘 살펴봅니다. 당황스럽고 불유쾌한 순간, 삶에서 자의식을 느끼는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고통스런 경험, 또는 미래에 대한 힘든 예측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당신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펴보고, 그 다음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만일 당신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공격적이거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묻어두고 한 곁으로 치워버리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속임수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명상 수련을 통해 미묘하고, 궤변적이고, 기만적인 어떤 시도도 드러내야 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비존재와 무아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수행을 통해 행복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영적 유물론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때, 길을 벗어나 어떤 종류의 위험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앞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단순히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명상을 마쳤을 때의 마음가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야 합니다. 명상은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생은 휴가도 자유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기본적인 명상적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빈곤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외진 골목에서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더울 때, 얼음물에 손가락을 담근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더운 것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기쁨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면, 순간의 기쁨은 앞으로의 형벌일 뿐이며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불필요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명상수련은 가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좋은 삶을 이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인생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흠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쵸걈 트룽파 린포체는

1994년 티베트에서 태어났다. 불교의 가르침을 영어로 널리 알린, 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인도의 영라마 스쿨(Young Lamas School)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로 7년을 보낸 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하고 스코틀랜드에 삼예링 명상센터(Samye Ling Meditation)를 설립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21세기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지적 성숙과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불교특별강좌를 개최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제 2분기 강좌 개설 기간 : 2016년도 6월 7일 개강 8주간 수업 (월요일 수업은 6월 13일부터)

▶ 개설강좌명 ◀

강사	강좌명	요일	시간	장소
이태승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이해	월	오후 7시 ~ 9시	본원강의실
최성규 이은희	실담범자의 이해 및 실습	월	오후 4시 ~ 6시	상동
김열권	불교위파사나 전통의 이해와 실천	수	오전 10시 ~ 12시	상동
유경자 최성규	불화(佛畵)의 이해와 실습	화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상동

강사 소개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 위덕대 겸임교수)
이은희 (동방대학원대학 학부과정 강사, 미술대전 특선 및 대상 수상)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원장, 위빠사나붓다선원 지도법사)
유경자 (한국미협 불교미술분과 위원장, 위덕대 박사과정)

수 강 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수강접수 : 2016년 5월 15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현대뜨레비앙 148

제11기 풍수건축 인테리어 전문가 과정 강의안내

집중력이 모이는 곳에 책상을 배치하고, 복록수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풍수인테리어의 핵심이며,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는 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강의 목적
한정된 터에서 풍수적인 논리를 적용해 복된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나아가 공간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조합하여 건강과 복, 록, 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강 대상
도시공간설계 및 개발담당 공무원, 부동산 거래 및 관리 담당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감정평가사, 조경설계 및 시공업자,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자, 부동산 컨설팅 담당자, 건축예정 일반인,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업자, 기타 풍수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개강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9일(일요일) 14시 경기도 광주시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교육기간 2016년 5월 29일 ~ 2016년 7월 3일 (총 6주차)
강의시간 이론 강의 : 일일 3시간(6회), 실습 평가 : 5시간(1회)
강 사 김 경훈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장,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명예이사장)
수강료 및 입금계좌 교육비 : 600,000원 (수강료, 교재비, 패철, 수맥 탐사봉비 포함)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모집인원 20명 이내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신청 및 문의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 031-798-4595 / 010-7314-5336

※ 자세한 사항은 http//:www.luckyfi.com의 〈개강예정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행운풍수지리학회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漢文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 1권 (예경/각청) ● 제 2권 (천도/시식) ● 제 3권 (수계/방생)
● 제 4권 (장의) ● 제 5권 (점안) ● 제 6권 (독송집)
● 제 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직강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예 약 : 010-3463-7806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바람이 전해온 이야기



떠나간 이는 떠나보낸 이의 기억 속에 살고 있고, 기억을 간직한 이는 떠나간 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서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아득한 석탑 안에는 너와 나의 이름이 들었고, 우리가 걸었던 풍경 속에는 이제 우리의 발자국이 없다고 한다. 지난 밤 시인의 책상 위에는 시가 한 편 쌓였고, 이른 아침 돌담 밑에선 홀씨 하나가 바람에 날아갔다고 한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소통과 나눔의 미학

생각과 느낌, 한 길로 주고받아라

느낌 · 생각 표현하고 살아야
몸과 혼 일치돼 정화 가능
표현할수록 내면 뜻 더욱 진화
'침묵' 도 방편, 차선일 수 있어

> "감정, 억누르지 말고 그때그때 출력해라. 관계형성의 첩경이다"

관계형성에서 '소통과 나눔' 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과 나눔만 잘해도 우리들이 관계형성에서 겪는 어려움은 90퍼센트 이상 해결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스승이신 용타 스님은 그것을 '머리마음' 과 '가슴마음' 이라고 명명했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두 가지 마음을 주고받는다. 머리마음은 내 뜻(생각)을 의미하고, 가슴마음은 내 감정(느낌)을 말한다. 뜻(생각)은 머리 쪽 개념인 반면, 감정(느낌)은 가슴 쪽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하고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산다는 뜻이다.

마음을 잘 표현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자신의 뜻과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면 끝내는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뜻과 감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러므로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내 안에 갇혀있다 보면 내 가슴을 억압하게 되고, 몸을 억압하게 되고, 끝내는 생명까지 억압하게 된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표현과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표현과 소통은 '나' 라는 이 몸뚱어리와 혼(정신)을 정화시켜준다. 무엇엔가 억눌렸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싱싱해진다. 또한 누군가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토해놓고 나면 어떤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시원해져버린다. 그것이 표현과 소통의 마력이다. 그 때문에 친구관계, 대인관계 등 관계형성에 있어서 표현과 소통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뜻과 함께 감정 표현이 잘 될 때 관계형성은 환희로운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뜻에는 진화의 속성이 있다는 거다. 표현할수록 뜻은 진화한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뜻은 정체된 채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한다. 실제로 내 속에 들어있는 뜻을 표현하다 보면 그 뜻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되고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표현한 뜻을 전달받고 상대방도 자신의 뜻을 내놓음으로써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나오면서 내 뜻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뜻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 감정이 내 안에서 선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내 속에 이러이러한 뜻이 이러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양과 질로 들어있구나' 하고 자신의 머리마음과 가슴마음을 선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표현과 소통의 제1방법론이다.

다음엔 소통의 도구인 말이 명료, 간단, 적절해야 한다.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명료한 낱말로 명료하게 표현하되, 필요 없이 말을 길게 늘여 빼면 안 된다. 말 속에 적당한 유머나 농담이나 사투리를 섞으면 더욱 좋다. 유머나 농담이나 사투리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바꾸는데 매우 좋다.

하지만 표현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승인 용타 스님께서는 '표현 대신에 침묵이 최고일 때가 있다' 는 말씀을 늘 강조하신다. 침묵이 최고라고 생각될 땐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다. 침묵도 일종의 자기표현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표현과 소통을 위해선 일정한 툴(Tool)이 필요하다. 표현과 소통의 방법과 형식이다.

모든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만나면 교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통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표현이다. 자기 뜻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음으로써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용타 스승께서는 가장 바람직한 소통방법으로 '촛대-불꽃'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초에 불을 붙이면 촛대와 불꽃으로 나뉘듯 머리마음과 가슴마음을 '촛대-불꽃' 처럼 주고받는 것이다. 머리마음(생각 · 뜻)이 촛대에 해당하고, 가슴마음(감정 · 느낌)이 불꽃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장을 받으면 '상장을 받아서 기쁘다' 고 표현한다. 여기서 '상장을 받았다' 는 부분이 '촛대(머리마음 · 생각 · 뜻)' 에 해당하고, '기쁘다' 는 부분이 '불꽃(가슴마음 · 감정 · 느낌)' 에 해당한다. 불꽃을 위해 촛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하고 산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점점 불꽃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른이 되면 가슴마음은 완전히 퇴화하고 머리마음으로만 살게 된다. 그러다보니 자신은 물론 세상 자체가 삭막하게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촛대-불꽃' 형식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살면 가슴이 뻥 뚫리며 몸과 마음에 항상 생기가 돈다.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틀림없이 해결책도 생긴다. 뜻(생각)은 진화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촛대-불꽃' 형식으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초등학생이 된 기분으로 일기 쓰듯 노트에 '촛대-불꽃' 연습을 해보면 좋다. '아들이 상장을 받아와서 기쁘다', '남편이 승진을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친구가 예쁘다고 칭찬해줘서 기뻤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속마음을 '촛대-불꽃' 형식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다. 그런 뒤 가족이나 친구들을 상대로 실제로 그것을 발표해보면 굉장한 자신감과 함께 충만감이 느껴진다.

용타 스승께선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는 말을 자주 하신다.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면 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란 뜻이다.

'표현이 활로(活路)' 라는 말도 자주 쓰신다. 표현을 잘 해야 내가 살 길이 있다는 의미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은 '불꽃' 이다. 감정을 감추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때그때 출력해라. 관계형성의 첩경이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98호 현대불교
2016년 5월 25일 (4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죽는다 산다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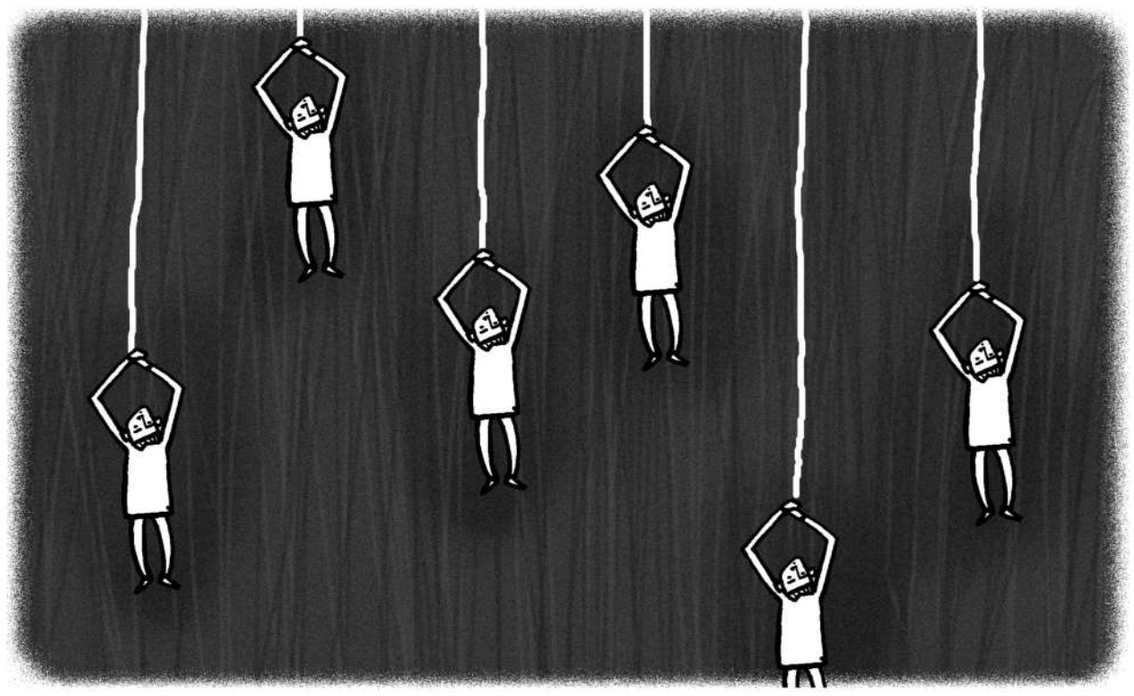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한자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도반으로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들이 갸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체 한마음으로써 스승에 대한 그 감사함을, 우리는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고깃덩어리에게 감사함을 느끼진 않으셨겠죠?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이, 우주 전체가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더불어 너는 나를 보고 스승으로 삼고, 나는 너를 보고 스승으로 삼아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니게 감사함을 모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역대로부터 오늘날의 스승의 감사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 전체다, 물에서 사는 거든 보이지 않게 사는 거든, 보이게 육지에서 사는 거든 허공에 돌아가는 그 별성이든 모두, 생명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전부 풀 한 포기 돌 하나라도 스승 아닌 게 없으니 어찌 스승의 날을 나 혼자만의 스승의 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멋있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스승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 같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날까지 길잡이로서, 더불어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아마 삼분의 일은 해당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으면 "낳는다고만 해서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 낳은 어린애가 잘 길러져서 어른이 돼서 앞뒤를 알고 또 우리 현실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공(空)한 도리를 알고 이래야만이 구경경계(究竟境界)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름해서 성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어린애를, 방편으로 말하자면 어린애를 쑥 낳는다고만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닌 까닭에, 어린애를 불쑥 낳은 거를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데 대해서는 점수(漸修)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돈(頓)'과 '점(漸)'이 어찌 둘이겠습니까? 사람이 충실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것이 돈과 점이 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점'도 없느니라. 이 가운데 바로, 우뚝 솟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 가운데 진짜 사람이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만큼 선(禪)과 학(學)을 둘로 봐서는 절대 안 되죠. 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과 또는 나의 마음내기 이전과 어찌 둘이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자신들도 알고 가겠지만 삼분의 일은 임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 달 임신된 사람, 두 달 임신된 사람, 석 달 임신된 사람, 넉 달 임신된 사람, 다섯 달, 일곱 여덟 달, 또 갓 낳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입디다. 하지만 그것을 낳았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 하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내가 공부를 해서, 즉 어린앨 생산했다면 정신계의 생산인데, 그 생산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그 습성과 그 습기가 대번에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따금씩 튀어나오고 아무리 자기를 깨달아서 어린앨 낳았다 하더라도 그 어린애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관습이 있고 습기가 있고. 그래서 이 습기와 관습을 다, 몰락 녹이기 이전에는 절대로 전체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을 가만히 볼 때에 그런 단계의 차원은 있으니 그저 조금 감응이 되고, 배 속에서 어린애가 노는 그 증세가 나오고, 감응이 되고, 9개월 됐으면 '아휴, 이거 틀림없이 임신은 했구나!' 하는 걸 자신들이 알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나가 상봉을 못한다면 그 줄을 잡고서 정신세계의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줄을 잡지 않는다면 전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봐도 본 게 아니고, 그저 50% 물질세계에서만 뱅글뱅글 돌지 정신세계에는 감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될 때까지 수행을 잘 해서 누(累)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습성과 습기를 다 없앰으로써 어른이 될 수 있으니 잘들 깊이깊이 생각해서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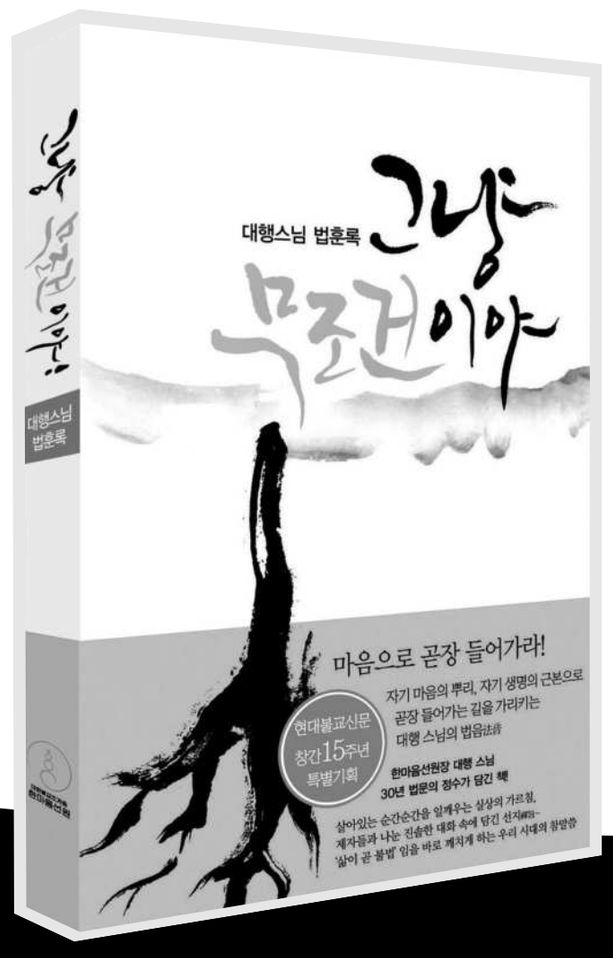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마음 공부를 하고 가는데 '한마음이다' 한다면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이다.' 하는 거는 커피를 담으려면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 그릇 둘레를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한마음' 이런다면 마음을 내기 이전이기 때문에 평등사상의 공법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계에 진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났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짐승도 될 수 있고, 여하간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화(化)할 확률이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 노릇을 못하면 그만큼 자유로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칼을 뺐으면 칼을 닦아서 꼭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스님네들도 지금 9개월째 된 사람도 있고, 8개월째 된 사람도 있고, 7개월째 된 사람도 있고 또는 갓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스님네들도 모두, 즉 말하자면 '내 제자다' 하기 이전에 모두 여러분과 같은 도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반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꼭 생명을 걸고, 죽는다 산다 하는 걸 떠나서 그걸 걸고 아예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는다 산다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거부감을 일으킬 것도 없고 번뇌 망상이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어딘가 내가 살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몸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못 하겠다는 생각, 이러한 문제, 관습, 습성이 그냥 어느 때고 술술 나오기 때문에 그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거를 따지려고 이런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를 따지려고 이런 공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둘이 아니라면, 달과 해가 둘이 아니라면,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라면, 정신과 육신이 둘이 아니라면 어찌 그것을 따지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종을 한번 치고 싶어서, 새벽에 무턱 없이 내리니까, 아침 종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광 때려 봤더니 그냥 모두들, 이건 마구니가 씌었다고 그러면서 여기 뒷덜미를 쥐어서 내쫓습디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맥고모자를 쓰고서 풀숲에 가서 앉았더니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지 그 맥고모자가 이 둘레 가장자리가 없어 그냥 흘러내려요.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웃었죠. 왜 웃은 줄 아십니까? '억수같이 빗방울이 수효가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가죽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구나. 가죽 속은 범할 수가 없지, 절대!' 이런 겁니다. 첫째,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둘째, 스르르 감아지고 셋째, 웃어집디다. 누구든지 그러한 속에 빠져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며 그 도리를 모를 겁니다. 어떤 것이 닥쳐도 마다하지 않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세계에서 볼 땐 만신창이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떤 거든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다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소립니다. 이 모두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체가 공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디다.

'우주가 어떻게 생산을 해내서 우리가 살기 좋게 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 별들이 마음들을 한데 모아서 태양을 형성시켰을까? 그 태양이 형성되고 나서 우리 생명들을 어떻게 조성해서 종자를 만들어서 살게 했을까? 또 우리가 스스로 지붕을 해 놓지 않고 태양을 다 받게끔 했을까? 스스로 마음으로 가려 놓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된 거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모두를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더불어, 같은 한마음이 그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또 발견을 하고, 과학자들이 발견하듯 발견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발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물리가 터지고 진화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스스로 나가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답답한 것이 나오는 구멍에서 바로 부처가 나온다!

☞ 25면에서 계속

고 여여한 자체가 그대로 도(道)며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겠고 스님네들도 답답하시겠지만 답답한 것이 나오는 구멍에서 바로 부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애를 뱄다 이런다면, 허허, 그런 무식한 말로 저분은 저렇게 말한다고 흉보겠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임신을 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 분도 있고 임신을 한 분도 있고, 나는 몇 개월 임신을 해서 됐다 이럴 수도 있고 안 했다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모두 자신들은 내가 이런 소릴 하는 대로 직감적으로 알 겁니다. '몇 개월 됐구나.' 하고. 허허.

또 자식을 낳아서 일곱 살이 됐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일곱 살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일곱 살이 돼 가지고도 면벽을 몇 년을 했습니까? 육조 선사도 십 년을 넘게 면벽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 면벽은 앉아서 있는 게,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게 면벽이 아닙니다. 나를 깨달아가지고, 즉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어린애를 키우는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습을 버리고 습관을 자제해라. 습관을 자제해라. 생각을 넓게 해라. 당장 요 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악도 없고 선도 없다. 왜 악도 없고 선도 없느냐?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까닭이다.'

이 모두가,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한다면 안 하는 대로, 세세생생에 한 발을 빼지 못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돌아가면서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그 생명들의 마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모조리 요건 잘못되고 요건 잘되고 요런 걸 따지니 어떻게 피안(彼岸)의 저 세계로 점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거기다가 놓고, '뿌리는 둘이 아닌 까닭에 너나 나나 만난 것이 바로 깡통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그 습을 녹이고 관습을 녹이고, 그 업보를 녹이고 유전성을 녹이고, 영계성을 녹이고 세균성을 녹이고, 인과를 녹이고 말입니다. 이래야만이 자생중생들이 모두 성불을 하게 되거든요. 자생중생들이 성불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성불을 합니까? 첫째, 둘이 아닌 나인데.

그래서 이 어린앨 배서 낳아 가지고도, 부처님 탄신일이니까 그날을 앞두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느라고 이런 얘길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애기는 낳았으나 그것이 도가 아니니라. 다가 아니니라. 애기를 다 길러서, 과거와 미래를 다, 현재 모든 거를 한데 합쳐 떡을 만들어서 찰나에 과거로, 찰나에 미래로, 찰나에 현재로, 찰나에 멀고 가깝고가 없이 응신(應身)으로서 응(應)해 줄 수 있어야만이 바로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갓 탄생을 했다면 넓게는 너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이지마는, 너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은 알더라도 네가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 앞뒤를 알기 위해서 모든 관습과 모든 습성을 다 떼어 내야만이 진짜 어른이 되느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길 하느라고, 지금 난 현대 사람이니깐 말입니다. 여러분도 현대에 태어나서 현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현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드리는 게 부처님의 진짜 제자면서도 불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떡하면 과거에 살던 나를 임신을 시킬까? 어떡하면 과거에 살던 나를 지금 나와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네가 진짜 있다면 증명을 해 보여라.' 하고, 일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밥을 할 때나 책을 볼 때나 언제라도 관하여 거기다 맡기세요. 책도 길잡이요, 모두 스님네들도 다 길잡이요, 모든 일체 만물들이 다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탄신일이 내일 모렌데, '우리가 어떡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부처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본다면, 그 모든 섭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따라 삼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련을 겪으셨으며 몸을 버렸습니까? 버려서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여러분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토해 냈습니다. 토해 내신 그런 도리를,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 똑바른 공부를,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하나도 못 갚는 게 되고 자기 육의 부모의 은혜도 못 갚는 겁니다. 자비란,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몽땅 우리가 옳은 법을 펴고, 옳은 법을 알고 옳은 법을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물만생의 은혜를 갚고 일체제불의 은혜를 갚고, 모든 조상들에게 은혜를 갚고…. 그게 모두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은혜를 갚는 반면에 바로, 자비가 그 속에서 술술 나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눈을 부라리고 그냥 악하게, 틀렸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좋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 하는 데 때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을 썼는데 말입니다, 그 악쓴 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겁니다. 그 악을 쓴 사람은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그 악을 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바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 공이 상대방을 쳐 가지고 상대방의 공이 다시 나한테 튀어오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원망하겠습니까? 마음을 넓혀서, 항상 이 마음을 넓게 쓰고 자비한 마음으로써, 얕은 사랑으로 매기단을 하려고 거짓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 그걸로써 임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임신을 했어도 임신을 했단 말을 말아라. 어린앨 낳았어도 낳았단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애를 기른다 하더라도 아주 인의롭게 길러라. 자비하게 길러라. 너 나가 원수지면 아니 되느니라. 너 나가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력을 느낀다면 다 얻을 수가 없느니라. 다 얻어야 다 토해 낼 수가 있어서 일체 중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골골이, 천차만별의 중생들에게 다 응신이 돼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응하느니라.' 이겁니다.

모습이 개 모습이라면 아, 그 속에 들어가면 개밖에 더 되겠어요? 예전에도 개가 병이 났다고 오고요, 소가 병이 났다고 오고, 닭이 병이 났다고 오고, 닭이 자꾸 미주알이 빠진다고 그러고 오고,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다 죽게 됐다고 오질 않나, 별소릴 다 들었지만 그거 나는 고양이로 보지도 않았고 개로 보지도 않았고 소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텔레비전으로 그, 동물의 왕국인가 그런 것도 모두 보시죠? 어떻게 기어 다니는 게도 제 자식은 함함해서 함부로 굴리기가 싫어서 그냥 자기가 먹어 버리고 다시 배출을 해요. 자기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냥 죽어 버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바로 그거니까요. 자기 몸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잘 알고 그 섭리에 대처를 해서 잘해 나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외려 미급해서, 죽으면은 그냥 아주 죽는 줄 알고 그냥 매달리고 온통 야단법석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것이 겁이 안 납니다. 그게 겁이 안 나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겁이 나면 뛰어넘을 수가 없죠.

어린애를 배 가지고 어린애가 9개월 됐다 이렇게 하고, 10개월이 돼서 낳았다 이런다면은 그때에 길잡이, 쳐 주는 길잡이가 참 필요합니다. 이게 9개월째가 되면 어린애가 막 놉니다. 발버둥이를 치고 나오기 직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감응이 되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그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말입니다,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이구, 이런 것은 뭐며, 이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시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 시킨다 할 때 거기서 시킨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거기서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린애를 낳아도 어머니로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테스트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하고 이렇게 사는 데 대해서 어떤 게 시대에 맞게 옳은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자제해야 됩니다. '아! 나를, 그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합류화시키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되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또 옳은 걸, 안팎이 옳다, 이익 하게 한다, 무조건 이익 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문이 없는 문으로 이끌어 가는 거, 또는 길이 없는 길로 이끌어 가는 거, 함이 없이 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 거, 먹은 사이 없이 먹는 도리로 이끌어 가는 거, 또 상단에 공양미를 올려놓고 그것을 내려먹는, 자기 밥 내려먹는 대로 이끌어 가는 거, 이러한 도리를 할 때는 응당히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 줄을 잡고 공부하는 거니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호박 넝쿨이 여기 쭈욱 있는데 애호박이 이쁘게 열렸거든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 주인공이 그거를 따 가지고 가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하하하. 그 마음의 습이라든가 관습이, 욕심이, 그냥 그 질투가 그냥 두루뭉수리처럼 있는데, 그게 뭉쳐서 앞을 탁 가리고 거기에서 자꾸 습성이 나오는 거를 그걸 대치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래 따 가지고 가란다고 따 가지고 가니깐, "왜 그걸 따느냐." 하니깐 주인공이 그렇게 따 가라고 그랬다 이거야. 응? 하하하.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될 노릇입니까?

이게 바로 꽉 찬 관습, 습성, 욕심, 그 악의가 들어 있는 마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녹이려면은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 '나가서 춤을 춰라.' 이런다 하더라도 '허!' 하고 싱긋이 웃고, 즉 말하자면 '아,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고서 거기다 되놓고 싱긋이 웃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호박을 따 가지고 가란다고 따 가지고 가니 벌써 그렇게 하면은 누(累)가 되는 건데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따 가지고 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럭하면 안 되잖아?' 하고서 거기다 도로 놓나.' 이거 보느라고 그런 건데 고만 속았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하려면 자기 선장이 자기를 다스려서 자꾸 거기다가, 좋은 것도 거기다 놓고 언짢은 것도 거기다…. 잘못 나가게 하는 것도 거기서 잘못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걸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다 확고하게 속지 말고 해야만이 부처님께서 "나는 항복을 다 받았다." 하는 그런 뜻과 똑같은 게 됩니다. 마구니가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을 어떠한 씀씀이로 쓰나. 넓게 쓰나 좁게 쓰나.' 또는 '관습으로써, 욕심으로써, 습관으로써 쓰나 안 쓰나,' 그거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구니가 나오든 신장(神將)이 나오든 미녀가 나오든, 어떤 게 나오든 용도에 따라서 다 그냥 '허허, 이게 다 그 속에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그 속에다가 그렇게, '그 속에서 나온 거로구나.' 하는 순간 벌써 화(化)해서 나왔던 게 다시 원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거를 항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항복받았다고 할 땐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토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다를 한 번 삼키고 바다를 다시 토해 줄 때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 모두가 도반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꼭 생명을 걸고, 죽는다 산다 하는 걸 떠나서
그걸 걸고 아예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위 법문은 1994년 5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사찰 화재, 예방이 최선의 방법



최송현
부산대 교수
조계종 사찰환경위원

산업화, 도시화는 기능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과 양식이 전 지구적으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특색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공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전통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궁궐이나 일부 전통마을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공간은 전통사찰이다.

전통사찰의 정체성은 도시화된 공간에서 자연적, 전통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옛정취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숲의 종교라 불리는 불교는 보전의 영역의 보수성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을 흔히 접한다. 그중에서 뜻하지 않은 변고를 우리는 재난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류가 천재(天災)이든 인재(人災)이든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통사찰은 일상적인 방재조치를 적용하기에는 그 사찰의 역할이나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전소사건, 2012년 내장사 전소사건 등에서 보듯이 전통사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해는 화재이다. 전통사찰은 화재가 발생하면 전각 등 구조물은 물론 각종 국가지정문화재도 더불어 잃을 수 있다.

사찰 재난 대응 메뉴얼 필요
첨단 방재기술도 관심가져야

이에 대해 총무원에서는 산림청과 더불어 사찰 안전성확보라는 명목으로 전각 주변의 나무를 벌목하고 주변 임목 높이의 1.5배(통상 20-30m)이상을 확보하며 지역 풍토에 적합한 내화수림대 조성을 검토한 바 있고 일부 시행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소방임도와 방화선 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련의 방재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방화선 확보를 위해 전각 주변 나무를 지나치게 벌목하거나 사찰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내화수림대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재조치는 외부 화재요인에 대한 대비이고, 실제로 화재발생 빈도는 전기누전이나 촛불 등으로 인한 내부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2006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 내부 요인을 막기 위한 방재대책은 메뉴얼 마련과 방재대비 훈련인데 이러한 부분도 시행되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방재대책 메뉴얼은 사찰의 여건에 관계없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재를 위한 연속성을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대응을 한 측면이 있고, 내부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 등의 관리가 부족하다.

향후 방화선 확보와 방화수림대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사찰 고유의 경관을 헤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전통사찰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재난예방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사찰이 안고 있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첨단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재난 예찰기술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천차만별인 사찰환경에 대해 예측되는 재난 대응을 유형화하여 메뉴얼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의 모든 문제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무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혹은 재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인재라고 평가한다. 전통사찰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는 것이며, 손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늘 예방하는 자세의 견지가 필요하다.

발언대

총무원장 선출제도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한 제2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결의하고 막을 내렸다. 이날 직선제와 염화미소법 등 선거방식에 대한 대중공사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한다. 〈편집자주〉

승가답게 선거해야 한다



홍선 스님
직지사 주지

집행부와 종회는 대중의 뜻을 받아 충실히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흡하고 폐해도 있겠지만, 우리 승가 단위는 많아야 1만 5천 명이다. 종교인들이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겠나. 미흡하더라도 모범을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승단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치화해야 한다. 다만 어떻게 승가답게 할지를 고민하면 될 일이다.

종무행정 큰 틀 변화할 것



법안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대중들이 직선제를 원하는 것이 이번 대중공사에서 확인 됐다. 이런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이다.

특히 차기 총무원장 당선 후 종무행정이 큰 틀에서 변화하리라 본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정확, 공정히 운영하고 집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의식이 바뀌지 않고, 운영이 허술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불자대중들의 의식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치밀한 과정은 아쉬움 남아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직접 경험한 지역대중공사에서는 다소 허술한 점이 많았다. 재미삼아 즉석투표를 한다고 하여 많은 대중들이 쉽게 생각하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처럼 종책 집행까지 강력히 주장하게 될 줄은 몰랐다.

즉석투표에서 설문을 먼저 간선제와 직선제, 간선제 중 여러 방식, 직선제 중 연령 및 승랍 제한 방식 등으로 나눠서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밀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의 결과를 전체 불자대중의 입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한다.

선거, 국민 감동 축제가 되어야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투표일은 선거인단 전체가 조계사에 함께 모여 줄지어 투표하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근과 발원을 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개표하는 동안 후보자와 대중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대중 지지와 성원 속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 자체를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社說

조계종 출가지도법사 제도 환영

조계종이 하반기부터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소식이다. 현재 교구본사 20여 곳에 인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본사들도 인선을 조속히 완료하다는 방침이다.

교구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 스님 1인, 비구니 스님 1인으로 위촉·구성된다. 이들 스님들은 자신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상담의 역할을 맡는다.

출가지도법사 제도는 중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조계종의 자구책이다. 현재 행자 생활 중 사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속하는 인원은 약 20%정도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해 발심했지만 이상과 현실, 낙후된 환경과 교육 등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4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출가지도법사 제도에 공감하고 사업 진행에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출가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가 발심을 한 사람들이 부적응을 이유로 환속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사찰 교무와 원주 스님이 행자들을 관리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젊은 세대에 맞는 행자 교육 및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지도법사는 행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낯선 사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가지도법사들이 한데 모이는 5월 31일 첫 워크숍에서도 상담 기술과 같은 전문 강의도 이뤄진다고 한다. 출가지도법사들의 활동으로 행자 중도 퇴사율이 줄어들길 바란다.

인증제품이 사찰을 지킨다

국민안전처가 사상 처음으로 불교계 LED연등 사용실태를 조사한 '2016 사찰 안전점검'에서 사찰 55곳이 미인증 LED 연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2099개 사찰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LED제품의 사용이 늘고 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만 하더라도 봉축위원회가 거리연등 1만개를 LED연등으로 교체했으며, 서울지역 사찰들도 약 1만여개를 교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LED제품의 보급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미인증LED제품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인증LED제품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인증LED연등이다.

의정부소방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전통사찰 LED연등 착화 개연성 실험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이 극명히 드러난다. 실험에서 미인증LED연등에 정상 전압인 220v보다 10%높은 240v를 공급할 시 1시간이 되지 않아 불꽃이 일었다고 한다. 미인증LED연등에는 과전압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4월부터 계도에 나서 일선사찰이 인증LED연등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군소종단이다. 지난해 11월 LED연등이 발화점이 돼 발생한 사찰화재도 군소종단의 사찰에서 발생했다. 전통사찰이 아닌 경우에는 방재시설 또한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자칫 산불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인증LED연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범종단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사찰의 인증LED연등 사용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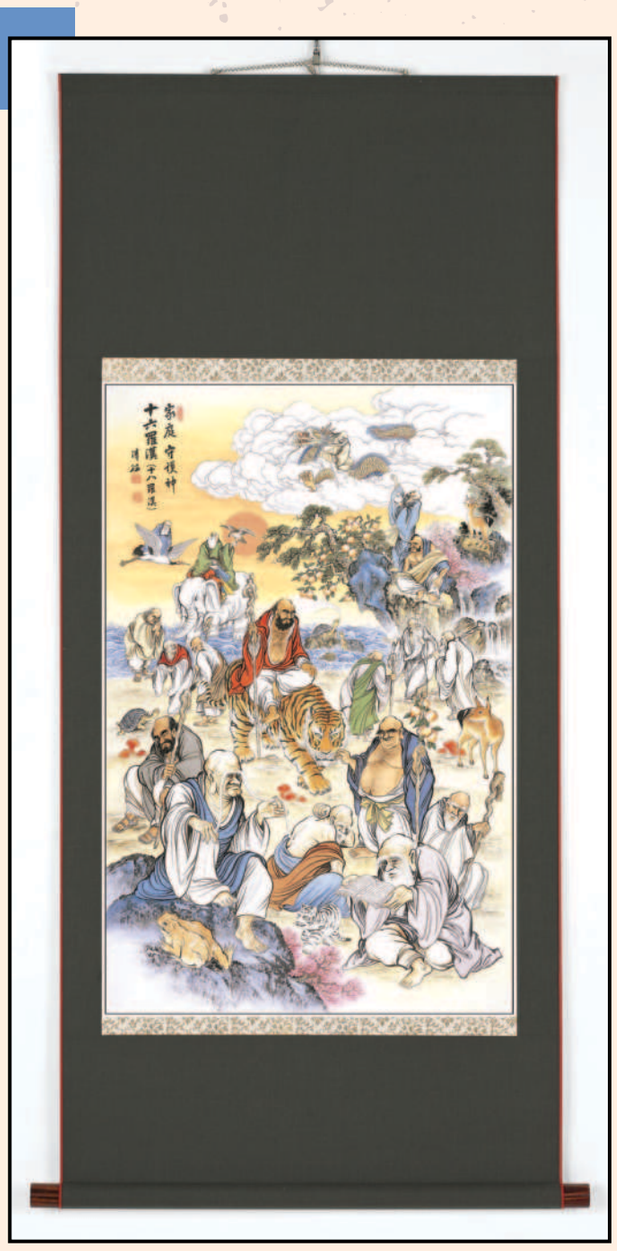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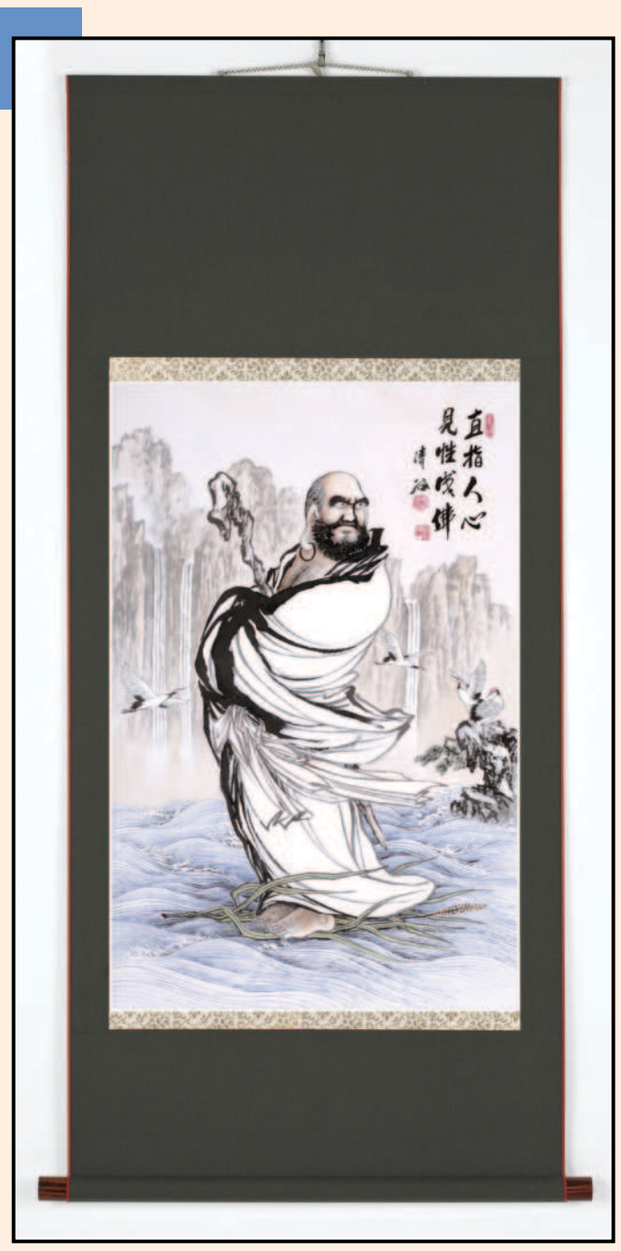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이십니다.

달마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